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435-102000

2009 식품산업동향

연구수행기관: *kfri* 한국식품연구원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2010. 2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8578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435-10

제 출 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2009 식품산업동향

2010. 2

본 보고서를 “국내외 식품관련 통계수집 및 식품산업 동향분석·전망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2

연구수행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수행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과제수행책임자 : 오승용 (한국식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참여자 : 장종근 (한국식품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응제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곽창근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최태동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해진 (한국식품연구원 위촉연구원)
전수지 (한국식품연구원 위촉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요약문

국민경제에서 식료품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0년 1.8%에서 '08년 1.4%로 감소하고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0년 6.3%에서 '08년 5.1%로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다.

'07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공급된 농축수산물은 45.9조원이며 그 중 식품제조업 49.2%, 외식산업 9.5%, 최종소비 29.6%, 기타부문 9.0%, 농업부문 재생산에 2.7%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도 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은 47조 3천억원으로 '01년 이후 연평균 5.7%의 증가세를 보였고 부가가치는 '01년 13조 8천억원에서 '08년 18조 7천억원으로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생산액은 '05년 불변가격 기준 '09년 62조원에서 '14년 69.9조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고 부가가치도 '09년 13.5조원에서 '14년 15.2조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01년 이후 0.1%씩 증가하여 '08년에는 153,024명에 달하였으며 '09년 이후 약 2.5%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01~'08년 동안 38.6%의 1인당 외식비 실질증가율에 힘입어 '08년도 매출액이 약 65조원에 달하였으며 사업체수는 '08년 577천개로 전년 대비 0.05% 감소하였고 종사자수는 157만명으로 '01년 134만명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메뉴 간편화 및 진문화, 주방 현대화 촉진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대비 종사자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경영성과가 부진한 한계 사업체의 퇴출로 업체규모가 중·대형화하고 있지만 인건비 및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율은 하락하고 있다. 향후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05년 불변가격 기준 2014년까지 연평균 2.1%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식품유통업은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할인점과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슈퍼마켓이 많이 출현하면서 '08년 식료품소매업 사업체수는 94,806개소로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으며 종사자수도 '08년 기준 166,699명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하였다. 반면 식료품소매업 매출액은 '01년 이후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여 '08년에는 약 11조원에 달하였으며 식품소매유통 업체별 점유율은 대형할인점 25.8%, 슈퍼마켓 25.2%, 식료품소매점 25.2%, 일반종합소매점 12.4%, 편의점 7.2%, 백화점

4.2%로 나타났다.

'08년도 식품수출은 31.4억 달러, 수입은 109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77.6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01년 이후 연평균 15.6%씩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식품 수출대상 국가는 일본 및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가 6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채소주스, 유자조제품, 김치 등의 수출증가에 힘입은 과채가공품 및 막걸리를 포함한 곡물발효주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03~'08년 동안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비지출 증가율은 6.6%로 가계지출 위축, 교육비 및 통신비의 지출 비중 증가로 음식료품비 실질 지출증가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39.3만원이고 식료품비에 58.7만원, 외식으로 28.1만원 지출하였으며 도시가구의 소득은 349.4만원이고, 식료품비로 60.6만원, 외식으로 29.3만원 지출하고 있으며 전국 및 도시가구 모두 식료품비 중 신선식품 지출이 30%, 가공식품 17%, 외식 46% 내외인데 경기침체 등으로 외식비 지출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다.

미국의 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년 기준 출하액이 5,854억 달러로 11.7%, 부가가치는 2,618억 달러로 11.5%, 사업체수 27,939개로 8.2%, 종사자수는 약 1,528천명으로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외식업은 '07년 기준 4,330억 달러로 '01년 이후 연평균 5.1%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약 970만명이다.

일본의 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년 기준 출하액이 30.5조엔으로 9.0%, 부가가치는 11조엔으로 10.1%, 사업체수 36,194개로 14.0%, 종사자수는 약 1,221천명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외식업은 '07년 기준 24.7조엔으로 '01년 이후 연평균 0.8% 감소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도 약 412만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년 기준 출하액이 8,543억 유로로 11.7%, 부가가치는 1,875억 유로로 10.2%, 사업체수 303,109개로 13.0%, 종사자수는 약 4,452천명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외식업은 '07년 기준 3,170억 유로로 '00년 이후 연평균 4.6%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는 약 721만명으로 연평균 3.7% 증가하고 있다.

목 차

제 1 부 국내 식품산업 동향

I. 국민경제와 식품산업

1. 일반경제와 식품산업	1
2. 푸드시스템과 식품산업	8

II. 국내 식품산업 동향

1. 음료제품제조업	21
가. 생산/출하동향	21
나. 산업구조	32
다. 고용과 임금	41
2. 외식산업	44
가. 산업동향	44
나. 산업구조	50
3. 식품유통업	62
가. 산업동향	62
나. 산업구조	69
4. 식품수출입	77
가. 수출입 동향	77
나. 수출입 구조	82
5. 식품소비지출	100

III. 국내 식품산업 전망

1. 총산출 및 부가가치	115
---------------------	-----

가. 푸드시스템	115
나. 음료제품제조업	119
2. 대외교역	128
가. 수출	128
나. 수입	137
3. 민간소비지출	138
가. 푸드시스템	138
나. 음료제품제조업	140
4. 취업 및 고용	145
가. 취업	145
나. 고용	146

제 2 부 해외 식품산업 동향

I. 세계식품시장 규모

II. 미국 식품산업 동향

1. 음료제품제조업	149
가. 출하동향	149
나. 산업구조	150
2. 외식산업	157
가. 산업동향	157
나. 산업구조	158
3. 식품유통업	161
가. 산업동향	161
나. 산업구조	162

4. 식품수출입	166
가. 수출입 동향	166
나. 수출입 구조	167
5. 식품소비지출	173

Ⅲ. 일본 식품산업 동향

1. 음식료품제조업	176
가. 출하동향	176
나. 산업구조	178
2. 외식산업	184
가. 산업동향	184
나. 산업구조	184
3. 식품유통업	189
가. 산업동향	189
나. 산업구조	190
4. 식품수출입	193
가. 수출입 동향	193
나. 수출입 구조	194
5. 식품소비지출	198

Ⅳ. 유럽연합(EU27) 식품산업 동향

1. 음식료품제조업	203
가. 출하동향	203
나. 산업구조	205
2. 외식산업	212
가. 산업동향	212
나. 산업구조	213

3. 식품유통업	216
가. 산업동향	216
나. 산업구조	218
4. 식품수출입	221
가. 수출입 동향	221
나. 수출입 구조	223
5. 식품소비지출	229

표 목 차

<표 1- 1> 2009년 일반경제동향	2
<표 1- 2> 2009년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동향	3
<표 1- 3> 음식료품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008)	7
<표 1- 4> 2007년 푸드시스템	8
<표 1- 5> 푸드시스템에서의 부문별 최종소비지출(2007년)	11
<표 1- 6> 음식료품제조업의 원료 농수산물 이용비율(2007년 경상가격)	13
<표 1- 7> 음식료품제조업의 농수산물 및 반가공품 이용실적(2007년)	16
<표 1- 8> 외식산업 식재료 투입구조(2007년)	19
<표 1- 9>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 추이	33
<표 1-10>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34
<표 1-11>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율 현황	35
<표 1-12>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38
<표 1-13>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41
<표 1-14> 외식산업 경영성과 지표	46
<표 1-15>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업체 매출 현황	47
<표 1-16> 주요 피자업체 매출 현황	48
<표 1-17>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 매출 현황	49
<표 1-18> 주요 위탁급식업체 매출 현황	50
<표 1-19>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	51
<표 1-20>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종사자수 현황	52
<표 1-21>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	53
<표 1-22> 매출액 규모별 음식점업 구성비 현황(2008)	54
<표 1-23> 종사자 규모별 음식점업 구성비 현황(2008)	55
<표 1-24> 음식점업 업종별 업체수 추이	56
<표 1-25> 음식점업 업종별 매출액 추이	57
<표 1-26> 음식점업 업종별 종사자수 추이	59

<표 1-27>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61
<표 1-28>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사업체수 현황	64
<표 1-29>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매출액 현황	65
<표 1-30>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종사자수 현황	65
<표 1-31> 편의점 현황	66
<표 1-32> 편의점 식품부문 매출액 구성비	67
<표 1-33> 사이버 쇼핑몰 취급범위별 음식료품 거래액 비중 추이	68
<표 1-34> 사이버 쇼핑몰 운영형태별 음식료품 거래액 비중 추이	69
<표 1-35> 음식료품 도매업 현황	70
<표 1-36> 음식료품 소매업 현황	70
<표 1-37> 매출액 규모별 음식료품 도매업 구성비	71
<표 1-38> 종사자 규모별 음식료품 도매업 구성비	72
<표 1-39> 매출액 규모별 음식료품 소매업 구성비	73
<표 1-40> 종사자 규모별 음식료품 소매업 구성비	74
<표 1-41> 소매유통채널별 식품 매출 비중	75
<표 1-42> 가공식품 수입물가 지수(2005년=100)	80
<표 1-43> 가공식품 수출물가 지수(2005년=100)	81
<표 1-44>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2008)	83
<표 1-45> 라면 국가별 수출 비중	85
<표 1-46> 소주 국가별 수출 비중	85
<표 1-47> 커피크리머 국가별 수출 비중	86
<표 1-48> 장류 수출 현황	87
<표 1-49> 간장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88
<표 1-50> 고추장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88
<표 1-51> 된장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89
<표 1-52> 인삼가공식품 수출현황	90
<표 1-53> 백삼 국가별 수출 비중	90
<표 1-54> 홍삼 국가별 수출 비중	91

<표 1-55> 백삼가공품 국가별 수출 비중	91
<표 1-56> 홍삼가공품 국가별 수출 비중	92
<표 1-57> 김치 국가별 수출 비중	93
<표 1-58> 조제김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93
<표 1-59> 천일염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94
<표 1-60> 탁주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95
<표 1-61>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2008)	97
<표 1-62> 주요 국가의 식품수출 평균단가 비교	98
<표 1-63> 전국 전가구 월평균 가구당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102
<표 1-64> 전국 전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부문별 지출 및 앵겔계수(2인 이상) ...	105
<표 1-65> 도시 전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부문별 지출 및 앵겔계수(2인 이상) ...	106
<표 1-66> 전국 전가구 소득수준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인 이상)(2008) ...	107
<표 1-67> 도시 전가구 소득수준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인 이상)(2008) ...	108
<표 1-68> 전국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지출(2인이상)(2008)	109
<표 1-69> 도시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지출(2인이상)(2008)	110
<표 1-70> 전국 전가구 가구유형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008)	113
<표 1-71> 도시 전가구 가구유형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008)	114
<표 1-72> 가구유형별 월평균 1인당 음식료품비 지출 현황(2008)	114
<표 1-73> 푸드시스템의 총산출 전망	116
<표 1-74> 푸드시스템 전체의 부가가치 전망	117
<표 1-75> 음식료품제조업의 총산출 전망	122
<표 1-76> 음식료품제조업의 부가가치 전망	123
<표 1-77>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 전망	128
<표 1-78> 주요 수출대상국별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130
<표 1-79> 수출물류비 지원에 의한 수출증대효과 분석	133
<표 1-80> 정책효과를 고려한 수출전망	135
<표 1-81>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 전망	137
<표 1-82> 푸드시스템 전체의 민간소비지출 전망	138

<표 1-83> 음식료품제조업의 민간소비지출 전망	143
<표 1-84> 푸드시스템의 취업자 수 전망	145
<표 1-85> 푸드시스템의 고용자 수 전망	146
<표 2- 1>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149
<표 2- 2> 음식료품 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현황	151
<표 2- 3> 음식료품 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현황	152
<표 2- 4> 음식료품 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율 추이	153
<표 2- 5> 음식료품 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현황	155
<표 2- 6> 음식료품 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 현황	156
<표 2- 7> 미국의 외식산업 성장 추이	157
<표 2- 8> 미국의 외식산업 업체별 사업체수 비중	158
<표 2- 9> 미국의 외식산업 업체별 종사자수 추이	159
<표 2-10> 미국의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구성비 추이	160
<표 2-11> 미국 음식료품 도매업 현황	161
<표 2-12> 미국 음식료품 소매업 현황	162
<표 2-13>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163
<표 2-14>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164
<표 2-15>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추이	165
<표 2-16> 미국의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2008)	169
<표 2-17> 미국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2008)	171
<표 2-18> 미국의 식품 수출단가 현황	172
<표 2-19> 미국 전가구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173
<표 2-20>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176
<표 2-21> 일본의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율 추이	181
<표 2-22> 일본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182
<표 2-23> 음식료품제조업 규모별 구성비(2007)	183
<표 2-24> 외식산업 성장 추이	184
<표 2-25> 일본 음식료품 도매업 현황	189

<표 2-26> 일본 음식료품 소매업 현황	190
<표 2-27> 일본의 음식료품 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191
<표 2-28> 일본의 음식료품 소매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192
<표 2-29> 일본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2008)	197
<표 2-30> 일본 전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198
<표 2-31> 일본 전가구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199
<표 2-32> 일본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200
<표 2-33> 일본 근로자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202
<표 2-34> 일본 전가구 소득수준별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202
<표 2-35> 유럽연합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203
<표 2-36> 유럽연합의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율 추이	208
<표 2-37> 음식료품제조업 규모별 구성비(2006)	211
<표 2-38> 외식산업 성장 추이	212
<표 2-39>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현황	214
<표 2-40>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215
<표 2-41>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215
<표 2-42> 유럽연합 음식료품도매업 현황	216
<표 2-43> 유럽연합 음식료품소매업 현황	217
<표 2-44>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218
<표 2-45>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219
<표 2-46>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추이	220
<표 2-47> 유럽연합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 현황	224
<표 2-48>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 수출 상위 20개 품목(2008)	226
<표 2-49> 유럽연합 음식료품 제조업 부문별 수입 현황	227
<표 2-50>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 수입 상위 20개 품목(2008)	228
<표 2-51>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식료품 품목별 지출 비중(2005)	233

그림 목차

<그림 1- 1> 산업생산지수의 변동추이('00~'09년)	4
<그림 1- 2> 서비스업 생산지수 변동추이('00~'09년)	5
<그림 1- 3> 농림수산물 및 소재·가공식품 흐름도(2007년)	9
<그림 1- 4> 식품형태별 최종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	12
<그림 1- 5> 음식료품제조업의 원료 농수산물 이용비율 변화 추이(2003-2007) ..	15
<그림 1- 6>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농수산물 및 반가공품 이용비율 변화추이 ..	17
<그림 1- 7> 외식산업 식재료 원료 부문별 이용 비율 변화추이(2003-2007)	20
<그림 1- 8>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 및 부가가치 성장 추이	22
<그림 1- 9>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율과 성장률 관계	37
<그림 1-10> 음식료품제조업 산업집중도 변화 추이	39
<그림 1-11> 음식료품제조업 산업집중도 한·일 비교	40
<그림 1-12> 음식료품제조업 임금 및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2005=100)	42
<그림 1-13> 외식업 성장 추이	45
<그림 1-14> 소매유통 업체별 매출액 성장 추이(2005=100)	62
<그림 1-15> 소매유통채널별 식품판매 비중 추이	76
<그림 1-16> 대륙별 우리 나라 식품 무역 현황(2008)	77
<그림 1-17> 연도별 가공식품 무역수지 변동 추이	78
<그림 1-18> 가공식품의 수출입 물가 변동 추이(미\$ 기준)	79
<그림 1-19>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동향	82
<그림 1-20>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동향	96
<그림 1-21> 연령별 추계인구 구성 비율 추이	101
<그림 1-22> 가구구성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구성변화 추이	101
<그림 1-23> 전국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음식료품비 구성비 추이(2인 이상)(2008) ..	103
<그림 1-24> 도시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음식료품비 구성비 추이(2인 이상)(2008) ..	104
<그림 1-25> 전국 전가구 가구당 신선식품 지출 구성비 추이	111
<그림 1-26> 전국 전가구 가구당 가공식품 지출 구성비 추이	112

<그림 1-27> 푸드시스템의 총산출 전망	116
<그림 1-28> 푸드시스템의 부가가치 전망	118
<그림 1-29> 푸드시스템의 민간소비지출 전망	139
<그림 2- 1> 세계식품시장규모 추이	147
<그림 2- 2> 세계식품시장 대륙별 비중(2009)	148
<그림 2- 3> 미국 식품료품제조업 출하액 및 부가가치 추이	150
<그림 2- 4> 미국의 연도별 가공식품 무역수지 변동 추이	166
<그림 2- 5> 미국의 식품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현황	167
<그림 2- 6> 미국의 식품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현황	170
<그림 2- 7> 미국의 식품료품비 지출 추이	174
<그림 2- 8> 미국의 소득수준별 식품류별 식품료품비 지출 비중(2008)	175
<그림 2- 9> 일본 식품료품제조업 출하액 및 부가가치 추이	177
<그림 2-10> 일본 식품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 추이	179
<그림 2-11> 일본 식품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180
<그림 2-12> 외식산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185
<그림 2-13>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186
<그림 2-14> 외식산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187
<그림 2-15>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189
<그림 2-16> 일본의 연도별 가공식품 무역수지 변동 추이	193
<그림 2-17> 일본의 식품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비중 추이	194
<그림 2-18> 일본의 식품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비중 추이	196
<그림 2-19> 식품료품제조업 국가별 출하액 현황	204
<그림 2-20> 유럽연합의 식품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비중(2007)	206
<그림 2-21> 유럽연합의 식품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2007)	207
<그림 2-22> 유럽연합의 식품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비중(2007)	209
<그림 2-23> 유럽연합의 식품료품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 비중(2007)	210
<그림 2-24>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매출액 비중(2007)	213

<그림 2-25> 유럽연합의 연도별 가공식품 무역수지 변동 추이	221
<그림 2-26> 유럽연합 국가별 수출현황(2008)	222
<그림 2-27> 유럽연합 국가별 수입현황(2008)	223
<그림 2-28> 유럽연합 가계지출 현황(2005)	229
<그림 2-29> 유럽연합 국가별 식품료품비 지출 비중(2005)	230
<그림 2-30>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식품류별 지출 비중(2005)	231
<그림 2-31> 유럽연합 국가의 식료품 품목별 지출 비중(2005)	232

제 1 부 국내 식품산업 동향

I. 국민경제와 식품산업

1. 일반경제와 식품산업

2008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내수부진과 그 동안 호조를 보였던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되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둔화되면서 전년도 5.1%에 비해 낮은 2.2%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09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물가가 0.3% 감소하였으나 수입물가가 6% 감소함에 따라 교역조건이 호조되면서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1%로 나타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연간 상승률이 2.8%로 전년에 비해 오름세가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물가의 경우 전년도 8.6%의 상승에서 0.2%의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산품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수요가 부진하고 인건비가 하락하는 등의 요인으로 서비스요금 상승세가 둔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2008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극심한 내수부진과 수출 성장률 둔화 등으로 각종 내수경기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한국은행의 현재생활형편 CSI 지수를 보면 '07년 IV분기에 83까지 내려갔다가 '08년 1/4분기에 93으로 회복되었으나 2/4분기 들어서면서 다시 72까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외식비지출전망 CSI도 2007년도 2/4분기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여 2008년도 2/4분기에 79까지 떨어졌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2009년 일반경제동향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경제성장률(%)('05년기준)						
GDP성장률	2.2	-4.2	-2.2	0.9	6	0.2
GNI성장률	-1.2	-4.7	0.5	4.0	-	2.1
산업생산지수('05년기준)	119.8	102.8	117.8	124.7	130.6	118.9
제조업	120.3	101.7	118.5	125.6	131.1	119.2
식품제조업	99.4	91.2	99.8	104.2	101.0	99.1
음료 제조업	104.8	92.0	107.0	112.4	87.5	99.7
서비스업생산지수('05년기준)	125.1	124.0	129.7	130.1	134.4	129.5
경상수지(백만\$)	-5,776.3	8,618.2	13,097.4	10,395.5	10,556.5	42,667.6
상품수지	5,669.1	8,308.8	17,576.0	14,702.5	15,540.3	56,127.6
서비스수지	-16,671.5	-1,926.2	-4,167.7	-5,334.5	-5,774.3	-17,202.7
물가지수('05년기준)						
생산자물가	111.1	110.2	110.3	111.5	111.4	110.9
소비자물가	109.7	111.6	112.7	113.3	113.5	112.8
수출입물가지수('05년기준)						
수출물가	109.5	115.3	108.6	108.5	104.5	109.2
수입물가	143.7	142.3	133.6	137.6	137.2	137.7
환율(원/\$)	1,101.9	1,417.6	1,285.5	1,240.0	1,168.8	1,276.4

자료: 통계청(www.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데 반해 가계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9%의 소득 증가율 이상으로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한 향후에도 소비위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도 민간소비지출 내용을 분기별로 보면 3/4분기의 경우 승용차, 휴대폰 등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6%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금융보험, 오락문화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2.7%, 비내구재 소비는 2.2%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0.9% 감소하여 '08년 6.8% 증가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외식비 지출의 경우도 전년 대비 2%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식비 지출 전망지수가 감소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외식소비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한 소비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2009년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동향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가계소득(천원)	3,392.8	3,476.2	3,298.9	3,456.3	3,539.7	3,442.8
(전년 대비 %)	6.1	1.3	0.5	-0.7	4.9	1.5
가계소비지출(천원)	2,116.1	2,137.9	2,070.7	2,197.2	2,218.7	2,156.1
(전년 대비 %)	4.9	-3.6	1.5	2.7	7.3	1.9
식료품(천원)	587.4	543.6	578.7	602.8	602.8	582.0
(전년 대비 %)	6.8	-3.1	1.4	-2.2	0.3	-0.9
- 외식(천원)	280.9	249.9	285.9	281.1	284.4	275.3
(전년 대비 %)	5.9	-5.6	-1.9	-1.0	0.4	-2.0
현재생활형편CSI ¹⁾		93	72			
외식비지출전망CSI ¹⁾		89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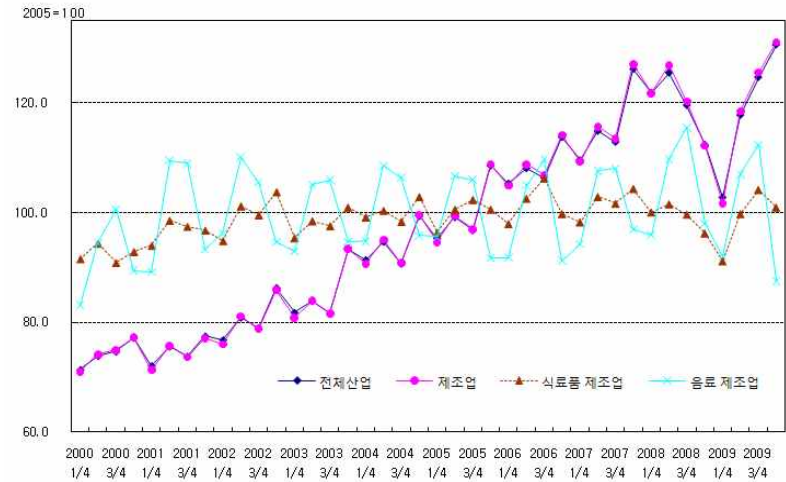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가계조사」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주: 1) 2008년도 수치임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내수시장도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전체 산업 및 제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및 부품제조업이 12.5%, 화학제품 4.8%, 전기장비 등이 2.8%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 11.0%, 자동차 7.0%, 1차 금속 9.4%, 영상음향통신제조업이 7.4% 감소하면서 '09년 제조업 전체의 생산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다.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도 제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식료품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데 그친 반면 음료품은 전년 대비 5.1%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음식료품제조업 전체적으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산업생산지수의 변동추이('0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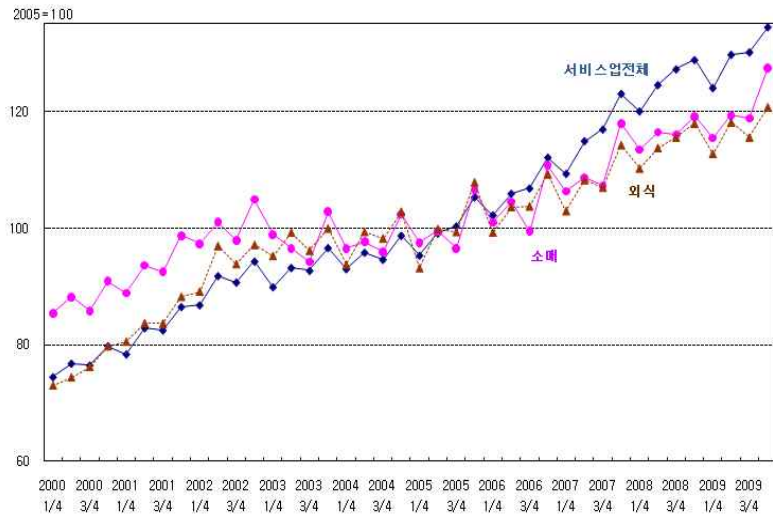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서비스업은 수출물동량 감소로 수상운송업이 전년 대비 48.1%로 부진한 반면 부동산개발 및 공급 관련 산업이 전년 대비 31.8% 증가하면서 부동산업이 전년 대비 11.2% 성장하였다.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도 22.7%의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병원과 약국의 영업호조에 따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전년 대비 19.3%의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률, 연구개발 및 디자인 관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시설관리, 조경 및 청소, 방제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도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의 경우 서비스업 전체 증가율 4.4%와 비슷한 전년 대비 4.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도 전년 대비 2.5%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림 1-2> 서비스업 생산지수 변동추이('00~'09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음식료품제조업의 성장률이 제조업 평균 성장률보다 낮아 전체 제조업에서 음식료품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액 기준으로 '08년도의 음식료품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전년도 4.8%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다. 음식료품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5.1%로 출하액 비중보다 높지만 '05년 6.1%, '06년 5.8%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료품제조업은 생산이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21개 제조업 부문 중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보면 39.5%로서 제조업 평균 33.8%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산업보다는 낮지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비해서는 높다. 음식료품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율이 이와 같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부가가치가 높은 음료산업이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이며 2008년 음료제품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율은 57.7%에 이르고 있다.

음식료품제조업은 고용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음식료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전년 대비 1.5% 감소하여 '08년도 월평균 고용 인력은 155,024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6.2%로 '07년 6.4%에 비해 감소했지만 제조업 중에서 5번째로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이나 부가가치에 비하여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장치산업인 음료산업보다는 식료품산업이 출하액 또는 부가가치 대비 고용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주요 제조업 사업체 중에서 음식료품제조업의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6%로서 제조업 중에서 3번째이다. 출하액과 부가가치 규모에 비해 음식료품제조업의 사업체수 비중이 이와 같이 큰 이유는 수산가공과 과채가공 부문에 중소기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음식료품제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업과의 긴밀한 전후방 산업연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식품공급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고 이들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1-3> 음식료품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008)
단위: %

부문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하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고용
전자 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7	20.8	6.5	14.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6	10.2	5.2	10.6
제1차 금속산업	11.5	9.1	4.0	4.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7.0	7.9	13.7	10.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8.9	6.8	3.9	4.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5	6.6	2.2	6.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9	5.5	13.7	9.1
음·식료품 제조업(사료제외)	4.3	5.1	6.6	6.2

자료: 통계청(www.kosis.kr), 「광업·제조업조사」

2. 푸드시스템과 식품산업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07년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푸드시스템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은 농림축수산물(이하 농수산물) 40조 5,060억원, 소제식품 18조 11억원, 가공식품 45조 524억원, 외식 58조 9,067억원 등 모두 162조 4,662억원에 달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수출되어 푸드시스템에서 누출된 농식품이 4조 3,719억원에 달하는 반면 수입되어 국내 푸드시스템으로 유입된 농식품이 22조 3,309억원에 달하여 국내에 공급된 농식품은 농수산물 45조 9,013억원, 소제식품 21조 3,956억원, 가공식품 51조 3,455억원, 외식 61조 7,827억원 등 모두 180조 4,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5조 1,818억원에 달하는 농식품이 식품 또는 외식의 형태로 민간소비로 지출되고, 1조 1,676억원 농식품이 재고조정되었으며, 나머지 64조 757억원의 농식품은 재생산용 또는 푸드체인(food chain)상의 하류산업에 원료로 투입되거나 농식품 이외 산업부문에 중간원료로 투입되었다.

<표 1-4> 2007년 푸드시스템

단위: 억원

항 목	생 산 (A)	수 출 (B)	수 입 (C)	생산자가격 국내공급액 (D=A-B+C)
농수산물	405,060	3,307	57,260	459,013
소제식품	180,011	2,471	36,416	213,956
가공식품	450,524	25,311	88,242	513,455
외 식	589,067	12,630	41,390	617,827
계	1,624,662	43,719	223,309	1,804,252

자료: 한국은행, 「2007년 산업연관표」, 2009

(별첨자료 복사하여 삽입)

또한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된 농수산물의 총공급액 45조 9,013억원 중 49.2%에 해당하는 22조 6,004억원이 식품소재산업과 식품가공산업으로 구분되는 음식료품제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어 가공되었고 최종소비에 29.6%, 외식산업에 9.5%, 기타제조업에 9.0%, 농업부문 재생산에 2.7% 등으로 각각 사용되었다. 2005년 국내에서 공급된 농수산물이 음식료품제조업 52.1%, 최종소비 30.1%, 외식업에 8.1%가 각각 투입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음식료품제조업과 최종소비 투입 비율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외식산업의 투입비율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가공식품 및 외식소비의 증가경향에도 불구하고 음식료품제조업 투입비율이 감소한 것은 비 부문에서 도정부문으로 투입이 2005년 7조 9,826억원에서 2007년 7조 3,523억원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감소는 동기간 미국 농가판매가격의 1.5% 감소와 더불어 미국생산량이 7.6%나 감소한데 따른 것이며, 도정 부문을 제외한 음식료품제조업 부문에 투입된 농수산물은 2005년 14조 7,004억원에서 2007년 15조 2,48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음식료품제조업과 농수산부분과의 연계가 약화된 결과는 아님을 알 수 있다.

2007년 기준 푸드시스템에서의 부문별 최종소비자의 소비지출은 생산자평가액 기준으로 식용농수산물 13조 5,713억원, 소재식품 9조 9,206억원, 가공식품 29조 9,072억원, 외식 61조 7,827억원 등 모두 115조 1,818억원에 이르고 있다.

생산자평가액 기준 식용농수산물의 최종소비지출 구조를 보면 농산물 9조 9,569억원, 축산물 1조 704억원, 임산물 2,708억원, 수산물 2조 2,732억원으로 나타났다. 소재식품의 경우에는 정미, 정맥, 제분, 제당이 5조 2,481억원 그리고 도축, 도계가 4조 6,725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1-5> 푸드시스템에서의 부문별 최종소비지출(2007년)

단위: 억원

항 목	생산자평가액
식품 및 외식소비 계	1,151,818
농수산물	135,713
농산물	99,569
축산물	10,704
임산물	2,708
수산물	22,732
소제식품	99,206
정마·정맥·제분·제당	52,481
도축·도계	46,725
가공식품	299,072
농림산가공품	138,030
축산가공품	49,096
수산가공품	37,515
알코올음료	48,459
비알콜음료	25,972
외식	617,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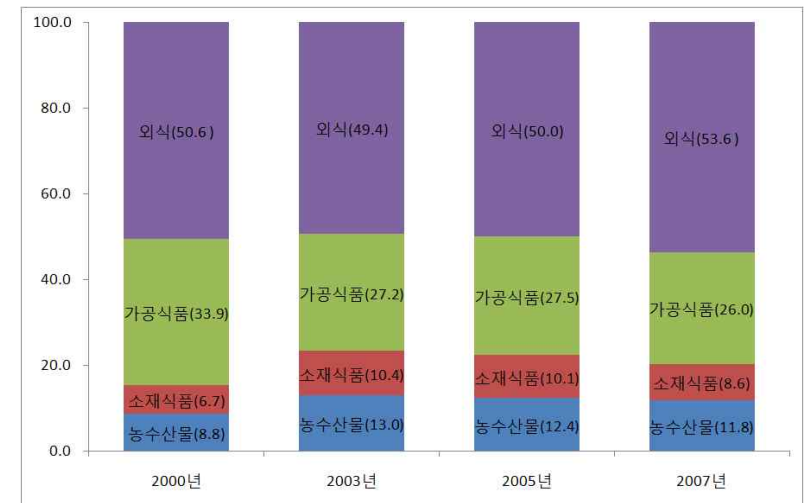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07년 산업연관표」, 2009

가공식품은 농림산가공품이 총 13조 8,030억원으로 4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축산가공품이 4조 9,096억원(16.4%), 수산가공품 3조 7,515억원(12.5%), 알코올음료 4조 8,459억원(16.2%), 비알콜음료 2조 5,972억원(8.7%) 등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생산자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00~'07년 동안의 식품형태별 최종소비지출 구성비 변화를 보면 외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0.6%에서 2003년 49.4%, 2005년에는 50.0%, 2007년 53.6%로 꾸준히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33.9%를 차지하던 가공식품부문은 외식부문의 비중의 확대로 2003년에는 27.2%까지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27.5%로 약간 상승을 보였으나 2007년 26.0%로 재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0년 6.7%에 불과하던 소제식품은 2003년 10.4%까지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10.1%, 2007년 8.6%로 최종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신선원료농수산물채로 소비되는 농수산물의 비중은 2000년 8.8%에서 2003년에는 13.0%까지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는 12.4%, 2007년 11.8%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 식품형태별 최종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



음식료품제조업의 원료농산물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당해 연도 국내에서 생산

된 식용농수산물 생산액 40조 5,060억원 중에서 51.1%인 20조 6,861억원의 농수산물이 식품산업의 가공원료로 이용되었다. 이 중에서 도정·제분 또는 도축·도계, 제당 등 식품소재산업의 가공원료로 14조 6,446억원이 이용되었고¹⁾ 육가공, 유가공을 비롯한 채소 및 과일가공, 수산가공 등 식품가공산업의 가공원료로 6조 415억원의 농수산물이 이용되었다.²⁾

<표 1-6> 음식료품제조업의 원료 농수산물 이용비율(2007년 경상가격)

단위: 억원, %

품 목	식품소재(A)		식품가공(B)		합계(A+B)		산출액 및 수입액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국 내 생 산	농수산물	146,446	36.2	60,415	14.9	206,861	51.1	405,060
	농산물	74,017	33.0	20,195	9.0	94,212	42.1	224,002
	축산물	72,429	62.4	16,515	14.2	88,944	76.7	115,995
	임산물	-	-	587	7.8	2,543	33.7	7,538
	수산물	-	-	21,161	36.8	21,161	36.8	57,526
수 입	농수산물	5,752	10.0	13,391	23.4	19,143	33.4	57,260
	농산물	5,739	12.7	11,427	25.4	17,166	38.1	45,030
	축산물	13	0.6	3	0.1	17	0.7	2,247
	임산물	-	-	458	40.9	458	40.9	1,120
	수산물	-	-	1,503	17.0	1,503	17.0	8,862
계	농수산물	152,198	32.9	73,806	16.0	226,004	48.9	462,320
	농산물	79,756	29.6	31,623	11.8	111,378	41.4	269,032
	축산물	72,442	61.3	16,519	14.0	88,961	75.2	118,242
	임산물	-	-	1,045	12.1	3,001	34.7	8,658
	수산물	-	-	22,663	34.1	22,663	34.1	66,388

자료: 한국은행, 「2007년 산업연관표」, 2009

주: 1) 비율은 총산출액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2) 반올림으로 개별 항목의 합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식품소재산업은 음식료품제조업 중 도축, 도계, 도정, 제분, 제당을 포함하며, 나머지는 모두 식품가공산업으로 분류

2) 식품소재산업 생산물로서 음식료품제조업의 원료로 이용된 것은 포함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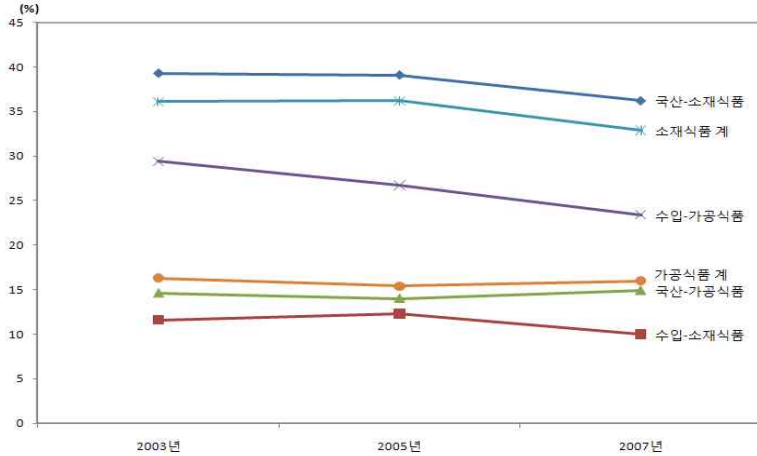
농산물의 경우 총생산액의 42.1%에 해당하는 9조 4,212억원이 식품소재 및 식품가공산업으로 투입되었으며, 축산물은 생산액 11조 5,995억원의 76.7%에 달하는 8조 8,944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도축부문에 투입된 것으로 양돈이 3조 2,901억원, 한육우가 2조 5,763억원이 투입되었다. 임산물은 총생산액 7,538억원의 33.7%가, 수산물은 총생산액의 36.8%가 투입되었다.

음식료품제조업의 수입 원료농수산물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수입된 식용농수산물 5조 7,260억원 중에서 33.4%인 1조 9,143억원의 농수산물이 음식료품제조업의 가공원료로 이용되었는데 식품소재산업에 30.0%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식품가공산업에 이용되었다. 식품소재산업의 가공원료로 투입된 5,752억원 중에서는 제분원료로 사용된 밀이 84.7%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소재 및 가공산업에 투입된 수입 농수산물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 총 수입액의 38.1%가 이용되었는데 식품소재산업에 5,739억원 그리고 식품가공산업에 1조 1,427억원이 투입되었다. 수입 축산물은 대부분이 직접 소비되어 식품소재산업 및 식품가공산업에 이용된 것은 전체의 0.7%인 17억원에 불과하였다. 수입 임산물은 식품가공산업으로만 458억원이 투입되어 임산물 총 수입액 1,120억원의 40.9%를 차지하였고, 수입 수산물은 17.0%가 식품가공산업으로만 투입되었다.

한편 '03~'07년 동안 국내에 공급된 농수산물이 음식료품제조업의 원료로 이용된 비율은 2003년 52.4%에서 2005년 51.6%, 2007년 48.9%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그 동안 소재식품 생산에 이용된 비율이 36.1%에서 32.9%로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수입 원료농수산물 중 소재식품 생산에 이용된 비율은 12%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국내산 원료 농산물 중 소재식품 생산에 이용된 비율은 미곡생산의 감소로 39.3%에서 36.2%까지 꾸준히 감소한데 기인한다. 반면 국내에 공급된 농수산물 중 가공식품 생산에 이용된 비율은 16%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그림 1-5> 음식료품제조업의 원료 농수산물 이용비율 변화 추이(2003-2007)



음식료품제조업의 농수산물 및 반가공품 원료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국내 공급된 농산물 및 반가공품 중 32조 9,911억원이 음식료품제조업의 가공원료로 이용되었으며 원산지별로는 국내산이 27조 5,833억원으로 83.6%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산은 5조 4,078억원으로 16.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원료 중에서 농수산물이 22조 6,004억원으로 68.5%를 차지하며 나머지 31.5%인 10조 3,908억원이 중간재로 사용되는 반가공품이다.

식품소재부문에 이용된 가공원료는 15조 6,196억원으로 음식료품제조업 가공원료 이용액의 47.3%를 차지하는데 원산지별로는 국내산이 14조 6,536억원(93.8%), 수입산이 9,660억원(6.2%)로 구성된다. 식품가공부문에서는 17조 3,71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수입산이 25.6%이고 나머지 74.4%는 국내산이다. 원재료 형태별로는 농수산물이 42.5% 그리고 반가공품이 57.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가공품의 31.1%는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다.

<표 1-7> 음식료품제조업의 농수산물 및 반가공품 이용실적(2007년)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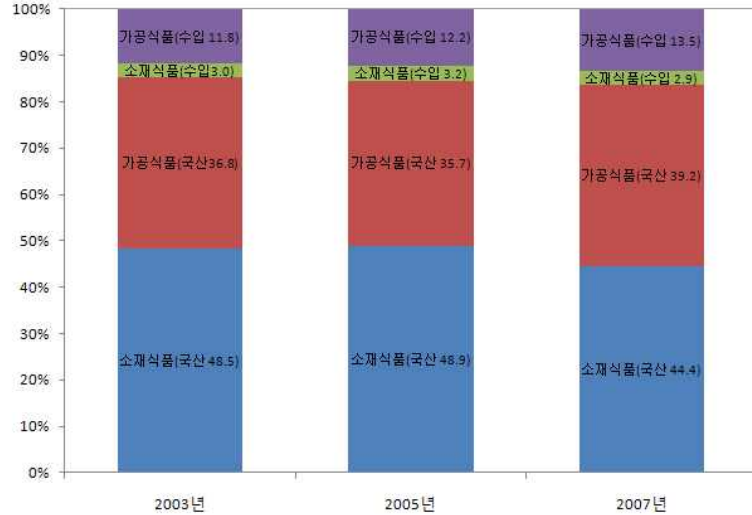
구분	국내산이용실적(A)		수입산이용실적(B)		총이용실적(A+B)	
	이용액	비율	이용액	비율		
농수산물	음식료품제조업 전체	206,861	91.5	19,143	8.5	226,004
	소제식품	146,446	96.2	5,752	3.8	152,198
	축산소재	72,429	100.0	13	0.0	72,442
	농산소재	74,017	92.8	5,739	7.2	79,756
	가공식품	60,415	81.9	13,391	18.1	73,806
	축산가공	14,990	99.8	25	0.2	15,015
	수산가공	20,874	93.4	1,486	6.6	22,360
	농림산가공	23,559	67.3	11,423	32.7	34,982
	알코올음료	610	76.1	191	23.9	801
	비알콜음료	382	59.0	265	41.0	647
반가공품	음식료품제조업 전체	68,973	66.4	34,935	33.6	103,908
	소제식품	90	2.3	3,908	97.7	3,998
	축산소재	-	-	-	-	-
	농산소재	90	2.3	3,908	97.7	3,998
	가공식품	68,882	68.9	31,028	31.1	99,910
	축산가공	9,593	58.2	6,891	41.8	16,483
	수산가공	4,678	53.9	4,003	46.1	8,681
	농림산가공	42,851	75.4	13,960	24.6	56,811
알코올음료	6,504	70.5	2,719	29.5	9,223	
비알콜음료	5,257	60.3	3,454	39.7	8,711	
계	음식료품제조업 전체	275,833	83.6	54,078	16.4	329,911
	소제식품	146,536	93.8	9,660	6.2	156,196
	축산소재	72,429	100.0	13	0.0	72,442
	농산소재	74,107	88.5	9,646	11.5	83,754
	가공식품	129,297	74.4	44,419	25.6	173,716
	축산가공	24,583	78.0	6,916	22.0	31,498
	수산가공	25,552	82.3	5,490	17.7	31,041
	농림산가공	66,409	72.3	25,383	27.7	91,793
알코올음료	7,114	71.0	2,910	29.0	10,025	
비알콜음료	5,639	60.3	3,719	39.7	9,358	

자료: 한국은행, 「2007년 산업연관표」, 2009

주: 반가공품은 소제식품이나 가공식품이 소제식품이나 가공식품의 원료로 이용된 것을 의미함

식품가공부문 내에서는 농림산가공 부문이 9조 1,793억원으로 전체 원재료 소비량의 52.8%로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고 축산가공품 생산에 18.1%, 수산가공품 생산에 17.9%, 그리고 나머지 11.2%는 음료제품의 생산에 투입되고 있다. 원산지별로 보면 축산가공식품의 국산 이용은 78.0%이고 수산가공식품은 82.3%, 농림산가공식품은 72.3%로 나타났다. 그리고 알코올음료의 생산에는 29.0%의 수입산 원료를 비알코올음료 제품 생산에는 39.7%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음료제품제조업 부문별 농수산물 및 반가공품 이용비율 변화추이 (2003-2007)



또한 원료 농수산물 및 반가공품의 음료제품제조업 부문별 이용 구성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소제식품제조업의 경우 국산과 수입을 포함하여 2005년 52.0%에서 2007년 47.3%로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48.0%에서 52.7%로 증가하여 음료제품제조업부문에 우회생산이 증가하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원산지별로는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84.6%에서 2007년 83.6%로 계속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15.4%에서 16.4%로 증가하여 가공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식산업에서의 식재료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농수산물 및 소제·가공식품의 총 국내공급 118조 6,424억원 중 20.2%인 23조 9,640억원이 외식산업에서 소비되었는데 원산지별로는 국내산 원료가 21조 575억원으로 87.9%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 원료는 2조 9,065억원으로 12.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농수산물의 소비가 4조 3,552억원으로 외식산업 식재료 소비의 1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입산은 11.9%, 5,199억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제식품 소비는 7조 9,576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원산지별로는 국내산이 6조 9,163억원(86.9%), 수입산이 1조 4,133억원(13.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공식품 소비는 11조 6,51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원산지별로는 국내산이 10조 3,060억원(88.5%), 수입산이 1조 3,453억원(11.5%)을 차지하고 있다.

외식산업 식재료 이용실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신선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7.4%에서 2007년 18.2%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볼 때, 국산 농수산물은 2005년 15.2%에서 2007년 16.0%로 증가하였으나, 수입 농수산물은 2.2%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소제식품은 2005년 36.6%에서 2007년 33.2%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볼 경우 같은 기간 수입 소제식품은 4.4%에서 4.3%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국산 소제식품은 32.2%에서 28.9%로 3.3% 포인트 감소하였다.

<표 1-8> 외식산업 식재료 투입구조(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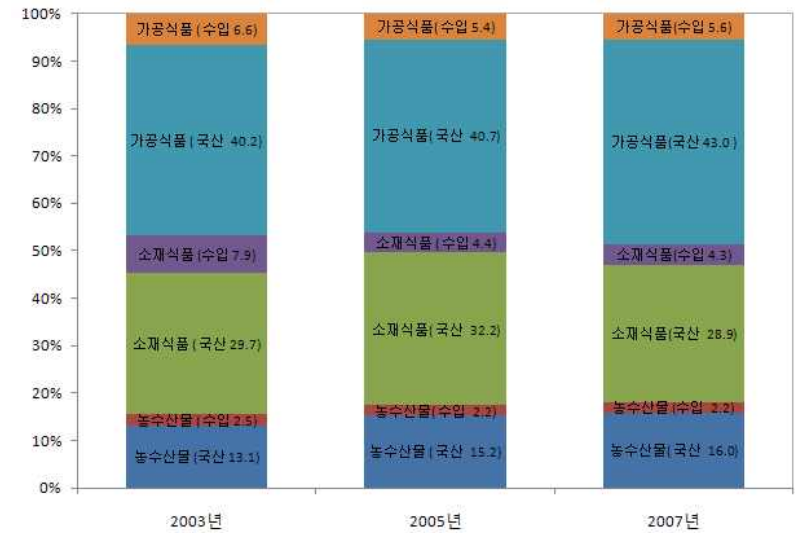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 분	국 산		수 입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농산물 및 식품	210,575	87.9	29,065	12.1	239,640
농수산물	38,353	88.1	5,199	11.9	43,552
농 산 물	21,754	93.2	1,593	6.8	23,347
축 산 물	3,411	99.6	15	0.4	3,426
임 산 물	1,520	96.5	54	3.5	1,575
수 산 물	11,668	76.7	3,537	23.3	15,204
소재 및 가공식품	172,223	87.8	23,866	12.2	196,088
소재식품	69,163	86.9	10,413	13.1	79,576
축산소재식품	38,859	79.4	10,065	20.6	48,925
농산소재식품	30,303	98.9	348	1.1	30,651
가공식품	103,060	88.5	13,453	11.5	116,513
축산가공품	16,791	94.8	917	5.2	17,709
수산가공품	13,211	69.2	5,877	30.8	19,088
농림산가공품	36,766	92.9	2,806	7.1	39,573
알코올음료	23,672	86.3	3,745	13.7	27,417
비알콜음료					12,726

자료: 한국은행, 「2007년 산업연관표」, 2009

또한 가공식품은 2005년 46.1%에서 2007년 48.6%로 비중이 높아졌는데,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산 가공식품이 같은 기간 40.7%에서 43.0%로 증가하였고 수입 가공식품도 5.4%에서 5.6%로 증가하였지만 국산과 수입을 포함한 가공식품에서의 수입식재료 비중은 감소하였다.

<그림 1-7> 외식산업 식재료 원료 부문별 이용 비율 변화추이(2003-2007)



II. 국내 식품산업 동향

1. 음식료품제조업³⁾

가. 생산/출하 동향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은 47조 3천억원으로 이 중 식료품이 83%인 39조 3천억원이고 음료가 17%인 8조 1천억원이며 부가가치는 식료품이 75.4%인 14조 1천억원이고 음료가 24.6%인 4조 6천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은 '01년 32조 1천억원에서 '08년에는 47조 3천억원으로 연평균 5.7%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는 '01년 13조 8천억원에서 '08년 18조 7천억원으로 연평균 4.5%의 증가세를 보여 출하액 증가에 비해 부가가치는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식료품제조업을 식료품과 음료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식료품의 경우 출하액은 '01년 26조 2천억원에서 '08년 39조 3천억원으로 연평균 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음료는 같은 기간 연평균 4.6%의 증가세를 보여 식료품 출하액 증가율이 음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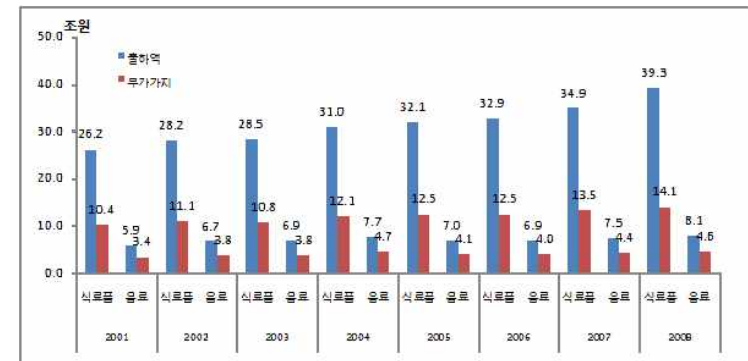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의 경우 식료품은 '01년 10조 4천억원에서 '08년 14조 1천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하였고 음료는 '01년 3조 4천억원에서 '08년 4조 6천억원으로 연평균 4.5%의 증가세를 보여 부가가치 측면에서 식료품과 음료의 성장추이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는 '01년 42.9%에서 '08년 39.5%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식료품과 음료로 구분하여 보면 식료품의 부가가치율은 '01년 39.6%에서 '08년 35.8%, 음료의 부가가치율은 '01년 57.8%에서 '08년 57.7%로 하락하였으나 식료품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본 분석에서는 사료제조업 미포함

전반적으로 식료품과 음료 모두 생산이 증가하는 장기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01~'08년 기간 동안의 성장패턴을 보면 경기변동에 민감한 음료산업의 경우 '01~'04년 동안 연평균 11.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05년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06년에는 전년대비 1.5% 감소하였고 '06년에도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으나 '08년에 들어서면서 회복세를 보여 '05~'08년 동안 연평균 4.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림 1-8>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 및 부가가치 성장 추이



자료: 통계청(www.kosis.kr), 「광업·제조업조사」

1) 육가공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의 음식료품제조업 업종별 출하동향을 보면 먼저 육가공산업의 경우 '08년도 출하액은 7조 3,460억원이며 그 중에서 도축업이 50.1%를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포장육을 포함한 육가공품 시장이다. 육가공품 중 닭, 오리 등 각종 가금육을 이용한 통조림, 훈제품 및 포장육 제품 출하액이 4,477억원으로 육가공품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년 12.0%에서 '08년 12.2%로

늘어나고 있다. 가공육을 이용한 육가공품 이외의 육지동물을 이용한 햄, 소시지, 통조림 등의 육가공제품의 출하액은 3조 2,174억원으로 육가공품 시장의 87.8%에 달하는 규모로 나타났으나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국내 육가공제품 생산은 햄의 경우 전년 대비 10.6% 감소한 52,070톤으로 나타났으며 혼합소시지도 17.1% 감소한 24,804톤으로 나타난 반면 소시지는 8.8% 성장한 50,267톤, 베이컨은 34.8% 성장한 4,316톤, 캔 제품은 11.2% 성장한 31,470톤으로 육가공품 시장이 캔제품과 소시지 성장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육가공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인 아질산염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대되어 소비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급원료를 사용한 수제햄이나 흑마늘이나 흑임자와 같은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고급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육가공

'08년도 육가공산업의 출하액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5조 8,503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생산량은 약 223만톤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구성비를 보면 시유와 발효유가 각각 39.6%와 20.4%로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치즈 7.7%, 분유 6.0%, 버터 3.9%, 연유 0.2%, 아이스크림 및 식용빙과류 22.2%로 나타나고 있다. 빙과는 제과산업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빙그레, 매일 등 육가공업체들의 아이스크림 및 빙과 생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업종 분류에서는 육가공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육가공산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시유의 생산은 '03년 이후 소비 감소추세로 인해 '07년도까지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08년에는 백색시유 소비는 줄어들었으나 가공시유 소비가 4.8%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유생산량은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다. 시유와 달리 웰빙 문화 확산으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였던 발효유는 호상발효유는 조금 증가하였으나 액상발효유가 감소하면서 전체 생산량은 약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즈 소비는 '08년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가격인상 등으로 인하여 소비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입치즈의 가격이 하락하고 환율이 안정되는 등의 요인과 포화상태인 우유시장의 활로를 최근 성장하고 있는 치즈시장에서 찾으려는 업체들의 신제품개발과 품질개선을 통한 수요확대로 인하여 향후 치즈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제분유는 출산율의 감소와 모유수유의 증가로 인해 소비가 감소추세이나 전년도 사카자키균에 관한 언론보도로 격감하였던 소비가 회복되면서 생산량과 소비가 각각 6.8%, 2.8% 증가하였다. 아이스크림은 전년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빙과는 전년 대비 62.2%의 급성장을 기록하였다. '08년에 급성장한 이유는 마른 장마 등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판매량이 늘었고 웰빙 트렌드에 맞춘 원료고급화 등으로 소매가격이 인상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3) 과채가공

종업원 10인 이상 과실 및 채소가공업체들의 출하액은 1조 8,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채가공산업에서 단일품목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김치와 단무지는 '08년 기준 전체 출하액의 44.7%와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01년 이후 각각 연평균 8.0%, 11.4%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채소가공품의 출하액은 2,040억원으로 전체 출하액의 11.4%로 높은 편이며 건조채소의 출하액이 1,170억원으로 전체 출하액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잼과 젤리통조림의 출하액이 1,049억원으로 5.9%의 비중을 차지하여 비교적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 외 생산품목으로는 과실통조림, 과실주스, 채소주스, 냉동과실, 채소통조림, 견과가공품 등이 있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가정에서 자가 제조한 김치를 제외한 국내 김치시장은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판김치의 수요 증대로 인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시판되는 김치

의 경우 판매량 기준 공장김치의 비율이 60.8%, 수입김치 32.7%, 즉석 제조김치 6.5%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중국산 김치의 수입은 '03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04년 72.6천톤, '05년 111.5천톤, '08년 222.4천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08년도 우리 나라의 김치 수출은 26.9천톤으로 순수입이 195.5천톤에 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의 시판김치 구입패턴이 핵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포기김치 보다는 소포장 김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곡물가공

곡물가공산업의 주요 생산품은 곡물도정, 밀가루, 전분, 전분당 그리고 선식파시리얼 등의 곡물가공품으로 구성되는데 쌀 도정이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도정 다음으로 비중이 큰 제분 출하액은 '08년 1조 2,716억원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분과 전분당은 8,014억원으로 1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출하액은 전년 대비 4.4% 성장한 1,49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건강 및 다이어트식으로 소비되고 있는 선식류는 전년 대비 2.8% 성장한 1,176억원으로 나타났다.

밀가루 소비는 2000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그 후 연간 소비량이 170만톤 내외에서 거의 정체되어 있다가 '07년도 이후에는 국제소맥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생산이 166만톤에서 155만톤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의 원료로 옥수수, 감자, 고구마, 타피오카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옥수수 전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옥수수전분의 생산량은 '08년 274천톤으로 전년대비 18.7% 감소하였다. 전분당은 물엿과 과당, 포도당이 각각 58.5%, 29.5%, 1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엿은 제과, 제빵업체의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1.7% 감소하였으며 포도당은 저가의 중국산 수입 증가 등으로 생산이 23.1%나 급감하였으며 과당 생산량도 청량음료회사들의 설탕 대체로 인하여 전년 대비 54.1%나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빵·과자류

국내 제빵시장 규모를 업계 추정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08년 제빵업계의 매출은 샤니, 삼립, 기린, 서울의 양산 4사 6,092억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1조 1,871억원, 그리고 베이커리 2조 1,000억원으로 할인점의 인스턴트 베이커리를 제외하고도 총 3조 8,9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한편 '08년도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한 의하면 빵류제조업 출하액은 약 1조 3,833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종업원 10인 미만의 베이커리 업체들은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한 업계 추정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빵업계는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와 할인점 인스턴트 베이커리에 의해 소규모 자영업베이커리 업체와 양산업체의 시장이 계속 잠식되어 왔으며 특히 소규모 자영업체의 매출은 매년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베이커리와 경쟁하기 위해 최근 양산업체는 편의점 전용 브랜드 제품과 고급베이커리 수준의 제품 개발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게 되면서 매출이 '07년 11.7% 성장한데 이어 '08년에도 12.9%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4사의 매출은 전년대비 23.4%의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크라운베이커리와 신라명과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크라운베이커리의 시장점유율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기준 시장점유율을 보면 파리바게뜨 66.0%, 뚜레쥬르 23.2%, 크라운베이커리 7.2%, 그리고 신라명과가 3.9% 순이다.

최근의 제빵업계 특징을 보면 수입 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우리 밀을 사용한 제품 출시가 확대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름에 튀기지 않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웰빙 트렌드에 부합되게 만든 샌드위치 시장 확대를 들 수 있다. 또한 디저트의 개념을 간단히 먹는 가벼운 식사로 바꾸면서 젊은 여성들이나 직장인을 겨냥한 디저트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디

4) 양산 4사는 샤니, 삼립, 기린, 서울식품을 포함하며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크라운베이커리, 신라명과임.

저트전문집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08년도 과자류의 전체 생산은 약 2조 8,219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스낵류 시장이 1조 563억원으로 과자류 시장의 37.4%, 초코릿류가 6,537억원으로 23.2%, 캔디류가 4,229억원으로 15.0%, 껌이 3,048억원으로 10.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침체, 중국에서 촉발된 멜라민 파동과 더불어 각종 이물질 사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건과시장은 전년 대비 5% 성장하였으며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과자 매출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류 시장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 해태, 오리온, 크라운 등 소위 건과 4사의 매출실적을 보면 과이가 6%, 캔디가 8%의 성장을 하였고 비스킷은 우리 쌀을 원료로 사용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면서 10%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스낵류는 장수식품들의 선전으로 16%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반면 초콜릿은 유사제품들의 범람으로 인한 물량공급이 확대되면서 업체간 출혈경쟁을 낳는 등 내부적 요인으로 전년 대비 13%의 감소를 보였으며 껌은 약 5% 감소하였다.

6) 면류

면류 제품은 라면을 비롯하여 국수, 냉면, 당면, 스파게티, 마카로니, 기타 인스턴트 면류로 구성되는데 라면제품시장이 1조 4,436억원으로 전체 면류제품 시장의 7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량면에서 '07년에 비해 큰 차이는 없었지만 고가제품 판매의 호조로 인하여 '08년도 라면시장은 전년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도 라면시장의 특징을 보면 용기면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경향에 따라 고품질·고가격대의 프리미엄급 라면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류나 기능성성분을 첨가한 라면, 천연소재의 첨가물을 사용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하게 이루지는 양상이다.

7) 식용유지

국제곡물가격과 달러 및 엔화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가상승을 유발시키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용유지는 대두박 생산액 3,071억원을 포함할 경우 전년 대비 13.7% 상승한 1조 8,525억원으로 나타났다. '08년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대두유가 3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옥수수유 8.2%, 참기름 7.1%, 마아가린 5.6%, 쇼트닝 5.0%, 올리브유 2.2% 등의 순이다.

대두유는 그 동안 소비자들의 웰빙 추구 경향에 따라 식용유 소비패턴이 고급유인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등으로 전환되면서 소비가 줄어들었으나 '08년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저렴한 식용유지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으로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판매가격 상승으로 매출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유는 바이오에탄올 원료로 옥수수가 이용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이 급등하고 GMO옥수수 안전성에 대한 논란 등이 일면서 원료수급상의 문제로 생산량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통식용유인 참기름 시장은 2000년 이후 1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가린과 쇼트닝 시장은 쇼트닝 주 사용처인 제과시장이 조금씩 위축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03년 이후 급성장하였던 올리브유의 소비는 저급 올리브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의 여파로 '06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그 시장을 포도씨유가 차지하고 있다. 올리브유를 대체하여 포도씨유의 항산화 효과를 지닌 카테킨 등 건강기능성이 알려지면서 소비가 증가하였고 포도씨유의 수입은 '01년 679톤, '03년 1,066톤, 05년 7,797톤, 08년 19,305톤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8) 조미료/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생산품은 조미료, 식초, 장류, 양념소스, 즉석카레, 토마토

케첩, 마요네즈, 드레싱류, 향신료 등을 포함하는데 '08년 출하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2조 9,642억원으로 나타났다. MSG를 기저로 한 종합조미료 시장은 소비자들의 천연조미료 지향과 외식의 확대에 따른 가정소비의 감소로 업소용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천연조미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초시장은 소비자의 웰빙추구 추세와 맞물려 식초의 건강성을 강조한 흑초, 감식초 등 식초 베이스의 음료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식초시장이 성장하였으며 특히 저산도의 고급식초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체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미추면에서는 사과식초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레 원료인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이 항암, 치매예방,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즉석 카레의 판매가 '07년에는 전년 대비 67.1%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08년에는 3.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토케첩은 향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생토마토보다 가공된 상태에서 흡수율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생산량과 판매액이 각각 5.2%, 14.4% 증가하였다. 조미식품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소스류와 드레싱은 서구식 식품소비가 늘면서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드레싱은 전년대비 6.2% 감소하였으며 소스류는 전년대비 1.3%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간장 생산액은 전년 대비 24.4% 증가한 약 2,399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산분해간장이나 혼합간장의 소비가 감소하고 맛과 건강을 고려한 양조간장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업계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해 양조간장의 소비가 크게 확대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양조간장의 판매비중이 감소하고 다시 혼합간장의 판매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정에서 담가 먹는 조선간장의 판매 비중도 전년 대비 0.3% 줄어들었다.

고추장은 초고추장에서부터 찌개용, 비빔밥용, 비빔면용, 떡볶이용 등 용도별 제품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8년 생산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882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고추장 시장이 정체 내지는 감소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업체에서는 참쌀고추장, 보리고추장, 유기농고추장, 볶음고추장과 매운맛을 달리한 고추장 등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는 등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된장 생산은 품질개선 및 품목 다양화에 힘입어 공장용 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4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 콩으로 만든 고급된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생활스타일 변화에 대응한 찌개전용 된장, 양념쌈장 등 편의성을 높인 제품들이 동시에 출시되면서 지금까지는 전체 소비에서 시판제품의 비중이 낮아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 밖에 분말된장, 분말청국장, 청국장환, 레토르트형 된장 등 된장을 베이스로 한 제품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9) 기타식료품

기타식료품제조업에는 커피와 차류, 수프류, 두부, 인삼제품, 조리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포함되는데 '08년 출하액은 5조 590억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커피 시장의 특징은 커피믹스로 통할 만큼 인스턴트, 커피음료 및 원두커피에 대한 수요가 커피믹스로 전이되는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08년 들어서면서 '07년 농약 과용으로 인한 녹차의 소비감소와 커피음료, 비중은 작지만 원두커피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08년도 커피 시장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8,14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음료로 가공된 캔류의 차제품을 제외한 '08년도 추출차류의 출하액은 2,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재인 커피와 캔류 차제품의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옥수수수염차, 둥글레차, 국화차, 허브차 등 대용차 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기타 차류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10) 비알콜음료

음료제품은 탄산음료, 과일주스, 두유, 커피음료, 차음료, 기능성 음료 및 생수 등 제품구성이 다양한데 출하액 기준 '08년 시장규모는 3조 4,872억원으로 '07년에 비해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시장은 최근의 경기침체 및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음료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정체 내지는 소폭 성장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일주스의 생산과 소비는 IMF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자들의 건강 지향적 음료소비로 인해 프리미엄급 주스시장이 회복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04년에는 약 1조원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었으나 그 후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여 '08년도 매출액은 약 8,100억원을 기록하였다.

2004~200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던 두유는 최근 병음료의 선전으로 인하여 '08년 매출이 5% 이상 신장하여 2,7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비자들의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이 지속되면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커피음료 시장은 2005~2006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다가 '07년 원두커피 음료 출시와 고급 컵커피의 매출 신장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으며 그 후 페트커피가 등장하면서 '08년 커피음료 시장규모는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음료는 레저활동 증가로 인한 스포츠음료와 건강 중시 경향과 관련이 깊은 섬유음료, 인삼음료 및 곡물음료 등이 신장세를 보였다.

'08년 생수시장은 소비자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먹는 물에 대해서도 안전한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0.5% 성장한 약 2,993억원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1) 알코올음료

'08년도 주류시장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고가 주류의 소비가 주춤한 반면 주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주와 맥주의 소비가 소폭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4% 상승한 약 327만kl를 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탁주는 최근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탁주업체의 품질개선과 프랜차이즈를 통한 마케팅, 유산균 함량이 많아 다이어트 및 웰빙식품으로도 좋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소비가 늘어 '08년에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약 176만kl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분자술과 매실주로 대표되는 과일주는 출고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한 18,544kl로 나타났는데 주류회사들이 리큐르 대신 주세가 낮은 과일주로 주종을 변경하고 진로와 두산이 복분자술 시장에 진입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위스키는 전년 대비 32.3% 감소한 8,216kl, 리큐르는 15.0% 감소한 2,057kl, 청주는 2.7% 감소한 22,276kl를 출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스키의 출고량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최근의 주류소비 행태로 볼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의한 '08년도 주류시장 규모는 출하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한 약 4조 6천억원 규모이며 맥주시장이 약 1조 9천억원, 소주시장이 약 1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3%와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산업구조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의 부문별 출하액 비중을 보면 육가공부문이 1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가공 부문 12.4%, 기타식료품 부문 10.7%, 알코올음료 부문 9.7%, 떡·빵·과자류 9.4%, 곡물가공 9.0%, 비알콜음료 부문 7.4%, 수산가공 부문 6.5%, 조미료/식품첨가물 부문 6.3%, 식용유지 부문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성장 추이를 보면 식용유지와 과채가공 부문이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식용유지의 경우 '05년 이후 연평균 약 2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스턴트 식품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식용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대두유 조유 수입을 통한 정제유 가공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유소비가 부진하면서 유가공 부문은 출하액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면류 부문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05년 이후는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면서 출하액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 추이

단위: 십억원, %

	2001		2003		2005		200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육가공	4,044	12.6	4,369	12.3	5,830	14.9	7,346	15.5
수산가공	2,586	8.1	2,570	7.2	2,598	6.7	3,073	6.5
과채가공	895	2.8	1,281	3.6	1,340	3.4	1,836	3.9
식용유지	1,177	3.7	1,354	3.8	1,201	3.1	2,460	5.2
유가공	4,432	13.8	4,463	12.6	5,578	14.3	5,850	12.4
곡물가공	2,556	8.0	3,054	8.6	3,107	8.0	4,268	9.0
떡·빵·과자류	3,105	9.7	3,563	10.0	3,784	9.7	4,426	9.4
면류	1,592	5.0	1,794	5.1	1,872	4.8	1,979	4.2
조미료/첨가물	2,272	7.1	2,177	6.1	2,593	6.6	2,964	6.3
기타식료품	3,529	11.0	3,886	11.0	4,155	10.6	5,059	10.7
알코올음료	3,080	9.6	3,742	10.6	3,793	9.7	4,571	9.7
비알콜음료	2,813	8.8	3,206	9.0	3,209	8.2	3,487	7.4
합 계	32,081	100.0	35,459	100.0	39,059	100.0	47,319	100.0

주: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의 업체수 자료임
 자료: 통계청(www.kosis.kr), 「광업·제조업조사」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의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를 보면 식료품이 75.1%, 음료품이 24.9%를 차지하고 있고 식료품 중에서는 유가공 부문이 1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떡·빵·과자류 부문 12.4%, 기타 식료품 부문 11.3%, 육가공 부문 11.2%, 곡물가공 부문 5.7%, 조미료/첨가물 부문 5.5%, 수산

가공 부문 5.3% 순으로 나타났다. 음료품에서는 알코올음료 부문이 15.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알콜음료 부문도 9.8%를 차지하여 생산액 비중에 비해 부가가치 측면에서 음식료품제조업에서의 중요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10>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단위: 십억원, %

	2001		2003		2005		200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육가공	1,232	8.9	1,267	8.6	1,590	9.6	2,087	11.2
수산가공	956	6.9	946	6.4	974	5.9	988	5.3
과채가공	366	2.7	545	3.7	589	3.6	738	3.9
식용유지	327	2.4	334	2.3	302	1.8	523	2.8
유가공	1,652	12.0	1,731	11.8	2,388	14.4	2,416	12.9
곡물가공	756	5.5	808	5.5	1,036	6.2	1,057	5.7
떡·빵·과자류	1,685	12.2	1,990	13.5	2,133	12.9	2,314	12.4
면류	617	4.5	674	4.6	673	4.1	789	4.2
조미료/첨가물	981	7.1	839	5.7	1,094	6.6	1,036	5.5
기타식료품	1,799	13.1	1,707	11.6	1,691	10.2	2,106	11.3
알코올음료	1,921	13.9	2,216	15.1	2,421	14.6	2,818	15.1
비알콜음료	1,483	10.8	1,630	11.1	1,693	10.2	1,829	9.8
합 계	13,775	100	14,688	100	16,584	100	18,702	100

주: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의 업체수 자료임
 자료: 통계청(www.kosis.kr), 「광업·제조업조사」

2001년 이후 부가가치 성장 추이를 보면 육가공 부문이 연평균 7.8%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식용유지 부문이 연평균 7.0%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05년 이후에는 20.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수산가공, 과채가공, 조미료/첨가물 부문은 '01년 이후 1% 미만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조미료/첨가물 부문은 연평균 1.8%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가공 부문과 곡물가공 부문이 1% 미만의 증가세를 보였고 떡·빵·과자류 부문도 2.8% 성장에 그쳤다.

이와 같이 식품첨가물 부문, 떡·빵·과자류 부문이 저성장 내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국제곡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원재료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곡물가공 및 유가공 부문은 생산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11>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율 현황

단위: 십억원, %

	2001	2003	2005	2007	2008
음식료품	42.9	41.4	42.5	42.1	39.5
식료품	39.6	38.0	38.9	38.6	35.8
육가공	30.5	29.0	27.3	30.4	28.4
수산가공	37.0	36.8	37.5	38.9	32.1
과채가공	40.9	42.6	44.0	41.8	40.2
식용유지	27.7	24.7	25.1	28.7	21.3
유가공	36.3	38.8	42.8	45.2	41.3
곡물가공	29.6	26.4	33.3	25.2	24.8
떡·빵·과자류	54.3	55.8	56.4	55.6	52.3
면류	38.7	37.6	35.9	42.8	39.9
조미료/첨가물	43.2	38.5	42.2	33.7	35.0
기타식료품	51.0	43.9	40.7	40.7	41.6
음료품	57.8	55.4	58.8	58.2	57.7
알코올음료	62.4	59.2	63.8	63.8	61.6
비알콜음료	52.7	50.8	52.8	50.6	52.5

주: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의 업체수 자료임
 자료: 통계청(www.kosis.kr), 「광업·제조업조사」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비율을 살펴보면 식료품이 35.8%, 음료품이 57.7%로 음료품이 월등히 높고 전체 음식료품 평균은 39.5%로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 33.8%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01년 이후 음식료품 부가가치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중에서는 떡·빵·과자류 부문이 5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식료품 부문이 41.4%, 유가공 부문 41.3%, 과채가공 부문 40.2%, 면류 부문 39.9%, 조미료/첨가물 부문이 35.0%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율이 높고 식용유지, 곡물가공 및 육가공 부문은 각각 21.3%, 24.8%, 28.4%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부문에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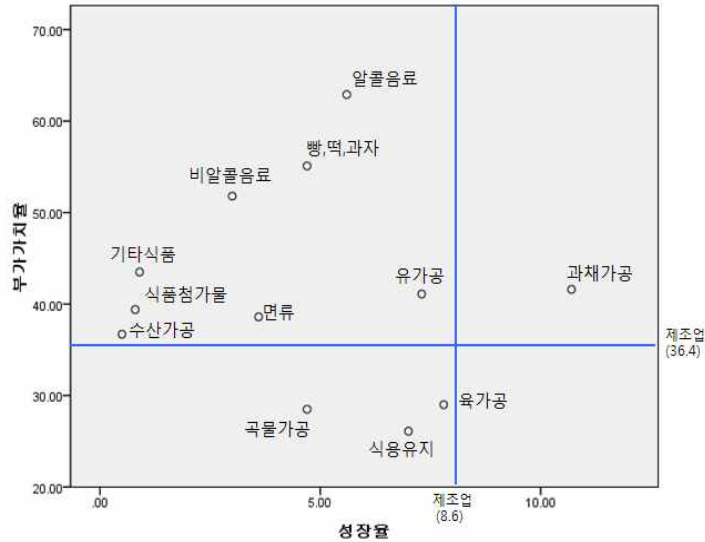
음료품의 부가가치율은 '04년 60.6%로 최고조에 달한 이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08년에는 57.7%를 기록하였고 알코올음료 부문의 부가가치율은 61.6%로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 비알콜음료 부문은 52.5%로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부문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식품산업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부가가치율과 성장률이 높은 산업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9>는 '01~'08년 기간의 음식료품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과 연평균 성장률을 표시한 것으로 비교의 편의상 같은 기간의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 36.4%와 제조업 평균 성장률 8.6%를 경계로 구분하였다.

그림에서 1상한에 속하는 과채가공 부문은 고부가가치, 고성장 산업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알코올음료, 빵·떡·과자류, 비알콜음료, 유가공, 면류, 식품첨가물, 수산가공, 기타식품 부문은 부가가치율은 높으나 성장률이 낮게 나타나 고부가가치, 저성장 산업군으로 그리고 식용유지, 육가공 및 곡물가공 부문은 저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알코올음료의 경우 고부가가치, 저성장 산업군으로 분류되었지만 성장률이 높은 편이며 고부가가치, 고성장 산업군으로 분류한 과채가공의 경우도 실제 부가가치율은 40%대로 비교기준에 따라 산업군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9>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율과 성장률 관계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식료품 부문이 93.3%인 3,586개소이고 음료품 부문이 6.7%인 26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01년과 비교할 때 음식료품 사업체수는 연평균 1.7% 증가하였으나 '07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약 5% 감소하였다. 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수산가공 부문이 2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 15.2%, 과채가공 부문 11.0%, 떡·빵·과자류 부문 10.1%, 조미료/첨가물 부문 7.0%, 곡물가공 부문 6.4%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단위: 개, %

	2001		2003		2005		2008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육가공	414	12.1	454	12.2	512	13.7	585	15.2
수산가공	915	26.8	876	23.6	803	21.5	790	20.5
과채가공	345	10.1	402	10.8	416	11.2	423	11.0
식용유지	58	1.7	62	1.7	52	1.4	65	1.7
유가공	88	2.6	94	2.5	103	2.8	103	2.7
곡물가공	189	5.5	231	6.2	239	6.4	248	6.4
떡·빵·과자류	299	8.8	381	10.2	385	10.3	390	10.1
면류	97	2.8	91	2.4	75	2.0	75	2.0
조미료/첨가물	216	6.3	222	6.0	269	7.2	268	7.0
기타식품	532	15.6	632	17.0	607	16.3	639	16.6
알코올음료	92	2.7	87	2.3	95	2.5	93	2.4
비알콜음료	170	5.0	186	5.0	173	4.6	167	4.3
합 계	3,415	100.0	3,718	100.0	3,729	100.0	3,8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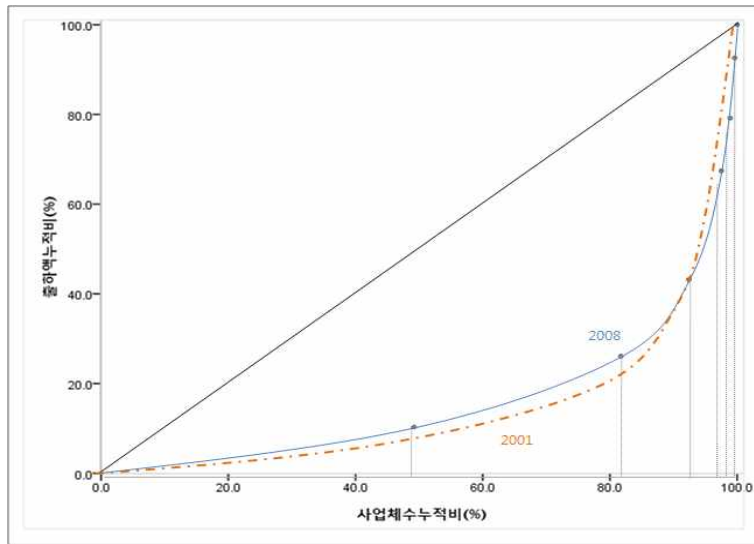
주: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의 업체수 자료임
 자료: 통계청(www.kosis.kr), 「광업·제조업조사」

2005년도 이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증가율을 보면 식용유지 부문이 7.7%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육가공 부문도 4.5%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산가공, 조미료/첨가물, 알코올음료 및 비알콜음료 부문은 사업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가공 부문은 큰 변동이 없다.

음식료품제조업의 규모별 구조를 살펴보면, 종업원 10인 이상 19인 이하의 업체가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체의 49.2%에 달하는데 이들 업체가 음식료품제조업의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3%에 불과하고 또 종업원 10~50인 이하, 종업원

규모에서 하위 81.7%의 식품업체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26.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품료품제조업체의 7.6%에 불과한 종업원 100인 이상인 업체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56.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산업집중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으나 2001년에 비해 중규모업체의 매출액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0> 식품료품제조업 산업집중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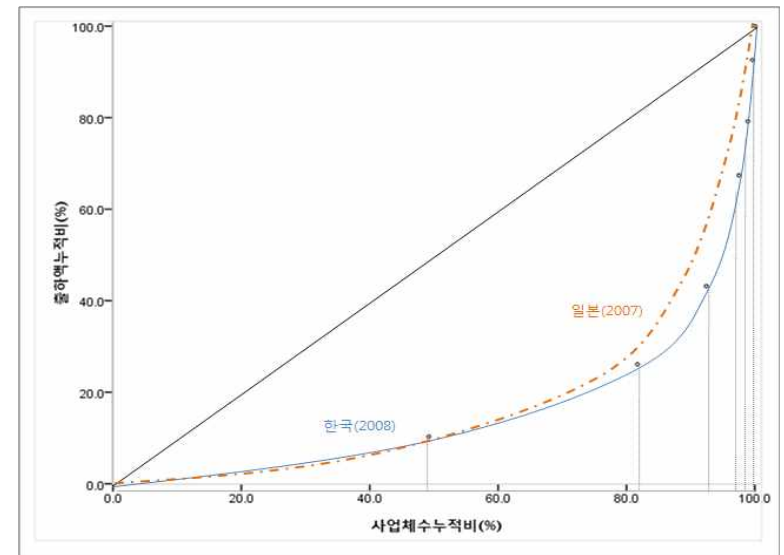


일본의 식품료품제조업과 비교해 보면 2007년도 일본 식품료품제조업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종업원 10인 이상 19인 이하의 업체 구성비는 40.0%, 매출 비중은 5.9%였고 종업원 규모 10~50인 이하 즉 하위 74.5%의 식품업체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1.5%로서 우리 나라 중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업원 100인 이상의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우리나라 보다 높으나 이들 업체들의 매출 비중은 59%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우리 식품료품제조업에 비해 거대 기업으로의 산업집중도는 낮고 여러 중·대기업에 의해 시장이 분산 점유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1> 식품료품제조업 산업집중도 한·일 비교



다. 고용과 임금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153,024명으로 '01년 이후 0.1%, '05년 이후 0.5%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단위: 명, %

	2001		2003		2005		2008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육가공	20,072	13.2	22,483	14.5	23,225	15.4	25,610	16.7
수산가공	31,470	20.7	27,730	17.9	24,447	16.2	22,481	14.7
과채가공	11,306	7.4	13,136	8.5	12,778	8.5	13,484	8.8
식용유지	2,973	2.0	2,658	1.7	2,042	1.4	2,470	1.6
유가공	9,716	6.4	9,892	6.4	10,545	7.0	9,530	6.2
곡물가공	5,791	3.8	6,081	3.9	6,352	4.2	7,198	4.7
떡·빵·과자류	18,637	12.3	20,813	13.4	19,256	12.8	18,776	12.3
면류	7,842	5.2	8,047	5.2	7,358	4.9	6,171	4.0
조미료/첨가물	9,022	5.9	8,151	5.3	9,369	6.2	9,392	6.1
기타식료품	19,272	12.7	22,254	14.3	22,037	14.6	24,964	16.3
알코올음료	6,313	4.2	6,252	4.0	6,608	4.4	6,478	4.2
비알콜음료	9,687	6.4	7,690	5.0	6,776	4.5	6,470	4.2
합계	152,101	100.0	155,187	100.0	150,793	100.0	153,0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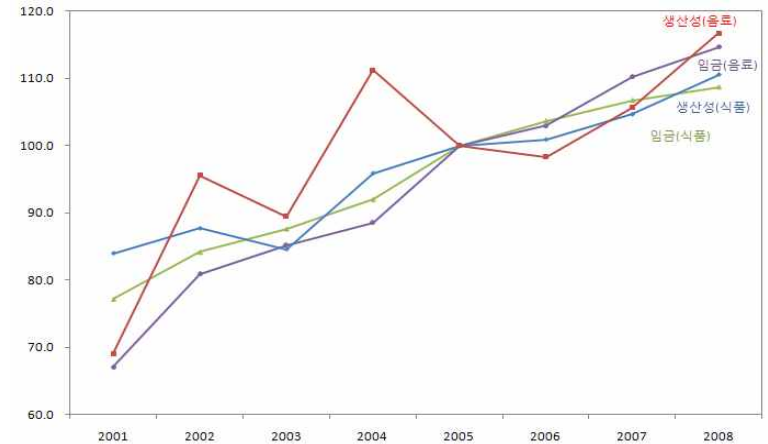
주: 종사자수 10인 이상 규모의 업체수 자료임
 자료: 통계청(www.kosis.kr), 「광업·제조업조사」

부문별 종사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식료품 부문이 전체 고용의 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중에서는 육가공 부문이 16.7%, 기타식료품 부문이 16.3%, 수산가공 부문이 14.7% 순으로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떡·빵·과자류 부문도 12.3%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장비율이 높은 알코올음료와 비알콜음료 부문과 식용유지, 면류, 곡물가공 부문은 출하액이나 부가가치 규모에 비해 고용 인력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를 보면 음식료품제조업 전체 평균은 122.2백만원이나 식료품이 100.3백만원, 음료품이 358.9백만원으로 음료제조업 부문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제조업체 중에서는 설탕제조업이 778.6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가공, 식용유지, 곡물가공, 떡·빵·과자류, 식품첨가물 순이며 이들 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평균 1억원이 넘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재료비의 구성비가 높은 수산가공과 과채가공은 1인당 부가가치가 4천만원 정도로 매우 낮고, 음료의 경우는 주류제조업이 435백만원으로 비알콜음료 산업의 282.8백만원보다 높다.

<그림 1-12> 음식료품제조업 임금 및 노동생산성 변동 추이(2005=100)



자료: 통계청(www.kosis.kr), 「광업·제조업조사」

음식료품제조업 종사자 1인당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식료품 산업의 경우 '01~'08년 기간 동안 31.7% 증가하였는데 비하여 임금은 같은 기간 40.8%로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음료품 산업에서도 노동생산성은 68.7% 증가한 반면 임금은 70.8%나 증가하였다. 특히 식료품제조업에서와 같이 노동생산성 증가를 앞서는 임금상승은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영수지를 압박하고 대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 외식산업

가. 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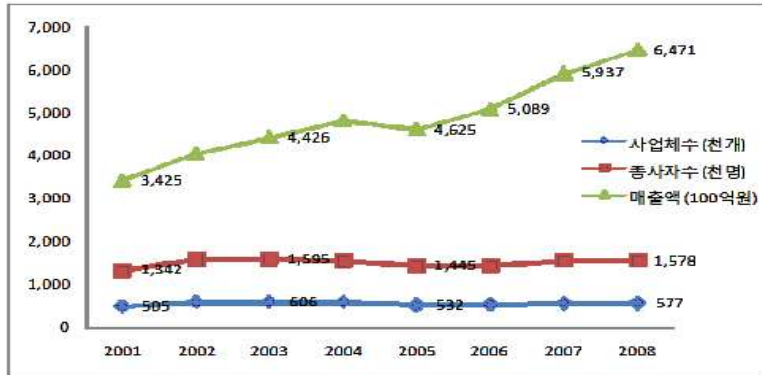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불안해지면서 그 여파가 외식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 음식점 과포화로 인한 출혈경쟁 등 경영악재가 지속되면서 음식점 휴·폐업이 속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외식산업이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으면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가정대용식 시장의 활성화, 핵가족화와 단독가구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경제적, 사회적인 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인 외식시장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년부터 '08년까지 기간 동안 통계청에서 조사한 도시 전가구의 월평균 외식비 지출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가구원 1인당 외식비가 '01년 54.6천원에서 '08년 87.2천원으로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의 외식부문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를 고려하더라도 '01년 이후 7년간 3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외식소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국내 외식시장도 연평균 9.5%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난 '00년 이후부터는 매년 4~6조원씩 증가하여 '04년도 국내 외식시장 규모는 48조원을 기록하였으나 '05년에 들어서면서 경기침체와 실업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외식산업의 매출이 4.4% 감소하였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8년도에는 소비가 다소 회복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한 약 65조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1-13> 외식업 성장 추이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총사업체조사」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수는 '01년 약 134만명에서 '08년 157만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 1억원당 종사자수는 '01년 3.9명에서 '08년 2.4명으로 감소하면서 매출액 증가가 고용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매출액 대비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서비스업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하여 메뉴의 간편화 내지 전문화, 외식프랜차이즈 확대, 주방의 현대화 등을 촉진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당 매출액을 보면 '01년 67.8백만원에서 '08년 112.2백만원으로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출액 대비 종사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업체당 종사자수도 '01년 2.7명에서 '08년도에도 똑같은 2.7명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업체당 영업비용은 '01년 46.7백만원에서 '08년 86.4백만원으로 연평균 9.2% 증가하여 사업체당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영업이익도 '01년 31.2%에서 '08년에는 22.9%로 연평균 4.3%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인건비 및 원재료비 상승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사업체당 매출액 증가율, 사업체당 건물면적, 100㎡당 매출액과 같은 전반적인 경영성과 지표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경영성과가 부진한 한계 사업체의 퇴출 등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4> 외식산업 경영성과 지표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사업체당 매출액(백만원)	67.8	73.1	87.0	93.1	102.8	112.2
- 전년대비 변동률(%)	9.0	7.5	7.9	7.1	10.4	8.5
사업체당 영업비용(백만원)	46.7	54.3	63.2	68.4	76.6	86.4
- 전년대비 변동률(%)	9.6	13.1	3.8	8.1	12.0	12.2
사업체당 종사자수(명)	2.7	2.6	2.7	2.7	2.7	2.7
- 전년대비 변동률(%)	5.9	-1.1	4.8	-2.3	2.3	0.4
사업체당건물면적(㎡)	88.4	84.1	92.9	97.6	103.5	101.5
- 전년대비 변동률(%)	11.0	-16.7	5.6	5.0	6.1	-2.5
영업이익률(%)	31.2	25.6	27.3	26.6	25.5	22.9
매출 1억원당 종사자수(명)	3.9	3.6	3.1	2.9	2.6	2.4
종사자 1인당 인건비(백만원)	0.0	4.7	0.0	4.7	6.0	6.3
건물100㎡당 매출액(백만원)	76.6	86.9	93.6	95.4	99.3	110.5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총사업체조사」

한편 외식업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업체별 동향을 보면 패밀리레스토랑 업체의 경우 카후나빌 업체의 매출액이 누락되기는 했지만 '08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2% 줄어든 7,747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1-15>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업체 매출 현황

단위: 억원, 개

	매출액					점포수				
	00	04	05	07	08	00	04	05	07	08
아웃백	150	1600	2,200	2,700	2,750	8	50	70	98	101
빽스	130	710	1,300	2,700	2,500	3	22	41	80	80
T.G.I.F.	600	1,000	1,100	1,500	800	17	33	39	61	30
베니건스	408	826	880	1,038	938	10	20	26	31	30
마르쉐	260	300	300	280	520	7	9	9	7	5
씨즐러	80	180	210	240	140	3	6	7	9	5
토니로마스	115	146	153	160	99	4	7	7	7	5
카후나빌	-	38	53	110	-	-	3	3	6	-
계	2,043	4,800	6,196	8,728	7,747	52	150	202	299	256

자료: 식품저널, 「2009 식품유통연감」, 2009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외식시장 위축에 따라 점포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전년 대비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밀리 레스토랑업체 점포당 매출액의 경우도 '00년 39.3억원에서 '08년 30.3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및 각종 경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반해 외식소비는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패밀리레스토랑 업체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08년 패밀리 레스토랑업체의 화두는 식재료 급등에 따른 원가절감, 부실점포 정리, 1인당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피자업체도 밀가루 및 유제품 등 주요 식재료 가격상승에 의한 소비자가격 인상, 가짜치즈 사건 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피자에땅'과 '빨간모자'의 매출액이 누락되기는 했지만 피자업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자헛, 도미노피자 및 미스터피자와 같은 메이저 브랜드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7.5%, 21.9%,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짜치즈 사건이 발생하면서 저가 피자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메이저 브랜드 업체의 신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10,000원대의 증저가 제품을 출시한 것도 매출신장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6> 주요 피자업체 매출 현황

단위: 억원, 개

	매출액					점포수				
	00	04	05	07	08	00	04	05	07	08
피자헛	2000	3,900	4,000	4,000	4,300	199	340	340	330	330
도미노피자	500	1,500	2,000	2,500	3,000	149	247	250	330	305
미스터피자	103	1,500	1,800	3,200	3,900	137	220	280	320	350
피자에땅	-	450	800	1,500	-	-	162	268	350	-
파파존스	-	50	120	310	350	-	-	39	70	70
빨간모자	-	84	88	200	-	10	21	22	30	-
계	2,603	7,484	8,808	12,350	11,550	495	990	1,199	1,430	1,055

자료: 식품저널, 「2009 식품유통연감」, 2009

패스트푸드는 광우병 파동과 비만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인한 시민단체의 안티 패스트푸드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04년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게 되었으나 그 후 저칼로리와 씨푸드 등 웰빙 트렌드를 겨냥한 신메뉴의 개발, 가격할인과 판촉 등 업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가 비만을 유발하는 정크푸드라는 소비자 인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여 매출이 감소 또는 정체되어 있다.

그러나 KFC나 버거킹 업체의 매출액이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

기는 어렵지만 패스트푸드 업계를 대표하는 롯데리아, KFC, 파파이스 3사의 2008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6,318억원으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리아의 점포당 매출액은 '00년 7.7억원에서 '05년 4.8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그 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07년에는 5.3억원, '08년에는 5.9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FC는 '04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여 '08년에는 점포당 매출액이 10.5억원에 달해 패스트푸드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파이스의 경우에는 롯데리아와 마찬가지로 '05년까지는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06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08년에는 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7>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 매출 현황

단위: 억원, 개

	매출액					점포수				
	00	04	05	07	08	00	04	05	07	08
롯데리아	4,640	4,500	3,800	4,000	4,400	601	839	800	750	750
맥도날드	2,640	-	-	-	-	244	328	305	270	235
KFC	1,860	1,700	1,600	1,520	1,470	206	195	179	151	140
파파이스	1,385	1,000	651	498	478	174	180	160	120	96
버거킹	861	760	700	-	-	93	91	95	87	92

자료: 식품저널, 「2009 식품유통연감」, 2009

학교와 직장에서의 단체급식이 확대되면서 주요 위탁급식업체의 매출액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동원홈푸드를 제외하고서도 전년 대비 12.4%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학교급식이 직영화 될 경우 위탁급식 시장규모는 축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아라코(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규모 위탁급식업체들은 전년 대비 11% 이상의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

는데 이는 신규사업 개발 등 사업다각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표 1-18> 주요 위탁급식업체 매출 현황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¹⁾	2008
삼성에버랜드(주)	3,400	3,700	4,100	4,300	5,700	6,700
(주)아워홈	3,000	3,500	3,550	4,200	7,567	9,000
(주)현대푸드시스템	1,800	2,200	2,700	2,900	2,900	3,318
(주)신세계푸드시스템	1,250	1,481	1,677	1,986	3,550	4,191
CJ프레시웨이(주)	2,176	2,020	2,000	1,550	6,107	6,800
한화호텔&리조트	1,189	1,000	1,150	1,310	1,500	1,900
아라코(주)	750	901	1,000	1,200	1,300	1,350
이씨엠디	810	890	1,030	1,147	1,350	1,550
(주)동원홈푸드	-	-	-	-	-	1,250
합 계	26,000	28,000	31,000	34,000	30,974	36,059

자료: 식품저널, 「2009 식품유통연감」, 2009

월간식당, 2010. 2

주: 1) 2007년 업체별 자료는 식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임

나. 산업구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에 의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업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 음식점업은 일반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음식업, 기타 음식점업으로 세분된다.

이들 음식점 및 주점업의 '08년도 음식점수 구성비를 보면 일반음식점업이 55.0%, 기타 음식점업이 17.1%, 기관구내식당업 0.7%,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0.1%로 음식점업이 전체의 72.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점업이 22.5%, 비

알콜음료점업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년과 비교해 볼 때 일반 음식점업은 2.2% 증가하였고 기관구내식당업은 연평균 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알콜음료업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6%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9>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

	2001		2005		2008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음식점 및 주점업	505,241	100.0	531,929	100.0	576,990	100.0
일반음식점업	272,340	53.9	292,028	54.9	317,077	55.0
기관구내식당업	2,379	0.5	3,238	0.6	4,309	0.7
출장 및 이동음식업	-	-	-	-	473	0.1
기타 음식점업	87,939	17.4	94,199	17.7	98,849	17.1
주점업	108,635	21.5	116,864	22.0	130,003	22.5
비알콜 음료점업	33,948	6.7	25,600	4.8	26,279	4.6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음식점 및 주점업의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를 보면 전반적으로 음식점수 구성비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08년도 기준 전체 외식업체 종사자수의 76.8%에 해당하는 약 121만명이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점업 및 비알콜 음료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36만명 수준으로 2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성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가 918천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58.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피자, 햄버거 및 치킨점, 분식점 등을 포함하는 기타음식점업이 16.4%, 기관구내식당업 2.2%, 출장 및 이동음식업 0.2% 순으로 나타났다. '01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음식점업 종사자수는 2.9% 증가한 반면 주점 및 비알콜음료

업은 0.6%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0>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종사자수 현황

단위: 명, %

	2001		2005		2008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음식점 및 주점업	1,341,528	100.0	1,444,827	100.0	1,578,068	100.0
일반 음식점업	753,336	56.2	843,555	58.4	918,051	58.2
기관구내식당업	23,073	1.7	28,293	2.0	33,975	2.2
출장 및 이동 음식업		0.0		0.0	2,850	0.2
기타 음식점업	215,793	16.1	242,462	16.8	258,450	16.4
주점업	269,775	20.1	274,405	19.0	303,955	19.3
비알콜 음료점업	79,551	5.9	56,112	3.9	60,787	3.9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음식점 및 주점업의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를 보면 전체 외식산업 매출액에서 음식점업 매출액 비중이 80.2%, 주점업 및 비알콜음료점업이 1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년에 비해 음식점업의 매출액 비중이 늘어났다.

음식점업 매출액 구성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음식점업 매출액이 약 39조원으로 전체 외식산업 매출액의 6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피자, 햄버거 및 치킨점, 분식점 등을 포함하는 기타음식점업의 매출액 비중은 15.7%, 기관구내식당업은 4.2%, 출장 및 이동음식업은 0.2%를 기록하였다.

한편 '08년도 기준 주점업의 매출액 비중은 16.8%, 비알콜음료점업은 3.0%로 '01년도와 비교해 볼 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 음식점 및 주점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

단위: 십억, %

	2001		2005		2008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음식점 및 주점업	34,246	100.0	46,253	100.0	64,712	100.0
일반 음식점업	19,135	55.9	26,888	58.1	38,887	60.1
기관구내식당업	822	2.4	2,123	4.6	2,741	4.2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	-	-	-	135	0.2
기타 음식점업	6,016	17.6	7,733	16.7	10,179	15.7
주점업	6,709	19.6	8,113	17.5	10,847	16.8
비알콜 음료점업	1,564	4.6	1,396	3.0	1,923	3.0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8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른 음식점업 구성비를 보면 연간 매출액 2천만원 미만인 업체의 비율이 전체 사업체의 10.5%, 고용인력 비율은 5.4%, 매출액 비중은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인 사업체의 비중은 29.5%로 가장 높고 이들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수의 비중은 18.1%, 매출액은 8.0%로 나타났는데 연간 매출액 5천만원 미만인 영세업체의 비율이 40%를 기록하였다. 분류기준이 조금은 다르지만 '00년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인 업체의 비율이 61.2%인 것에 견주어 볼 때 영세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28.5%,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28.1%로 매출액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업체의 비중이 전체 사업체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수는 60.7%, 매출액은 61%를 차지하여 우리 나라 음식점의 상당수가 이 그룹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2> 매출액 규모별 음식점업 구성비 현황(2008)

단위: 개, 명, 백만원,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업체수	비중	인원	비중	금액	비중
2천만원 미만	44,241	10.5	65,712	5.4	505,871	1.0
2~5천만원 미만	124,048	29.5	219,418	18.1	4,138,555	8.0
5천만원~1억원 미만	120,066	28.5	285,514	23.5	8,478,045	16.3
1~5억원 미만	118,393	28.1	451,678	37.2	23,247,941	44.8
5~10억원 미만	8,886	2.1	81,660	6.7	5,826,805	11.2
10~50억원 미만	4,839	1.2	94,893	7.8	7,782,545	15.0
50억원 이상	235	0.1	14,451	1.2	1,962,134	3.8
합 계	420,708	100.0	1,213,326	100.0	51,941,895	100.0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특히 매출액 1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수의 비중은 1.3%, 이들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의 비중은 9%, 매출액은 약 19%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업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도 종사자 규모별에 따른 음식점업 구성비 현황을 보면 종사자수 4인 이하 규모의 업체수가 전체 사업체수의 89.0%, 고용인력은 67.3%, 매출액 비중은 5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사업체수 비중은 8.9%, 고용인력은 18.6%, 매출액은 23.8%의 비중을 나타내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기준을 적용한 종사자수 10인 미만의 업체수 비율이 97.9%로 우리 나라 음식점의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인력 비중은 85.9%, 매출액 비중은 78.5%로 고용이나 매출액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23> 종사자 규모별 음식점업 구성비 현황(2008)

단위: 개, 명, 백만원,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업체수	비중	인원	비중	금액	비중
1~4	374,296	89.0	817,042	67.3	28,387,014	54.7
5~9	37,417	8.9	225,444	18.6	12,367,430	23.8
10~19	6,665	1.6	85,257	7.0	5,677,147	10.9
20명 이상	2,330	0.6	85,583	7.1	5,510,304	10.6
20~49	1,966	0.5	57,695	4.8	3,678,514	7.1
50명 이상	364	0.1	27,888	2.3	1,831,790	3.5
합 계	420,708	100.0	1,213,326	100.0	51,941,895	100.0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1년 이후 음식점업 업종별 업체수 변동 추이를 보면 일반음식점업의 경우 중식과 서양식 등이 감소하였지만 한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연평균 2.2%의 증가세를 보여 '08년 기준 317,0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음식점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4%였고 그 중에서 한식의 비중이 66.5%로 가장 높다.

기업체,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기관구내식당업은 최근 성장추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01년 2,379개소에서 '08년 4,309개소로 연평균 8.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음식점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로 조금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음식점업의 경우 과거 음료부문에 속했던 다과점이 포함되면서 절대 숫자가 늘어나면서 연평균 1.7%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종별로 편차가 심한 편이다. 제과점은 '01년 8,637개소에서 '08년 12,513개소로 같은 기간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음식점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해서 늘어나 '08 기준 3.0%를 기록하였다. 피자·햄버거·샌드위치점과 치킨점은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식·김밥전문점은 '06년 이후 그 업체수 및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표 1-24> 음식점업 업종별 업체수 추이

단위: 개, %

		2001 ¹⁾		2005 ¹⁾		2008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합 계		362,658	100.0	389,465	100.0	420,708	100.0
일 반 음식점업	소 계	272,340	75.1	292,028	75.0	317,077	75.4
	한 식	228,704	63.1	254,784	65.4	279,702	66.5
	중 식	24,051	6.6	21,932	5.6	21,771	5.2
	일 식	5,092	1.4	4,628	1.2	6,022	1.4
	서양식	13,369	3.7	10,034	2.6	8,856	2.1
	기타 외국식	1,124	0.3	650	0.2	726	0.2
기관구내식당업		2,379	0.7	3,238	0.8	4,309	1.0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²⁾		-	-	-	-	473	0.1
기 타 음식점업	소 계	87,939	24.2	94,199	24.2	98,849	23.5
	제과점	8,637	2.4	6,408	1.6	12,513	3.0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	24,276	6.7	30,585	7.9	11,799	2.8
	치킨 전문점 ²⁾	-	-	-	-	24,906	5.9
	분식 및 김밥전문점	49,456	13.6	52,553	13.5	45,701	10.9
	기타	5,570	1.5	4,653	1.2	3,930	0.9

주: 1) 2001년, 2005년 자료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재산정한 수치임.

2) 출장 및 이동음식점과 치킨전문점은 '06년 이전에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수치가 없음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8년도 음식점업 업종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한식 음식점업이 약 31.5조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시장의 6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년 이후 연평균 1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식 음식점 사업체당 매출액도 '01년 64.5백만원에서 '08년 112.7백만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급한정식, 대형 고기전문점, 횡집 등이 많이 개업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1-25> 음식점업 업종별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 %

		2001 ¹⁾		2005 ¹⁾		2008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합 계		25,973	100.0	36,744	100.0	51,942	100.0
일 반 음식점업	소 계	19,135	73.7	26,888	73.2	38,887	74.9
	한 식	14,761	56.8	21,639	58.9	31,539	60.7
	중 식	1,530	5.9	1,915	5.2	2,689	5.2
	일 식	964	3.7	1,048	2.9	1,949	3.8
	서양식	1,682	6.5	2,080	5.7	2,542	4.9
	기타 외국식	198	0.8	206	0.6	169	0.3
기관구내식당업		822	3.2	2,123	5.8	2,741	5.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²⁾		-	-	-	-	135	0.3
기 타 음식점업	소 계	6,016	23.2	7,733	21.0	10,179	19.6
	제과점	746	2.9	932	2.5	2,411	4.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	2,691	10.4	3,136	8.5	2,089	4.0
	치킨 전문점 ²⁾	-	-	-	-	1,924	3.7
	분식 및 김밥전문점	1,843	7.1	2,708	7.4	2,802	5.4
	기타	737	2.8	957	2.6	952	1.8

주: 1) 2001년, 2005년 자료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재산정한 수치임.

2) 출장 및 이동음식점과 치킨전문점은 '06년 이전에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수치가 없음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그 다음으로 매출액 비중이 높은 업종은 분식 및 김밥전문점으로서 전체 음식점업 매출액의 5.4%인 2조 8천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사업체당 매출액은 약 6천 1백만원으로서 음식점업 평균 매출액인 123백만원의 약 50%에 불과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구내식당업은 2조 7천억원으로서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은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년 이후 연평균 18.8%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05년 이후로는 연평균 8.9%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고 삼성에버랜드, 아워홈, 신세계푸드시스템, CJ푸드시스템 등과 같은 대형위탁급식업체와 소규모 위탁급식업체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의 9차 개정에 의하여 피자, 햄버거, 치킨 전문점이 '07년도부터 피자, 햄버거 및 샌드위치 전문점과 치킨전문점으로 구분되어 통계자료가 작성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른 '08년도 피자, 햄버거 및 샌드위치 전문점의 매출액은 약 2조 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킨전문점의 경우 '08년도 매출액은 1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5.5%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BBQ, 교촌치킨 등과 같은 유명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영세업체들간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음식점업에 새롭게 포함된 제과점업의 매출액은 '01년 7천 4백 6십억원에서 '08년 2조 4천억원으로 연평균 18.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음식점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년 2.9%에서 '08년 4.6%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음식점업 업종별 종사자수 변동 추이를 보면 일반음식점업의 경우 중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등에 종사하는 고용 인력은 감소하였지만 한식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연평균 2.9%의 증가세를 보여 '08년 기준 918,0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음식점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7%이며 그 중에서 한식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62.9%로 비중이 가장 높다.

<표 1-26> 음식점업 업종별 종사자수 추이

단위: 명, %

		2001 ¹⁾		2005 ¹⁾		2008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합 계		992,202	100.0	1,114,310	100.0	1,213,326	100.0
일 반 음식점업	소 계	753,336	75.9	843,555	75.7	918,051	75.7
	한 식	597,976	60.3	695,062	62.4	763,508	62.9
	중 식	71,182	7.2	68,906	6.2	70,166	5.8
	일 식	24,915	2.5	23,849	2.1	28,473	2.3
	서양식	54,102	5.5	51,226	4.6	52,318	4.3
	기타 외국식	5,161	0.5	4,512	0.4	3,586	0.3
기관구내식당업		23,073	2.3	28,293	2.5	33,975	2.8
출장 및 이동 음식업 ²⁾		-	-	-	-	2,850	0.2
기 타 음식점업	소 계	215,793	21.7	242,462	21.8	258,450	21.3
	제과점	24,376	2.5	21,037	1.9	43,688	3.6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	80,795	8.1	94,684	8.5	57,047	4.7
	치킨 전문점 ²⁾	-	-	-	-	52,113	4.3
	분식 및 김밥전문점	96,070	9.7	112,053	10.1	94,139	7.8
	기타	14,552	1.5	14,688	1.3	11,463	0.9

주: 1) 2001년, 2005년 자료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재산정한 수치임.

2) 출장 및 이동음식점과 치킨전문점은 '06년 이전에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수치가 없음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기업체,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기관구내식당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01년 23,073명에서 '08년 33,975명으로 연평균 5.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음식점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01년 215,793명에서 '08년에는 258,450명으로

연평균 2.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음식점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분식 및 김밥 전문점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은 7.8%,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으로 4.7%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들 업종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제과점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01년 24,376명에서 '08년 43,688명으로 연평균 8.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점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년 2.5%에서 '08년 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에서의 또 하나의 구조 변화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의뢰를 받아 프랜차이즈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출은 3년 전에 비해 66.9%나 증가하는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02년 559개 본부에서 '05년 1,194개 업체, '08년에는 1,523개 업체로 '05년에 비해 27.6%나 증가하였으나 가맹점수는 3년 전과 비교하여 7.6% 감소하여 '08년도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업소는 131,193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가맹점수가 감소한 이유는 그동안 창업시장을 이끌어 왔던 치킨, 삼겹살, 분식 등 생계형 아이템에서의 브랜드 파생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가맹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식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08년도에는 '05년도에 비해 43.3%나 증가한 560,456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브랜드 마케팅과 경쟁력 우위로 인해 동일 상권에서 비가맹 일반음식점에 비해 영업실적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자료에 의하면 '08년도의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306.2백만원으로 같은 해 전체 외식업체의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123.5백만원과 비교할 때 약 2.5배 정도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표 1-27>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 현황

	2002년	2005년(A)	2008년(B)	B/A 증감율(%)
매출액(조원)	11.18	24.07	40.17	66.9
가맹본부수(개소)	559	1,194	1,523	27.6
가맹점수(개소)	50,873	141,992	131,193	-7.6
종사자수(명)	233,899	391,160	560,456	43.3

자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08프랜차이즈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008

프랜차이즈 업체가 성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브랜드 파워,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점포 및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등을 배경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 브랜드 마케팅,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규모경제성, 우수한 인적 자원, 주방의 간편화 등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감안할 때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들 간의 경쟁도 심화되어 경쟁기반이 취약한 업체들은 도태되고 명확한 컨셉과 차별화, 전문화된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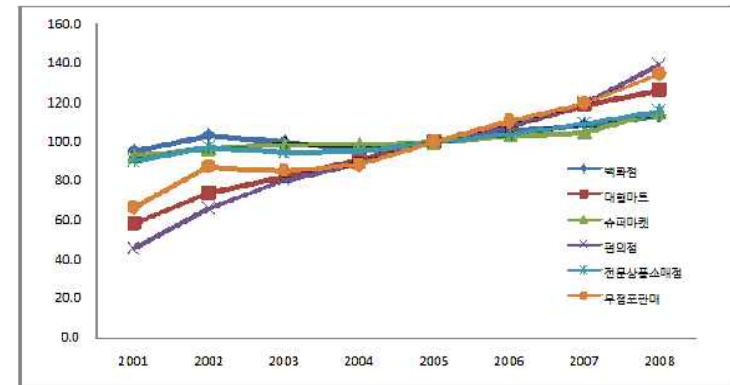
소비자기호의 다양화,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서구식 식생활 패턴의 확대, 외식 시장 개방 등으로 업종도 다양화되어 패밀리레스토랑, 패스트푸드, 피자 등 서구식 음식점과 퓨전 음식점, 프랜차이즈와 단체급식업체가 급성장하면서 일반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식당이 주종을 이루었던 외식산업의 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다. 또 전통외식산업에서도 특정메뉴의 전문식당과 고급한정식식당이 일반 한식당에서 분화되고 서구식 프랜차이즈 형태가 도입, 확산되는 등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3. 식품유통업

가. 산업동향

1996년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이후 특히 외국계 대형할인 소매업체들이 국내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소매유통업의 구조 조정이 급속히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90년대 후반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대형할인점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소매유통시장을 급속히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인터넷과 TV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등 무점포 판매업이 새로운 성장업태로 등장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사이버쇼핑몰의 경우 '01년 이후 연평균 34.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은 도입당시에는 성과가 부진했지만 신세대 고객층의 이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17.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4> 소매유통 업체별 매출액 성장 추이(2005=100)



자료: 통계청(www.kosis.kr), 「소매판매액지수」

이와 같은 소매유통구조의 변화는 식품유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할인점의 점유율 확대로 인하여 도매유통이 생략되고 유통단계가 축소되면서 유통마진이 줄어들게 되었고 과거 식품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재래 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등의 기능이 축소되는 반면 대형할인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되었다. 또, 거대 할인점간의 경쟁은 가격, 품질, 서비스에서 고객중심의 경영을 불러와 소비자들의 지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식품관련 소매업은 종합소매업과 음식료품 소매업으로 구분된다. 종합소매업은 다시 대형종합소매업,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및 그 외 기타종합소매업으로 구성되는데 대형종합소매업은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 백화점과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을 포함하는 기타대형종합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은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종합소매점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체는 음식료품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식료품 소매업 및 음료 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상의 모든 업체들은 식품을 취급하는 식품관련 소매업체라고 총칭할 수 있다.

식품관련 소매업체수는 '01년 228,620개소에서 '08년에는 204,252개소로 연평균 1.6%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소형슈퍼마켓과 같은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과 음식료품소매업은 업체수가 감소한 반면 홈플러스, 이마트와 같은 기타대형종합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은 사업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식품관련 소매유통업에서 상당한 구조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08년도의 식품관련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업종별 사업체수 비중을 보면 음식료품소매업이 4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소형 슈퍼마켓을 포함하는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이 42.7%, 체인화편의점 6.7%, 슈퍼마켓 3.9%, 백화점 0.2% 순으로 나타났다. '01년 이후와 비교해보면 음식료품소매업과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및 기타대형종합소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8>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

	2001	2007	2008
백화점	89(0.04)	84(0.04)	82(0.04)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238(0.1)	375(0.2)	424(0.2)
슈퍼마켓	5,867(2.6)	7,138(3.4)	8,060(3.9)
체인화편의점	4,116(1.8)	11,917(5.7)	13,609(6.7)
기타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107,365(47.0)	91,505(43.8)	87,271(42.7)
음식료품 소매업	110,945(48.5)	97,905(46.9)	94,806(46.4)
합 계	228,620(100.0)	208,924(100.0)	204,252(100.0)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8년 기준 식품관련 소매유통업에서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를 보면 전체 사업체의 0.24%에 불과한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이 포함된 기타대형종합소매업이 전체 매출액의 52.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백화점의 매출비중은 '01년 27%에서 '08년 16.1%로 감소하였으나 기타대형종합소매업은 '01년 28.3%에서 '08년 36.7%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슈퍼마켓과 체인화편의점의 매출 비중은 각각 18.0%, 7.6%로 '01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백화점, 기타대형종합소매업, 편의점 및 슈퍼마켓이 소매유통시장의 78.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식품소매업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소규모 음식료품소매업의 점유율은 21.7%에 불과하여 소매유통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도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종사자수 현황을 보면 음식료품소매업 종사자수가 166,699명으로 전체 식품관련 소매업 종사자수의 32.0%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이 146,507명으로 비중은 28.2%, 기타 대형종합소매업은 70,944명으로 비중은 1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9>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매출액 현황

단위: 십억원, %

	2001	2007	2008
백화점	16,134(27.0)	13,254(16.7)	13,974(16.1)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16,942(28.3)	29,825(37.6)	31,878(36.7)
슈퍼마켓	9,040(15.1)	13,365(16.9)	15,636(18.0)
체인화편의점	1,582(2.6)	5,608(7.1)	6,573(7.6)
기타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6,471(10.8)	7,195(9.1)	7,715(8.9)
음식료품 소매업	9,650(16.1)	10,012(12.6)	11,086(12.8)
합 계	59,820(100.0)	79,257(100.0)	86,861(100.0)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01년과 비교할 때 음식료품소매업, 백화점과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의 종사자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체인화편의점, 슈퍼마켓 및 기타대형종합소매업의 종사자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30> 업종별 식품관련 소매업 종사자수 현황

단위: 명, %

	2001	2007	2008
백화점	28,078(5.7)	18,368(3.6)	18,938(3.6)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37,745(7.7)	56,200(11.1)	70,944(13.6)
슈퍼마켓	45,094(9.2)	55,647(11.0)	63,824(12.3)
체인화편의점	18,442(3.7)	46,411(9.1)	53,486(10.3)
기타 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166,527(33.8)	155,732(30.7)	146,507(28.2)
음식료품 소매업	196,422(39.9)	175,480(34.6)	166,699(32.0)
합 계	492,308(100.0)	507,838(100.0)	520,398(100.0)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8년도 전국의 편의점수는 12,485개소로 ‘03년 이후 연평균 11.6%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신규 점포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타 업종에 비해 창업비가 적게 들면서 투자자금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이나 주부층 등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가맹점에 대한 창업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주상복합건물이나 재건축 건물이 늘어나는데 따른 새로운 상권이 발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31> 편의점 현황

단위: 억원, %

	2003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가율 (03-08)
총매출액	36,319	46,092	49,624	55,613	64,881	12.3
-업체당 매출액	5.0	5.1	5.0	5.0	5.2	0.6
-식품부문 매출액 비중	55.1	48.8	48.5	47.8	48.4	-2.6
점포수(개)	7,200	9,085	9,928	11,056	12,485	11.6
미니ストップ	873	928	963	1,017	1,079	4.3
바이더웨이	709	999	991	1,054	1,231	11.7
세븐일레븐	1,292	1,248	1,431	1,760	2,003	9.2
씨스페이스	125	116	126	128	130	0.8
GS25	1,580	2,060	2,399	2,856	3,388	16.5
헤미리마트	2,165	3,152	3,486	3,751	4,159	13.9
OK마트	250	313	296	307	287	2.8
조이마트	206	269	236	183	208	0.2

자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편의점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08년도 편의점 경영주 연령별 구성 분포를 보면 20대 13.9%, 30대 33.3%, 40대 32.4%, 50대 이상 20.4%로 ‘07년에 비해 2-30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 56.1%, 여자 43.9%로 여성 경영주의 비율이 ‘07년에 비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 편의점 식품부문 매출액 구성비

단위: %

	2003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가율 (03-08)
가공식품	17.9	16.2	16.4	17.0	16.8	-1.3
일배가공식품	14.1	12.7	12.7	12.2	12.3	-2.7
일배생식품	0.6	0.7	0.7	0.6	0.7	3.1
과자류	7.7	6.2	6.0	6.3	6.5	-3.3
패스트푸드	6.4	5.3	5.0	4.3	4.6	-6.4
주류	8.4	7.7	7.7	7.4	7.5	-2.2

자료: 한국편의점협회

'08년도 편의점 매출액은 약 6조 5천억원으로 '03년 이후 연평균 12.3%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체당 매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0.6%의 증가에 그쳐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면서 경영여건은 오히려 조금씩 나빠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규 창업하는 편의점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수를 늘이지 못해 영업적자로 폐점하는 점포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편의점 매출액에서 식품부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55.1%에서 '08년 48.4%로 연평균 2.6%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담배 매출액 비중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2008년도 편의점 가맹형태별 점포수 구성비를 보면 직영점 3.9%, 순수가맹점 74.6%, 위탁가맹점 21.5%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가맹본부들의 시설투자비 지원이 줄면서 이익배분율이 높은 순수가맹점 점포수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08년도 편의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식품부문 상품별 매출 구성을 보면 가공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16.8%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일배가공식품 12.3%, 주류 7.5%, 과자류 6.5%, 패스트푸드 4.6%, 일배생식품 0.7% 순으로

나타났다. '03년과 비교할 때 패스트푸드의 매출액 비중 감소폭이 6.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과자류가 3.3% 감소하여 두 번째로 매출액 비중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사이버쇼핑몰에서 취급되고 있는 음식료품의 거래액은 약 1조 9십억원으로서 전체 사이버몰 거래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에 불과하지만 2001년 이후 연평균 43.6%의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도 기준 취급형태별 음식료품 거래액을 보면 종합몰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약 6,700억원으로 비율은 66.7%, 전문몰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약 3,400억원으로 비중은 33.3%로 나타났다. '01년과 비교할 때 전문몰의 비중이 연평균 66.3%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 사이버 쇼핑몰 취급범위별 음식료품 거래액 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

	2001	2005	2008	
사이버몰 전체(A)	3,347,067	10,675,595	18,145,516	
음·식료품	소계(B)	80,341(100.0)	531,085(100.0)	1,009,291(100.0)
	종합몰	70,796(88.1)	442,877(83.4)	673,680(66.7)
	전문몰	9,545(11.9)	88,208(16.6)	335,611(33.3)
B/A	2.4	5.0	5.6	

자료: 통계청(www.kosis.kr), 「사이버쇼핑동향조사」

이를 사이버 쇼핑몰 운영형태별로 거래액 비중을 살펴보면 online몰과 online/offline몰의 비율이 2001년도 27:73에서 그 후 2003년까지는 online몰의 비중이 15%까지 감소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34:66로 online몰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오프라인 기반을 갖춘 대형 온라인몰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4> 사이버 쇼핑몰 운영형태별 음식료품 거래액 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

	2001		2005		200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80,341	100.0	531,085	100.0	1,009,291	100.0
Online몰	22,256	27.7	157,741	29.7	345,123	34.2
On/Offline몰	58,084	72.3	373,345	70.3	664,168	65.8

자료: 통계청(www.kosis.kr), 「사이버쇼핑동향조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매유통업의 대형화와 체인화는 소매유통업체의 구매력을 크게 증대시켜 과거에는 제조업체가 시장교섭력의 우위에 있었으나 이제는 소매유통업체가 우위를 점하여 가격결정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자사브랜드(PB) 제품을 키워 음식료품제조업체와의 직접적인 경합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매물량이 거대해지면서 할인점을 중심으로 식품의 글로벌 소싱이 촉진되는 등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에 역기능을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상대적으로 백화점과 재래시장은 대형할인점에 의해 시장이 잠식되면서 지속적이고 경쟁적인 할인 행사로 소매업체간 할인 경쟁이 과열되어 객장 면적당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다.

나. 산업구조

음식료품유통업은 크게 음식료품도매업과 음식료품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2008년도 음식료품도매업의 사업체수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49,263개소이며 '01년 이후 연평균 4.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음식료품도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약 204천명으로 나타났으며 '01년 이후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08년도 약 64조 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01년 이후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06년 이후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5> 음식료품 도매업 현황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업체수(개)	37,329	43,300	44,504	45,475	47,797	49,263
전년대비(%)	-1.7	1.4	2.8	2.2	5.1	4.4
종사자수(천명)	164.5	180.5	189.2	186.2	198.9	204.9
전년대비(%)	2.7	-2.3	4.8	-1.6	6.8	4.0
매출액(10억원)	38,794	49,185	47,566	52,024	58,612	64,748
전년대비(%)	6.6	3.6	-3.3	9.4	12.7	11.3

주: 2004년 자료는 담배도매업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표 1-36> 음식료품 소매업 현황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업체수(개)	110,945	108,689	97,663	98,266	97,905	94,806
전년대비(%)	-17.5	-2.9	-10.1	0.6	-0.4	-2.6
종사자수(천명)	196,422	194,105	171,341	174,891	175,480	166,699
전년대비(%)	-19.3	-4.3	-11.7	2.1	0.3	-5.4
매출액(10억원)	9,650	10,776	8,836	9,416	10,012	11,086
전년대비(%)	-9.2	1.6	-18.0	6.6	6.3	10.1

주: 2004년 자료는 담배소매업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8년도 음식료품소매업 사업체수는 94,806개소로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으며 '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2.2%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아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할인점과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슈퍼마켓 등이 많이 출현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음식료품소매업 종사자수의 경우에도 사업체수 감소로 인하여 '01년 이후 연평균 2.3%의 감소현상을 보여 '08년 기준 166,699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5.4% 감소하여 사업체수 감소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음식료품소매업 매출액은 '01년 이후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여 '08년에는 약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당 매출액도 '01년 87백만원에서 '08년에는 117백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체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특히 한계업체의 퇴출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37> 매출액 규모별 음식료품 도매업 구성비

단위: %

	2007			2008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2천만원 미만	0.4	0.2	0.0	0.8	0.3	0.0
2~5천만원 미만	3.9	1.3	0.1	5.5	2.0	0.2
5천~1억원미만	11.9	5.1	0.8	11.0	4.8	0.6
1~5억원 미만	45.1	26.3	8.8	39.6	22.2	7.4
5~10억원 미만	14.3	11.9	9.0	13.5	10.0	7.3
10~50억원 미만	19.2	27.9	32.9	24.3	32.6	37.4
50~200억원 미만	4.5	20.3	30.2	4.7	20.8	29.0
200억원 이상	0.6	7.0	18.2	0.6	7.5	18.1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8년도 매출액 규모별 음식료품 도매업 구성비를 보면 2천만원 미만인 사업체수 비중은 0.8%, 2~5천만원 미만 5.5%, 5천~1억원 미만 11.0%로 음식료품 도매업 전체 사업체의 17.3%가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7.1%, 매출액 비중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07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비중이 조금 늘어났는데 반해 매출액 비중은 오히려 0.1% 감소하여 영세성이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업체수 비중이 가장 많은 매출액 규모는 1~5억원 미만으로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들 규모의 종사자수 비중은 22.2%, 매출액 비중은 7.4%를 기록하고 있는데 '07년에 비해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매출액 2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체수 비중은 0.6%인데 종사자수 비중은 7.5%, 매출액 비중은 18.1%로 매출액 1억원 미만 규모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매출액 10억원 이상 규모의 비중은 증가하고 그 미만 규모는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도 종사자 규모별 음식료품 도매업 현황을 보면 종업원 4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수 비율이 80.6%, 5~9인 이하가 11.8%로 전체 사업체수의 92.4%가 영세 소규모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규모의 종사자수 비중은 59.1%, 매출액 비중은 5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7년에 비해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38> 종사자 규모별 음식료품 도매업 구성비

단위: %

	2007			2008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1~4	80.4	42.0	31.8	80.6	41.4	33.5
5~9	12.0	18.1	21.4	11.8	17.7	21.3
10~19	5.0	15.8	19.8	5.1	16.3	20.1
20~49	2.1	14.1	16.8	2.0	13.4	15.4
50명 이상	0.4	10.0	10.3	0.5	11.3	9.5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8년도 매출액 규모별 음식료품 소매업 구성비를 보면 2천만원 미만인 사업체수 비중은 14.9%, 2~5천만원 미만 29.6%, 5천~1억원 미만 26.2%로 음식료품 소매업 전체 사업체의 70.7%가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58.3%, 매출액 비중은 25.8%를 기록하였으며 '07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매출액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8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체수 비중은 '07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종사자수와 매출액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9> 매출액 규모별 음식료품 소매업 구성비

단위: %

	2007			2008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2천만원 미만	11.1	7.1	1.5	14.9	10.5	1.6
2~5천만원 미만	32.5	26.1	10.5	29.6	23.6	8.4
5천~1억원미만	29.4	28.4	20.6	26.2	24.2	15.8
1~5억원 미만	24.7	30.5	43.7	26.2	32.7	43.3
5~10억원 미만	1.7	4.7	11.0	2.2	4.4	12.2
10~50억원 미만	0.5	2.5	9.5	0.9	3.8	13.9
50~200억원 미만	0.01	0.8	3.1	0.02	0.7	3.8
200억원 이상	1개	0.0	0.0	2개	0.0	0.0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2008년도 종사자 규모별 음식료품 소매업 구성비를 보면 종업원 4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수 비율이 98.1%로 대부분이 영세 소규모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90.2%, 매출액 비중은 80.3%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비해 종사자수 비중은 늘어났으나 사업체수 및 매출액 비중은 감소하였다. 5~9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수 비중은 1.4%, 종사자수 비중은 4.9%, 매출액 비중은 11.8%로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0> 종사자 규모별 음식료품 소매업 구성비

단위: %

	2007			2008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1~4	97.8	88.4	82.1	98.1	90.2	80.3
5~9	1.7	5.7	10.8	1.4	4.9	11.8
10~19	0.4	2.5	4.1	0.3	2.3	3.8
20~49	0.1	2.0	1.9	0.1	1.8	3.1
50명 이상	0.03	1.4	1.0	0.02	0.9	1.1

자료: 통계청(www.kosis.kr), 「도소매업조사」

통계청 자료는 품목별 매출을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매유통업의 전체 매출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식품유통에서 소매유통체널별 중요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소매유통체널별 식품의 판매 비율을 추정하였다.

먼저 소매유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식품 매출은 한국식품연구원이 2007년 4개 백화점과 3개 할인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의 매출 비중 자료를 이용하되 연도별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의 2008년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되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월별 식품 매출 변동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편의점의 식품 매출비중은 한국편의점협회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편의점 운영실태 자료를 이용하였고 슈퍼마켓의 식품매출 비중은 대한상공회의소가 2001년도에 조사한 가공식품 37.5%, 생식품 33.5%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그대로 적용하였다. 일반종합소매점은 가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식품매출 비중을 슈퍼마켓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고 음식료품소매점은 통계청 도 소매업조사의 매출액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1-43> 소매유통채널별 식품 매출 비중

단위: %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일반종합 소매점	음식료품 소매점
2006년	12.4	39.7	71.0	48.5	71.0	100.0
2007년	12.9	36.3	71.0	47.8	71.0	100.0
2008년	13.2	35.6	71.0	48.4	7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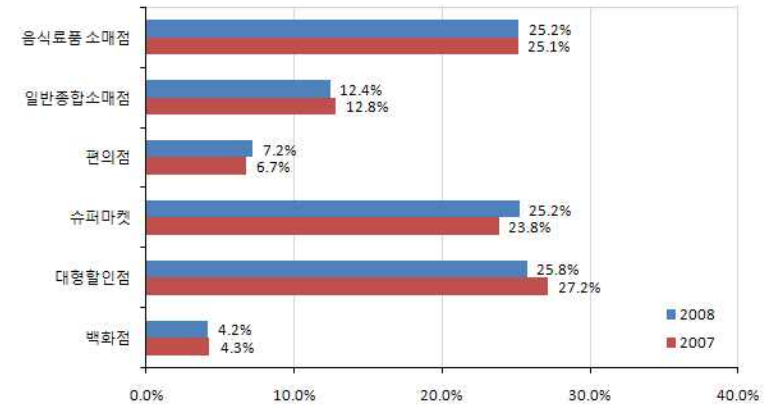
자료: 한국식품연구원

이상의 방법으로 추정된 식품 매출 비중에 통계청의 해당 유통채널의 매출액을 곱하여 '07년과 '08년의 소매유통채널별 식품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08년의 경우 백화점은 총매출 13조 9,740억원의 약 13.2%에 해당하는 1조 8,446억원, 할인점은 총매출 31조 8,780억원의 약 35.6%에 해당하는 11조 3,486억원이 식품 매출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일반종합소매점과 음식료품소매점, 슈퍼마켓의 식품 매출은 각각 5조 4,777억원, 11조 860억원, 11조 1,016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편의점은 3조 1,813억원이 식품 매출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추정된 '08년도의 소매유통업체의 식품매출액은 44조 397억원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된 '07년도 식품매출액 39조 8,265억원과 비교할 때 약 10.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식품소매유통의 채널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08년도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약 25.8%를 대형할인점이 담당하고 있으며 음식료품소매점과 슈퍼마켓은 각각 25.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일반종합소매점으로 식품소매유통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의점은 7.2%,

그리고 백화점은 4.2%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07년도와 비교해 보면 슈퍼마켓과 편의점 및 음식료품소매점의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고 일반종합소매점과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으나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5> 소매유통채널별 식품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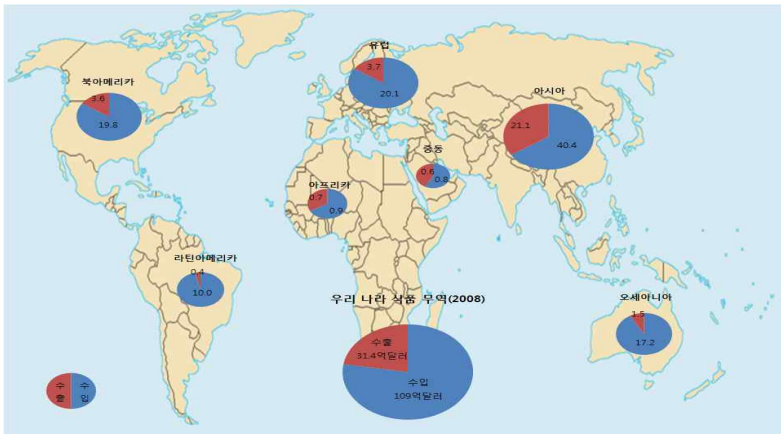
자료: 한국식품연구원 추정

4. 식품수출입

가. 수출입 동향

2008년도 우리 나라 가공식품의 수출은 3,144백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전체 수출액의 67.2%인 21.1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유럽지역이 11.8%인 3.7억 달러, 북아메리카 지역이 11.6%인 3.6억 달러, 오세아니아 지역이 4.9%인 1.5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출대상 지역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대륙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6> 대륙별 우리 나라 식품 무역 현황(2008)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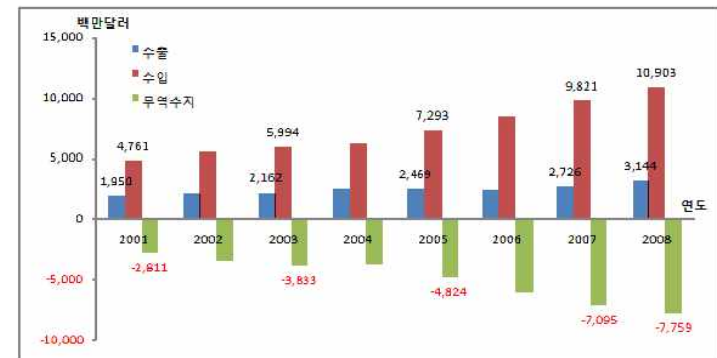
가공식품 수입의 경우 2008년 수입액은 약 109억 달러며 그 중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전체 수입액의 37.1%인 40.4억 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럽지역이 18.4%인 20.1억 달러, 북아메리카 지역이 18.1%인 19.8억 달러, 오세아니아 지역이 15.8%인 17.2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출에 비해서는 대륙별 편중현상이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도 우리 나라 가공식품의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수출 3,144백만 달러, 수입 10,903백만 달러로 약 7,759백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전반에 걸친 단기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된 '01년 이후 '08년 기간 동안의 수출과 수입의 변동 추이를 보면 수출은 '01년 1,950백만 달러에서 '08년 3,144백만 달러로 연평균 7.1% 증가한데 반해 수입은 '01년 4,761백만 달러에서 '08년 10,903백만 달러로 연평균 12.6%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은 연평균 15.6%씩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수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수출의 증가세가 미미한 데 반해 수입의 증가세는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7> 연도별 가공식품 무역수지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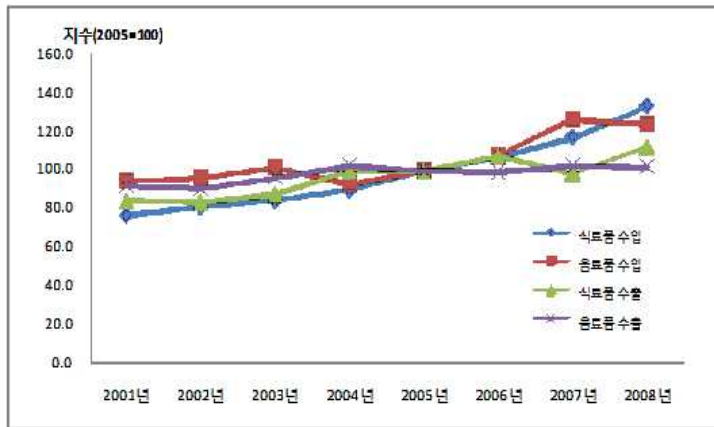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국제수지와 수출채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의 대외교역 조건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01~'08년 기간 동안 수입 식료품의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73.9% 증가하였으나 우리 나라의 식료품 수출 가격은 33.3% 증가하는데 그쳐 식료품의 교역 조건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를 기준으로 한 식료품 수출가격의 높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원화의 대 달러 환율이 1,290.8원에서 1,102.6원으로 14.6% 떨어져 수출단가 상승률을 상쇄시킴으로써 수출 채산성은 변동이 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18> 가공식품의 수출입 물가 변동 추이(미\$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음료품의 경우 식료품에 비해 상황이 더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수입 가격은 '01~'08년 기간 동안 31.7% 증가하였지만 수출가격은 겨우 10.9% 증가하여 수출 채산성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료품 중에서는 식용유지가 243.6%, 유가공품이 141.2%, 식품첨가물이

116.3% 등으로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곡물시장 수급 불안정과 더불어 바이오에너지 원으로서 곡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곡물을 원료로 이용하는 제품의 가격이 동반상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식용유지의 경우에는 바이오디젤유와 원료를 공유하기 때문에 지난 기간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 1-42> 가공식품 수입물가 지수(2005년=100)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음식료품	77.9	85.4	100.0	107.0	117.8	132.8
식료품	76.7	84.2	100.0	106.9	117.2	133.4
육가공	75.7	91.2	100.0	100.2	113.4	118.0
수산가공	83.9	82.8	100.0	106.8	115.6	136.6
과채가공	74.2	92.9	100.0	104.9	110.4	91.2
식용유지	53.9	81.4	100.0	98.4	123.4	185.1
유가공	76.0	73.1	100.0	99.0	125.1	183.4
곡물가공	88.0	92.7	100.0	105.0	114.1	139.1
빵류·과자류	81.0	94.1	100.0	100.9	118.4	131.9
면류	90.2	90.9	100.0	109.7	124.5	149.1
식품첨가물	66.2	75.4	100.0	105.7	126.7	143.2
기타 식품가공	78.9	71.8	100.0	129.5	122.0	131.0
음료품	94.6	101.8	100.0	108.0	126.6	124.6
알코올음료	96.9	103.7	100.0	109.1	129.4	125.9
비알코올음료	69.3	81.7	100.0	95.5	96.3	110.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수출 가격은 곡물가공이 183.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밀가루, 베이커리 제조용 가루반죽, 콘플레이크, 포도당 등 원자재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품목이 많아 원재료 가격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용유지의 경우도 곡물가공과 마찬가지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대두유 제품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등의 요인에 의하여 170.2%의 가격상승률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품가격의 상승은 밀, 옥수수, 커피두 및 대두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도 일부 요인을 찾을 수 있지만 라면, 정제유나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제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부가가치 상품화의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43> 가공식품 수출물가 지수(200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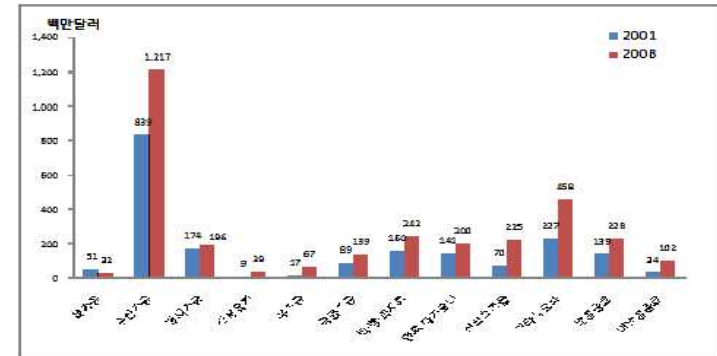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음식료품	77.9	85.4	100.0	107.0	117.8	132.8
식료품	76.7	84.2	100.0	106.9	117.2	133.4
육가공	75.7	91.2	100.0	100.2	113.4	118.0
수산가공	83.9	82.8	100.0	106.8	115.6	136.6
과채가공	74.2	92.9	100.0	104.9	110.4	91.2
식용유지	53.9	81.4	100.0	98.4	123.4	185.1
유가공	76.0	73.1	100.0	99.0	125.1	183.4
곡물가공	88.0	92.7	100.0	105.0	114.1	139.1
빵류·과자류	81.0	94.1	100.0	100.9	118.4	131.9
면류	90.2	90.9	100.0	109.7	124.5	149.1
식품첨가물	66.2	75.4	100.0	105.7	126.7	143.2
기타 식품가공	78.9	71.8	100.0	129.5	122.0	131.0
음료품	94.6	101.8	100.0	108.0	126.6	124.6
알코올음료	96.9	103.7	100.0	109.1	129.4	125.9
비알콜성음료	69.3	81.7	100.0	95.5	96.3	110.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나. 수출입 구조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의 부문별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2,814백만 달러, 음료품이 330백만 달러로 식료품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식료품 중에서는 수산가공품이 전체 수출액의 38.7%인 1,217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떡·빵·과자류가 242백만 달러, 식품첨가물이 225백만 달러, 면류·마카로니제품이 200백만 달러, 과채가공품이 196백만 달러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 수출은 알코올음료가 228백만 달러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주가 124백만 달러로 알코올음료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과즙음료 등의 비알콜성음료는 102백만 달러로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9>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가공 부문을 제외한 수산가공, 유가공, 과채가공, 식용유지, 곡물가공, 떡·빵·과자류, 면류·마카로니, 식품첨가물 및 알코올 부문 등의 2008년도 수출액은

2001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용유지, 유가공, 식품첨가물 및 비알콜음료 부문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옥수수 조유, 참기름,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고추장, 커피크리머, 과즙음료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1-44>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2008)

단위: 백만\$, 톤

순위	품목	금액	수량
1	기타 어류의 피레트(냉동)	142	13,143
2	라면	130	32,193
3	기타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128	285,152
4	소주	124	88,836
5	오징어(냉동)	119	148,963
6	가다랑어, 줄무늬버니토우(냉동)	93	62,852
7	기타 조제식품	88	48,344
8	김치(비냉동)	85	26,897
9	커피크리머	83	42,049
10	황다랑어(냉동)	73	32,250
11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냉동)	64	7,594
12	비스킷,쿠키 및 크레커	58	12,635
13	기타 설탕과자	57	36,709
14	기타 커피기계 조제품(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52	8,826
15	기타 어류(냉동)	51	34,388
16	조제 김	48	6,012
17	마요네즈	47	21,572
18	맥주	43	74,467
19	계살(기타)	43	4,776
20	홍삼 본삼	41	108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특히 최근 3년간(2006~2008년) 식품수출동향 특징을 보면 채소주스, 유자조제 품 및 김치 등의 수출증가에 힘입은 과채가공품과 막걸리를 포함한 곡물발효주 등의 알코올음료의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식품 수출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기타 어류의 피레트'가 1억 4천 2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라면으로서 1억 3천만 달러, '기타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이 1억 2천 8백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단일 품목으로서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품목은 라면, 소주, 냉동 오징어 3가지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미만을 수출하는 품목을 보면 냉동 가다랑어, 냉동 황다랑어, 냉동 눈다랑어, 김치, 커피크리머,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등 10개 품목이다.

우리 나라 식품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라면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으로 '05년 12,566천 달러에서 '08년 29,083천 달러로 3년 동안에 131% 증가하였으며 전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2%에서 22.5%로 증가하여 단일국가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인데 '05년에 비해 수출액 및 비중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이다.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서 '05년 14,527천 달러에서 '08년 19,542천 달러로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서 호주, 러시아연방, 캐나다,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단일 품목으로는 두 번째 수출이 많은 소주의 경우 2008년도 기준 전체 수출의 82%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5년에 비해서는 수출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서 7.2%,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이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둘 두 국가의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05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표 1-45> 라면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천\$, %

	2005	2006	2007	2008
중 국	12,566(9.2)	14,936(14.6)	24,868(21.5)	29,083(22.5)
미 국	37,784(27.8)	20,185(19.7)	19,569(16.9)	19,996(15.4)
일 본	14,527(10.7)	18,798(18.3)	15,850(13.7)	19,542(15.1)
호 주	7,104(5.2)	6,038(5.9)	6,671(5.8)	8,388(6.5)
러시아 연방	20,785(15.3)	3,179(3.1)	4,797(4.1)	6,261(4.8)
캐나다	8,070(5.9)	4,680(4.6)	3,947(3.4)	4,000(3.1)
대 만	2,099(1.5)	2,174(2.1)	2,595(2.2)	3,664(2.8)
말레이시아	4,495(3.3)	3,886(3.8)	3,510(3.0)	3,078(2.4)
기 타	28,449(20.9)	28,759(28.0)	33,858(29.3)	35,504(27.4)
합 계	135,880(100.0)	102,635(100.0)	115,665(100.0)	129,518(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표 1-46> 소주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천\$, %

	2005	2006	2007	2008
일 본	103,417(89.0)	102,793(86.6)	90,432(80.5)	101,749(82.0)
미 국	6,987(6.0)	8,095(6.8)	10,257(9.1)	8,936(7.2)
중 국	2,430(2.1)	3,913(3.3)	6,531(5.8)	7,590(6.1)
필리핀	423(0.4)	641(0.5)	938(0.8)	1,021(0.8)
호 주	291(0.3)	423(0.4)	624(0.6)	957(0.8)
베트남	321(0.3)	324(0.3)	589(0.5)	580(0.5)
캐나다	330(0.3)	340(0.3)	481(0.4)	521(0.4)
기 타	2,045(1.8)	2,173(1.8)	2,507(2.2)	2,752(2.2)
합 계	116,246(100.0)	118,703(100.0)	112,359(100.0)	124,108(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표 1-47> 커피크리머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천\$, %

	2005	2006	2007	2008
인도네시아	14,094(26.5)	17,050(29.9)	13,903(20.2)	26,626(32.1)
러시아연방	22,307(42.0)	20,174(35.4)	28,858(42.0)	25,764(31.0)
카자흐	4,038(7.6)	5,406(9.5)	7,270(10.6)	11,494(13.8)
싱가포르	5,175(9.7)	4,974(8.7)	6,029(8.8)	6,245(7.5)
대 만	3,808(7.2)	5,202(9.1)	4,751(6.9)	3,617(4.4)
키르기스	401(0.8)	1,273(2.2)	2,378(3.5)	3,063(3.7)
베트남	0	0	2,160(3.1)	2,471(3.0)
몽 골	457(0.9)	910(1.6)	1,370(2.0)	2,006(2.4)
기 타	2,849(5.4)	1,954(3.4)	2,047(3.0)	1,790(2.2)
합 계	53,129(100.0)	56,943(100.0)	68,765(100.0)	83,076(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2008년도 우리 나라 식품 수출의 단일 품목으로서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커피크리머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26,626천 달러로 전체 수출의 32.1%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러시아연방국가로의 수출이 25,764천 달러로서 31.0%, 카자흐스탄이 11,494천 달러로 13.8%의 비중을 기록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이 '05년 이후 약 185%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콩 발효제품인 장류의 수출은 2001년 약 1,400만 달러에서 연평균 14.9% 증가하여 2007년에는 약 3천 2백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08년에는 약간 감소한 3천만 달러 정도이다. 장류의 수출 증가는 한류의 영향 등으로 인한 한국음식 또는 한국풍의 음식문화 확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품목별 수출비중은 간장이 전체 장류의 38.8%인 1천 2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추장이 31%인 9.3백만 달러, 된장이 30%인 9.1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8> 장류 수출 현황

단위: 천\$, %

	2001	2003	2005	2007	2008
합 계	13,886(100.0)	17,615(100.0)	27,590(100.0)	31,955(100.0)	30,235(100.0)
고추장	7,391(53.2)	7,869(44.7)	12,005(43.5)	11,105(34.7)	9,358(31.0)
간장	3,990(28.8)	5,659(32.1)	7,460(27.1)	10,681(33.4)	11,717(38.8)
된장	2,504(18.0)	4,074(23.1)	7,759(28.1)	10,147(31.8)	9,080(30.0)
메주	-	12(0.1)	366(1.3)	22(0.1)	80(0.2)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장류 중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간장의 수출현황을 보면 2005년 7.5백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11.7백만 달러로 연평균 16.2%의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2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연방 17.7%, 중국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추장의 수출실적을 보면 2005년 12백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9.4백만 달러로 연평균 8%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캐나다, 일본, 미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 기준 국가별 수출비중을 보면 미국이 4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24.8%, 중국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된장의 경우 2005년 7.8백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9.1백만 달러로 연평균 5.4%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4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국 12.7%, 일본 7.1%, 캐나다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9> 간장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천\$, %

	2005	2006	2007	2008
미 국	1,347(18.1)	2,247(24.5)	2,227(20.8)	2,672(22.8)
러시아 연방	1,887(25.3)	2,475(27.0)	1,393(13.0)	2,073(17.7)
중 국	1,698(22.8)	1,620(17.6)	2,865(26.8)	1,888(16.1)
일 본	442(5.9)	284(3.1)	267(2.5)	854(7.3)
필리핀	367(4.9)	765(8.3)	1,090(10.2)	808(6.9)
호 주	189(2.5)	289(3.1)	382(3.6)	446(3.8)
사우디아라비아	211(2.8)	229(2.5)	283(2.6)	391(3.3)
캐나다	284(3.8)	198(2.2)	350(3.3)	354(3.0)
기 타	1,034(13.9)	1,077(11.7)	1,825(17.1)	2,231(19.0)
합 계	7,460(100.0)	9,184(100.0)	10,681(100.0)	11,717(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표 1-50> 고추장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천\$, %

	2005	2006	2007	2008
미 국	4,477(37.3)	4,446(39.2)	3,922(35.3)	3,856(41.2)
일 본	4,067(33.9)	3,222(28.4)	3,368(30.3)	2,324(24.8)
중 국	747(6.2)	573(5.0)	1,224(11.0)	1,077(11.5)
대 만	247(2.1)	421(3.7)	301(2.7)	270(2.9)
캐나다	453(3.8)	314(2.8)	315(2.8)	245(2.6)
필리핀	241(2.0)	207(1.8)	272(2.4)	236(2.5)
기 타	1,773(14.8)	2,167(19.1)	1,705(15.3)	1,349(14.4)
합 계	12,005(100.0)	11,350(100.0)	11,105(100.0)	9,358(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표 1-51> 원장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천\$, %

	2005	2006	2007	2008
미 국	2,664(34.3)	4,086(45.7)	3,600(35.5)	4,179(46.0)
중 국	3,070(39.6)	1,250(14.0)	2,064(20.3)	1,150(12.7)
일 본	391(5.0)	745(8.3)	705(6.9)	643(7.1)
캐나다	217(2.8)	470(5.3)	550(5.4)	462(5.1)
호 주	293(3.8)	466(5.2)	663(6.5)	355(3.9)
인도네시아	144(1.9)	94(1.0)	384(3.8)	318(3.5)
기 타	980(12.6)	1,835(20.5)	2,180(21.5)	1,972(21.7)
합 계	7,759(100.0)	8,945(100.0)	10,147(100.0)	9,080(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인삼가공식품의 수출현황을 보면 '90년 148백만 달러까지 수출되었으나 중국산 및 서양 화기삼의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01년 69백만 달러, '03년 58백만 달러까지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그 후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 등으로 인하여 '08년에는 약 89백만 달러의 수출실적으로 기록하였으며 '01년 기준으로 연평균 6.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수출 비중은 홍삼이 전체 수출금액의 약 4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홍삼의 수출단가가 '08년의 경우 kg당 약 365달러에 달하는 등 수출단가가 상당히 높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홍삼가공품 23.2%, 백삼가공품 26.1%, 백삼 3.9% 순으로 나타났는데 백삼의 경우 수출단가는 높는데 반해 수출물량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수출비중은 낮았다.

인삼가공품의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을 보면 백삼과 홍삼은 홍콩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본, 중국 등의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이 홍콩으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것은 한국인삼공사의 우회수

출 증가에 따른 홍삼의 수출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여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2> 인삼가공식품 수출현황

단위: 천\$, %

	2001	2003	2005	2007	2008
합 계	69,438(100.0)	58,442(100.0)	74,974(100.0)	86,000(100.0)	88,861(100.0)
백 삼	4,586(6.6)	2,591(4.4)	3,699(4.9)	4,695(5.5)	3,435(3.9)
백삼가공품	21,090(30.4)	22,385(38.3)	24,949(33.3)	24,841(28.9)	23,192(26.1)
홍 삼	31,977(46.1)	22,177(37.9)	32,205(43.0)	36,554(42.5)	41,574(46.8)
홍삼가공품	11,784(16.9)	11,289(19.4)	14,121(18.8)	19,910(23.1)	20,660(23.2)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1-53> 백삼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천\$, %

	2005	2006	2007	2008
홍콩	2,240(60.6)	3,191(72.6)	3,105(66.1)	1,228(35.7)
대만	553(15.0)	736(16.7)	340(7.2)	1,108(32.3)
중국	-	64(1.5)	3(0.1)	461(13.4)
이탈리아	114(3.1)	130(3.0)	-	376(11.0)
기타	792(21.4)	275(6.3)	1,247(26.6)	262(7.6)
합계	3,699(100.0)	4,397(100.0)	4,695(100.0)	3,435(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표 1-54> 홍삼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천\$, %

	2005	2006	2007	2008
홍콩	18,461(57.3)	15,266(44.3)	16,935(46.3)	28,664(68.9)
대만	6,728(20.9)	11,592(33.6)	15,105(41.3)	9,248(22.2)
중국	4,133(12.8)	5,512(16.0)	2,752(7.5)	2,049(4.9)
싱가포르	292(0.9)	304(0.9)	589(1.6)	943(2.3)
기타	2,592(8.0)	1,820(5.3)	1,173(3.2)	669(1.6)
합계	32,205(100.0)	34,495(100.0)	36,554(100.0)	41,574(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2008년도 백삼가공품의 국가별 수출을 보면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이 5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미국, 중국 등의 순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5> 백삼가공품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천\$, %

	2005	2006	2007	2008
일본	14,805(59.3)	14,339(56.8)	12,494(50.3)	12,330(53.2)
베트남	2,702(10.8)	2,528(10.0)	4,325(17.4)	3,112(13.4)
미국	2,093(8.4)	1,989(7.9)	1,917(7.7)	2,082(9.0)
중국	428(1.7)	1,227(4.9)	400(1.6)	1,299(5.6)
기타	4,921(19.7)	5,172(20.5)	5,705(23.0)	4,369(18.8)
합계	24,949(100.0)	25,254(100.0)	24,841(100.0)	23,192(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홍삼가공품의 경우에도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이 가장 크지만 계속해서 그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반면 미국,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대만과 지속적인 TV홍보 등으로 인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신흥유망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으로의 인삼엑기스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6> 홍삼가공품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천\$, %

	2005	2006	2007	2008
일본	8,265(58.5)	12,032(59.1)	10,479(52.6)	7,749(37.5)
미국	3,302(23.4)	4,309(21.2)	4,415(22.2)	4,945(23.9)
중국	142(1.0)	241(1.2)	310(1.6)	2,835(13.7)
베트남	325(2.3)	567(2.8)	910(4.6)	1,063(5.1)
대만	429(3.0)	707(3.5)	890(4.5)	1,018(4.9)
기타	1,657(11.7)	2,503(12.3)	2,906(14.6)	3,050(14.8)
합계	14,121(100.0)	20,359(100.0)	19,910(100.0)	20,660(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김치의 경우 '08년 8천 5백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국가별 수출실적을 보면 일본으로의 수출이 88.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본으로의 김치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소비자들의 김치열풍에 힘입은 바가 크고 그 결과 2004년에는 103백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그 후 일본 자국내에서 김치제조 증가, 수입선의 대중국 전환, 원화절상 등의 요인이 겹쳐 2006년에는 2004년의 7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07년 하반기 일본의 유명식품업체인 에바라식품의 김치시장 진출로 인한 국내OEM업체들의 수출실적이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1-57> 김치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천\$, %

	2005	2006	2007	2008
일 본	86,428(93.0)	62,637(89.1)	66,120(87.8)	75,052(88.0)
미 국	1,213(1.3)	1,801(2.6)	2,375(3.2)	2,061(2.4)
대 만	1,470(1.6)	1,625(2.3)	1,872(2.5)	1,962(2.3)
홍 콩	798(0.9)	779(1.1)	1,162(1.5)	1,305(1.5)
기 타	3,055(3.3)	3,486(5.0)	3,780(5.0)	4,915(3.3)
합 계	92,964(100.0)	70,328(100.0)	75,309(100.0)	85,295(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조제 김의 수출은 2005년 35.9백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47.6백만 달러로 연평균 9.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연방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8> 조제김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천\$, %

	2005	2006	2007	2008
미 국	14,391(40.1)	13,647(39.6)	13,851(37.1)	16,001(33.6)
일 본	9,619(26.8)	8,804(25.6)	10,175(27.2)	12,375(26.0)
중 국	1,297(3.6)	1,008(2.9)	2,201(5.9)	3,798(8.0)
대 만	2,703(7.5)	2,511(7.3)	2,397(6.4)	2,875(6.0)
캐나다	1,580(4.4)	1,611(4.7)	1,349(3.6)	2,314(4.9)
호 주	1,148(3.2)	893(2.6)	875(2.3)	1,516(3.2)
러시아 연방	482(1.3)	821(2.4)	899(2.4)	1,351(2.8)
기 타	4,680(13.0)	5,134(14.9)	5,604(15.0)	7,389(15.5)
합 계	35,900(100.0)	34,429(100.0)	37,351(100.0)	47,619(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2008년 기준 국가별 수출비중을 보면 미국 33.6%, 일본 26.0%로 미국과 일본 양국가로 수출이 전체 조제김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대만, 캐나다, 호주 등의 순이다.

천일염의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최근 4년간 수출실적을 보면 '05년 751천 달러에서 '08년 399천 달러로 연평균 19.1%의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미국, 일본이 각각 연평균 44.8%, 4.5%씩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1-59> 천일염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단위: 천\$, %

	2005	2006	2007	2008
일본	129(17.2)	86(14.7)	76(14.3)	112(28.1)
미국	336(44.8)	241(41.0)	144(27.1)	57(14.2)
아이슬란드	-	-	-	55(13.8)
중국	2(0.2)	74(12.6)	-	33(8.3)
캐나다	12(1.6)	14(2.4)	20(3.7)	29(7.2)
호주	10(1.3)	19(3.2)	123(23.1)	26(6.5)
사우디아라비아	-	-	-	25(6.3)
마셜군도	-	-	50(9.3)	25(6.2)
아일랜드	-	-	-	14(3.5)
기타	262(34.9)	153(26.1)	121(22.7)	23(5.9)
합계	751(100.0)	587(100.0)	534(100.0)	399(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2005년도 이후 최근 4년간의 탁주 수출실적을 보면 '05년 2,166천 달러에서 '08년 4,422천 달러로 연평균 26.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수출액의 91.0%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5.4%를 차지하고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산 막걸리인 '니고리자케'가 알코올도수 14~16도 정

도로 독한 맛에 비하여 우리 나라 막걸리는 6~8도 정도로 부드럽고 유산균이 풍부하여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0> 탁주 국가별 수출 비중 추이

단위: 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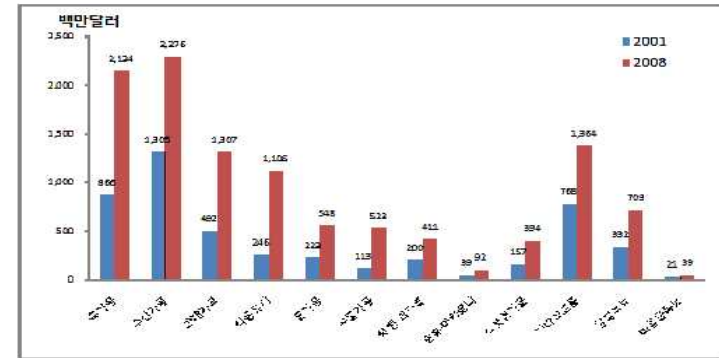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일본	1,988(91.8)	2,243(89.5)	2,632(90.6)	4,026(91.0)
미국	145(6.7)	180(7.2)	183(6.3)	197(4.5)
싱가포르	1(0.0)	1(0.0)	5(0.2)	90(2.0)
베트남	4(0.2)	19(0.8)	14(0.5)	35(0.8)
중국	-	22(0.9)	14(0.5)	25(0.6)
호주	11(0.5)	18(0.7)	20(0.7)	19(0.4)
태국	8(0.4)	4(0.1)	4(0.1)	10(0.2)
기타	10(0.5)	19(0.8)	33(1.1)	21(0.5)
합계	2,166(100.0)	2,505(100.0)	2,905(100.0)	4,422(100.0)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www.kctdi.or.kr)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10,154백만 달러, 음료품이 748백만 달러로 식료품이 9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중에서는 수산가공품이 전체 수입액의 20.9%인 2,275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육가공품이 19.6%인 2,133백만 달러로 두 부분의 수입이 전체 식료품 수입의 4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수산가공품은 명태, 조기, 낙지, 새우살, 아귀 등의 수산동물 냉동품, 어류 피레트와 연육제품, 새우와 보리 새우의 훈제제품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동물 냉동품은 국내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육가공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은 알코올음료 709백만 달러, 비알콜음료 39백만 달러로 알코올음료가 9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위스키 259백만 달러, 포도주 167

백만 달러로 이 두 가지 품목의 수입이 전체 음료품 수입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0>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동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연평균 수입증가율을 보면 곡물가공품과 식용유지가 각각 24.5%, 23.9%로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곡물가공품은 감자 및 고구마 전분, 당류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며 식용유지는 대두유, 야자유, 팜유 및 올리브유 등의 수입이 급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6년 이후 2008년까지 최근 3년간의 수입동향을 보면 육가공품 및 수산가공품의 수입증가세는 감소추세인 반면 면류·마카로니, 식품첨가물 및 알코올음료의 수입증가율이 상승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도 식품 수입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사탕수수당이 503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쇠고기의 경우 쇠고기 지육 및 정육, 냉장 및 냉동제품을 포함할 경우 919백만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있어 단일품목으로는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삼겹살(냉동)이 342 백만 달러로 네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품목기준으로 상위 10개 품목에 쇠고기 및 돼지고기 품목이 5개로 절반을 차지하여 육류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61>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2008)

단위: 백만\$, 톤

순위	품목	금액	수량
1	사탕수수당(향미,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것:당도 98.5도 초과)	503	1,547,155
2	쇠고기(뼈없는것 : 냉동)	470	110,568
3	기타돼지고기(냉동)	403	210,927
4	삼겹살(냉동)	342	95,039
5	쇠고기(뼈채 절단 : 냉동)	257	68,120
6	스카치 위스키	253	22,100
7	기타 조제식료품	252	36,482
8	커피(안볶은 것;카페인 비제거)	249	97,039
9	대두유 조유(식품용)	247	204,426
10	쇠고기(뼈없는것 : 신선, 냉장)	192	25,962
11	명태(냉동)	177	171,691
12	메현미	162	261,414
13	매니옥 펠리트(건조)	160	718,850
14	조기(냉동)	144	43,068
15	기타어류의 연육(냉동)	141	88,674
16	기타 팜유	140	119,555
17	붉은 포도주(2이하)	124	18,771
18	천일염	122	2,871,487
19	기타 새우와 보리새우(새우살 이외;냉동)	116	20,007
20	김치(비냉동)	113	222,37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 밖에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는 스카치위스키, 커피, 대두유, 포도주, 명태, 조기, 천일염, 김치(비냉동) 등이다. 특히 비냉동 김치의 경우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입액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식품무역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수출의 약 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가공품 수출 품목의 경우 냉동 오징어, 냉동 다랑어 등 냉동수산물 위주의 수출단가가 낮은 단순가공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08년도 수출품목 평균단가는 kg당 1.83\$로 나타났는데 '06~'07년의 경우 수출단가가 약 1.6\$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조금 상승하였으나 이는 환율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진국들의 수출품목 kg당 평균단가를 보면 영국 3.01\$, 일본 3.17\$, 덴마크 2.97\$, 프랑스 2.12\$, 네델란드 2.05\$로 상대적으로 수출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과 일본의 수출품목의 수출단가가 높은 이유는 영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스카치위스키, 일본은 소스류, 제과류 등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2> 주요 국가의 식품수출 평균단가 비교

단위: \$/kg

	한국	네델란드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일본
2008년	1.83	2.05	2.12	2.97	1.83	3.01	3.17

자료: WITS

두 번째는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단일 품목은 라면, 소주, 오징어(냉동) 3가지 정도에 불과하고 5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도 1억 달러 이상 품목에 김치, 커피크리머, 황다랑어(냉동), 눈다랑어(냉동) 및 비스킷, 쿠키 및 크랙커가 추가되는데 그쳐 전반적으로 주요 수출품목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수출대상 국가가 우리 나라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과 미국시장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5. 식품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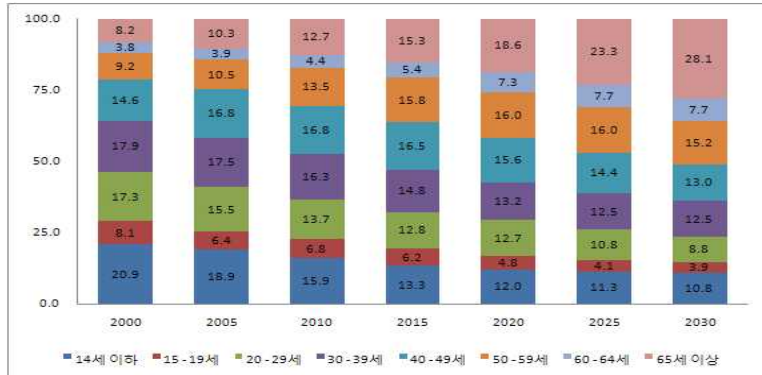
소비자들의 식품소비지출 패턴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인구구성 분포도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21>은 연령별 추계인구 분포를 14세 이하,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구분하여 구성비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림에서 보듯이 14세 이하의 어린이 비율은 '00년 20.9%에서 '10년 15.9%, '20년 12.0%, '30년 10.8%로 연평균 2.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15-19세까지의 인구비율도 '00년 8.1%에서 '10년 6.8%, '20년 4.8%, '30년 3.9%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0대, 30대 및 40대 이하 인구구성 비율도 같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구성비율은 '00년 8.2%에서 '10년 12.7%, '20년 18.6%, '30년에는 28.1%로 '00년 기준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5년에 65세 이상 인구구성 비율이 15.3%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추계인구를 통해서 나타난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어린이 인구구성 비율이 감소하고 고령인구 구성비율의 증가는 식품소비지출 패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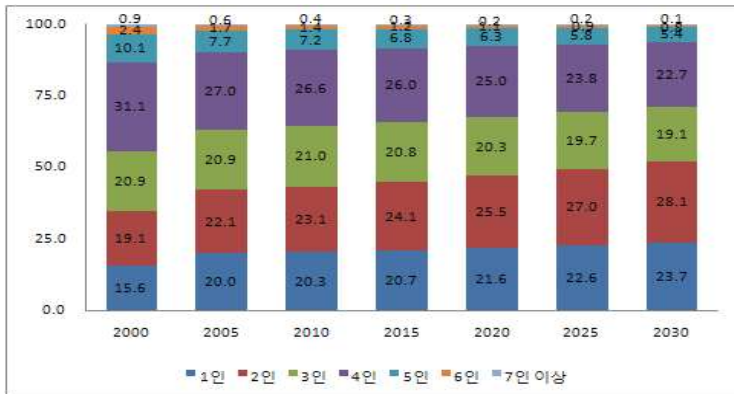
한편 가구구성 가구원수별 추계인구 구성비율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00년 15.6%에서 '10년 20.3%, '20년 21.6%, '30년 23.7%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인 가구의 경우에도 '00년 19.1%에서 '10년 23.1%, '20년 25.6%, '30년 28.1%로 구성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2030년에는 1인 및 2인가구 구성비율의 합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인 가구의 구성 비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4인 이상의 가구 구성 비율은 이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1~2인 가구의 구성 비율 증가는 식품의 소량구매, 그에 따른 식품의 포장단위 소형으로 변경 등 식품소비와 관련하여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1> 연령별 추계인구 구성 비율 추이



<그림 1-22> 가구구성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구성변화 추이



우리 나라 전국 2인 이상 전가구의 '08년도 월평균 가계지출은 2,719천원이며 이중 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의 비소비성 지출 약 603천원을 제외한 2,116천원이 소비지출로 사용되었으며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8%로 나타났다.

'08년도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보면 식료품, 주류 및 식사비를 포함하는 식료품비가 2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비 12.8%, 교통비 12.4%, 수도 및 광열비 9.7%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비 및 통신비의 지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3> 전국 전가구 월평균 가구당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단위: 원, %

항목별	2003		2005		2008		증가율 (08/0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가계지출	2,146,888		2,366,405		2,719,008		26.6
소비지출	1,700,015	100.0	1,871,861	100.0	2,116,101	100.0	24.5
음식료품비	490,963	28.9	534,064	28.5	587,371	27.8	19.6
식료품 및 음료	255,079	15.0	273,462	14.6	298,512	14.1	17.0
주류	6,359	0.4	7,039	0.4	8,002	0.4	25.8
식사비(외식)	229,525	13.5	253,563	13.5	280,857	13.3	22.4
담배	16,653	1.0	21,379	1.1	20,377	1.0	22.4
의류 및 신발	112,646	6.6	118,787	6.3	131,426	6.2	16.7
주거 및 수도광열	168,153	9.9	183,493	9.8	205,241	9.7	22.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58,937	3.5	66,975	3.6	73,631	3.5	24.9
보건	98,102	5.8	111,375	5.9	130,782	6.2	33.3
교통	198,399	11.7	225,376	12.0	262,369	12.4	32.2
통신	125,530	7.4	131,342	7.0	134,182	6.3	6.9
오락·문화	99,522	5.9	101,161	5.4	109,314	5.2	9.8
교육	187,298	11.0	211,805	11.3	271,440	12.8	44.9
숙박비	4,328	0.3	4,972	0.3	5,950	0.3	37.5
기타상품 및 서비스	139,484	8.2	161,129	8.6	184,017	8.7	31.9
비소비지출	446,873		494,544		602,907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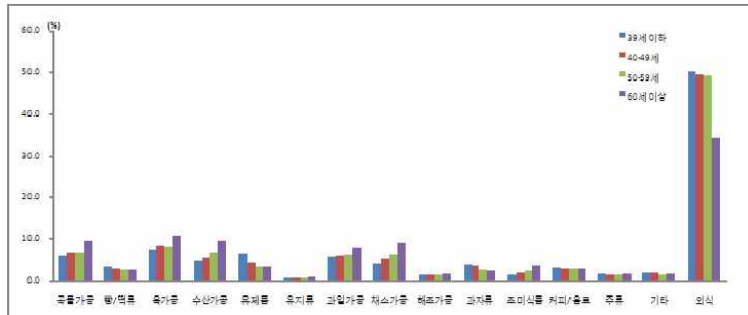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03~'08년 기간 동안 가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계지출은 26.6%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의 비소비성 지출이 34.9%로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소비지출의 실질 증가율은 6.6%였으나 음식료품비의 실질 지출증가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비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이렇게 낮게 나타난 이유는 엔겔계수가 감소하는 현상도 있겠지만 가계소비지출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의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소비에서 지출 비중이 높은 교육비, 교통비가 각각 44.9%, 32.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출 비중은 높지 않지만 보건의료비, 숙박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음식료품비를 증가시킬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23>은 2008년도 2인 이상 전국 전가구 가구주 연령계층별에 따른 음식료품비 지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23> 전국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음식료품비 구성비 추이(2인 이상)(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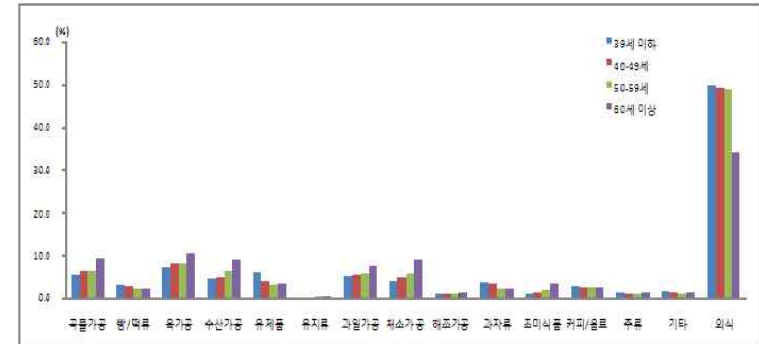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이 그림은 가구주의 연령계층에 따라 단순하게 가구를 구분하고 있지만 소득의 차이는 물론 아이들의 연령이나 기호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곡류 및 곡물가공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수산동물 및 수산가공품,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조미식품 비목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구성비가 크다.

반면 빵 및 떡류, 유제품 및 알, 당류 및 과자류, 커피/음료/주류, 외식 등의 비목은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에 따른 식품의 기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인구구성의 변화가 식품소비지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도 2인 이상 도시 전가구의 연령별에 따른 음식료품비 지출 구성비 추이를 보면 곡류 및 곡물가공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수산동물 및 수산가공품,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조미식품 비목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구성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4> 도시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음식료품비 구성비 추이(2인 이상)(2008)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가계동향조사」

반면 빵 및 떡류, 유제품 및 알, 당류 및 과자류, 커피/음료/주류, 외식 등의 비목은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 전가구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식품의 기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인구구성의 변화가 식품소비지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인 이상 전국 전가구의 부문별 음식료품비 부문별 지출현황을 보면 신선식품의 경우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년 33.1%에서 '08년에는 30.5%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가정에서의 조리가 가공식품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은 '03년 15.1%에서 '08년에는 17.1%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식부문은 전체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03년 45.1%에서 '08년 45.2%로 정체 상태이며 '07년과 비교할 경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1-64> 전국 전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부문별 지출 및 앵겔계수(2인 이상)

단위: 원, %

구 분	2003		2005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03~08)
	원	%	원	%	원	%	원	%	
신선식품	171,126	33.1	170,808	31.3	172,504	30.7	180,471	30.5	1.1
가공식품	78,050	15.1	91,653	16.8	92,475	16.4	101,352	17.1	5.4
음료/주류	21,310	4.1	22,374	4.1	22,804	4.1	24,389	4.1	2.7
외식	233,097	45.1	246,857	45.2	258,044	45.9	267,397	45.2	2.8
기타	13,439	2.6	14,050	2.6	16,966	3.0	18,597	3.1	6.7
합계	517,020	100.0	545,742	100.0	562,793	100.0	592,206	100.0	2.8

자료: 통계청, 「2008가계조사 원자료CD」, 2009

반면 건강과 관련한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기타식품의 지출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겔계수는 '03년 28.9%에서 '08년 27.8%로 감소하였고 음식료품

비 지출액은 '03년 517,020원에서 '08년 592,206원으로 연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인 이상 도시 전가구의 부문별 음식료품비 지출현황을 보면 음식료품비 지출액은 '03년 545,356원에서 '08년에는 615,167원으로 연평균 2.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음식료품비 지출비중을 보면 신선식품은 '03년 31.7%에서 '08년에는 30.0%로 감소하였고 가공식품은 '03년 14.7%에서 '08년 17.0%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건강기능성이 포함된 기타식품의 비중이 연평균 10.3%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식부문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 등 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외식비 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전국 전가구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65> 도시 전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부문별 지출 및 앵겔계수(2인 이상)

단위: 원, %

구 분	2003		2005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03~08)
	원	%	원	%	원	%	원	%	
신선식품	172,803	31.7	172,471	30.9	147,856	26.8	184,730	30.0	1.3
가공식품	80,062	14.7	93,168	16.7	94,439	17.1	104,363	17.0	5.4
음료/주류	21,671	4.0	22,516	4.0	23,176	4.2	24,997	4.1	2.9
외식	259,087	47.5	255,842	45.8	268,081	48.7	281,903	45.8	1.7
기타	11,733	2.2	14,314	2.6	17,309	3.1	19,174	3.1	10.3
합계	545,356	100.0	558,310	100.0	550,861	100.0	615,167	100.0	2.4

자료: 통계청, 「2008가계조사 원자료CD」, 2009

2인 이상 전국 전가구의 소득수준별 음식료품비 지출현황을 보면 500만원 이상 소득수준 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22.1%인 854,093원을 음식료품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300-4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37,910원을 음식료품비로 지출하여

엔겔계수가 26.3%,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95,349원을 음식료품비로 지출하여 엔겔계수가 29.5%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엔겔계수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외식비 지출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36,878원, 월 평균소득 300-4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05,191원,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76,023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51.2%, 300-400만원 미만인 가구가 47.8%로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평균보다 낮았으며 특히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5.7%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66> 전국 전가구 소득수준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인 이상)(2008)

단위: 원,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평균
소득	552,428	1,516,217	2,470,536	3,448,500	4,441,215	7,380,309	3,369,515
소비지출(A)	1,001,142	1,453,470	1,948,842	2,426,057	2,843,644	3,863,768	2,290,196
음식료품비(B)	295,349	414,086	534,957	637,910	716,681	854,093	584,915
외식비(C)	76,023	155,087	236,055	305,191	357,934	436,878	267,397
엔겔계수(B/A)	29.5	28.5	27.4	26.3	25.2	22.1	25.5
외식비중(C/B)	25.7	37.5	44.1	47.8	49.9	51.2	45.7

자료: 통계청, 「2008가계조사 원자료CD」, 2009

도시 전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식품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가구당 868,433원을 음식료품비로 지출하고 월 평균소득 300-4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49,591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17,90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엔겔계수는 22.3%인 반면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9.5%로 나타났다.

<표 1-67> 도시 전가구 소득수준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인 이상)(2008)

단위: 원,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만원 이상	평균
소득	545,178	1,522,388	2,468,415	3,449,456	4,437,629	7,394,968	3,489,991
소비지출(A)	1,076,781	1,476,325	1,956,830	2,463,721	2,885,188	3,898,180	2,372,659
음식료품비(B)	317,905	425,147	542,438	649,591	731,206	868,433	607,512
외식비(C)	85,736	162,091	241,224	313,233	366,407	447,514	281,903
엔겔계수(B/A)	29.5	28.8	27.7	26.4	25.3	22.3	25.6
외식비중(C/B)	27.0	38.1	44.5	48.2	50.1	51.5	46.4

자료: 통계청, 「2008가계조사 원자료CD」, 2009

외식비 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는 447,514원을 지출하고, 월 평균소득 300-400만원 미만인 가구는 313,233원을 지출하였으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85,736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비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7.0%로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나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는 외식비중이 51.5%로 절반을 넘게 외식에 지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비지출의 절반 정도를 외식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가구의 가구주 연령별에 따른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계수를 보면 가구주 연령이 30-49세인 가구에서 가장 낮고, 50세 이상 가구에서 엔겔계수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비 지출은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인 가구가 음식료품비의 53.5%를 외식에 지출하고 있어 가장 높고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가 음식료품비의 31.6%를 외식에 지출하여 평균치인 45.7%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30세 이상 5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평균치보다 높은 금액을 외식에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30-40대에서 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8> 전국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지출(2인이상)(2008)
단위: 원, %

구 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평균
소득	2,721,477	3,624,848	3,697,537	3,757,508	2,131,740	3,369,515
소비지출(A)	1,872,114	2,382,089	2,603,446	2,404,582	1,559,249	2,290,196
음식료품비(B)	474,235	590,973	644,977	617,504	454,095	584,915
외식비(C)	253,537	284,113	310,377	291,468	143,313	267,397
엔겔계수(B/A)	25.3	24.8	24.8	25.7	29.1	25.5
외식비중(C/B)	53.5	48.1	48.1	47.2	31.6	45.7

자료: 통계청, 「2008가계조사 원자료CD」, 2009

또한 도시 전가구의 가구주 연령별에 따른 음식료품비 지출현황을 보면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계수가 가구주 연령이

40-49세인 가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가구에서 엔겔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비 지출은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인 가구가 음식료품비의 54.5%를 외식에 지출하고 있어 가장 높고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가 음식료품비의 32.8%를 외식에 지출하여 평균치인 46.4%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30세 이상 5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평균치보다 높은 금액을 외식에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40대에서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9> 도시 전가구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지출(2인이상)(2008)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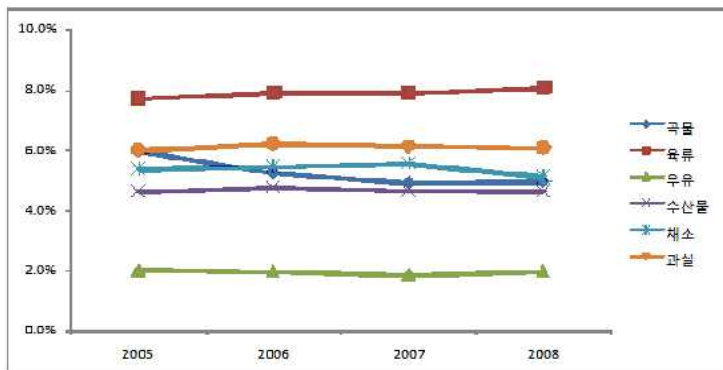
구 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평균
소득	2,730,660	3,693,097	3,798,159	3,907,734	2,266,388	3,489,991
소비지출(A)	1,860,858	2,412,980	2,701,130	2,484,800	1,655,894	2,372,659
음식료품비(B)	474,526	599,911	667,431	645,340	485,920	607,512
외식비(C)	258,387	290,306	324,060	309,746	159,348	281,903
엔겔계수(B/A)	25.5	24.9	24.7	26.0	29.3	25.6
외식비중(C/B)	54.5	48.4	48.6	48.0	32.8	46.4

자료: 통계청, 「2008가계조사 원자료CD」, 2009

한편 2005~2008년 동안의 전국 전가구 음식료품비 지출액을 신선식품,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세부항목별로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지출 구성비 추이를 살펴 보면 신선식품의 경우 쌀, 보리쌀 등 곡물은 '05년 6.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하여 '07년에는 4.9%로 떨어졌다가 '08년에는 다시 5.0%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쌀 소비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육류는 신선식품 중에서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가장 크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유의 경우 음식료품비 지출 비중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및 과실은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각각 4.6%, 6.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채소는 '07년까지는 증가하다가 '08년에 들어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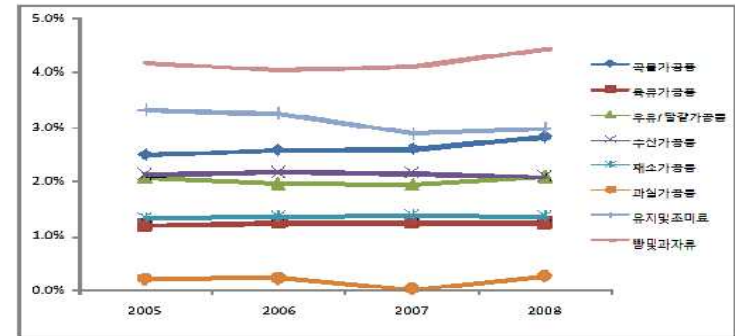
<그림 1-25> 전국 전가구 가구당 신선식품 지출 구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 「2008가계조사 원자료CD」, 2009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식빵 및 떡, 라면, 국수류와 같은 곡물가공품, 빵 및 과자류 제품의 소비지출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유 및 달걀가공품, 과실가공품, 유지 및 조미료 제품의 지출비중도 '08년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 그 밖의 가공식품들의 소비지출은 큰 변동이 없는 정체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6> 전국 전가구 가구당 가공식품 지출 구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 「2008가계조사 원자료CD」, 2009

전국 전가구의 가구유형에 따른 식품소비지출 패턴을 보면 음식료품비 지출이 가장 많은 맞벌이가구의 영끌계수는 24.9%이나, 음식료품비 지출이 적은 노인가구의 영끌계수는 30.8%, 모자가구는 23.0%, 일반가구는 25.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이 낮아 소비지출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가구 유형별 1인당 월평균 식료품지출은 노인 가구는 167,973원, 모자가구는 156,142천원, 맞벌이가구는 185,650원, 일반가구는 182,492원으로 맞벌이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소비지출은 모자가구가 노인 가구에 비해 많지만, 음식료품비 지출은 노인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에 따른 외식비 지출 비중을 보면 맞벌이가구의 경우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외식비의 비중이 5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가구가 45.3%로 높은 반면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외식비 지출 비중은 각각 20.4%, 38.7%로 특히 노인가구의 외식비 지출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평균 외식비 지출을 보면 맞벌이가구 96,892원으로 평균 외식비 지출금액 83,055원보다 높은 반면 일반가구는 82,730천원, 모자가구는 60,369원, 노인가구는 34,324원으로 특히 모자

가구와 노인가구가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0> 전국 전가구 가구유형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008)
단위: 원, %

구 분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평균
소득	928,252	2,395,247	4,505,453	2,826,341	2,942,001
소비지출(A)	773,511	1,846,356	2,702,434	2,012,105	2,002,781
음식료품비(B)	238,438	423,760	672,427	521,743	516,438
외식비(C)	48,722	163,838	350,946	236,525	235,952
엔겔계수(B/A)	30.8	23.0	24.9	25.9	25.8
외식비중(C/B)	20.4	38.7	52.2	45.3	45.7

자료: 통계청, 「2008가계조사 원자료CD」, 2009

도시 전가구의 가구유형에 따른 식품소비지출 패턴을 보면 음식료품비 지출이 가장 많은 맞벌이가구의 엔겔계수는 24.8%이나, 음식료품비 지출이 적은 노인 가구의 엔겔계수는 31.0%, 모자가구는 엔겔계수가 23.1%, 일반가구는 26.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이 낮아 소비지출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가구 유형별 1인당 월평균 식료품지출은 노인 가구는 175,724원, 모자가구는 160,231원, 맞벌이가구는 189,299원, 일반가구는 188,467원으로 맞벌이가구의 음식료품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소비지출은 모자가구가 노인 가구에 비해 많지만, 음식료품비 지출은 노인가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별에 따른 외식비 지출 비중을 보면 맞벌이가구의 경우 음식료품비에 서 차지하는 외식비의 비중이 5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가구가 46.2%로 높은 반면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외식비 지출 비중은 각각 21.4%, 38.3%로 특히 전국 전가구와 마찬가지로 노인가구의 지출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외식비 지출을 보면 맞벌이가구는 99,158원으로 평균 외식비 지출금액 87,175

원보다 높고 일반가구는 87,038원으로 평균 외식비 지출금액과 비슷한 반면 노인 가구와 모자가구는 각각 37,568원과 61,571원으로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1> 도시 전가구 가구유형별 가구당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2008)
단위: 원, %

구 분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평균
소득	989,400	2,489,171	4,584,455	2,902,445	3,067,162
소비지출(A)	826,951	1,890,776	2,765,095	2,064,796	2,088,019
음식료품비(B)	256,051	437,528	685,001	537,397	538,442
외식비(C)	54,742	167,396	358,816	248,181	250,590
엔겔계수(B/A)	31.0	23.1	24.8	26.0	25.8
외식비중(C/B)	21.4	38.3	52.4	46.2	46.5

자료: 통계청, 「2008가계조사 원자료CD」, 2009

<표 1-72> 가구유형별 월평균 1인당 음식료품비 지출 현황(2008)
단위: 원, %

구 분	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평균	
소비지출	전국	544,917	680,323	746,113	703,783	704,979
	도시	567,522	695,461	764,131	724,130	726,383
식 료 품	전국	167,973	156,142	185,650	182,492	181,786
	도시	175,724	160,931	189,299	188,467	187,314
외 식	전국	34,324	60,369	96,892	82,730	83,055
	도시	37,568	61,571	99,158	87,038	87,175

자료: 통계청, 「2008가계조사 원자료CD」, 2009

Ⅲ. 국내 식품산업 전망

1. 총산출 및 부가가치

가. 푸드시스템

한국식품연구원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7년 산업연관표와 IMF에서 발표한 2009년~2014년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이용하여 2014년까지 우리나라 푸드시스템 변화를 전망한 결과에 의하면, 푸드시스템의 총산출 규모는 200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2009년 162조 6,363억원에서 2014년 181조 394억원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로는 2.2%로서 같은 기간 경제 전체의 성장률 4.6%보다는 낮지만 2000년 이후 푸드시스템 성장률이 연평균 1.5% 정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높은 성장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를 경상가격으로 환산하면 2009년 175조 2,520억원에서 2014년 222조 7,907억원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경상가격 기준 연평균 성장률은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5) 본 전망은 일반균형모형을 통하여 전망하였고, 일반균형체계아래서 전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 품목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자료와 업체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청의 「공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자료는 서로 상이하여 전망지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앞의 동향분석 추세치와 상이할 수 있음
- 6) 푸드시스템은 농수산물 부문, 식품료제품제조업 부문, 외식 부문 3개 부문으로 구분
- ① 농수산물 부문 : 농산물(식용임산물 포함), 축산물, 수산물. (비식용 농산물 및 임산물 제외)
 - ② 식품료제품제조업 부문 : 식품소재 부문과 식품가공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구분
 - i) 식품소재 부문
 - 정미·제분 부문 : 정미, 정맥, 제분, 제당
 - 도축·도계 부문 : 도축, 도계
 - ii) 식품가공 부문 : 육가공, 유가공, 수산가공, 과채가공, 식용유지, 빵·과자·국수, 조미료, 기타식료품, 알코올음료, 비알콜음료
 - <표 1-9>(p33)에서의 차이점
 - 육가공 부문 : <표 1-9>의 육가공 중 도축·도계를 제외한 부문
 - 조미료 부문 : <표 1-9>의 조미료/첨가물 중 첨가물을 제외한 부문
 - 기타식료품 부문 : <표 1-9>의 제당을 제외한 기타식료품과 도정 및 제분을 제외한 곡물가공에 조미료/첨가물 중 첨가물을 합한 부문
 - ③ 외식부문 : 외식 1개 부문으로 구성

<표 1-73> 푸드시스템의 총산출 전망

단위 : 십억원, %

구분	부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성장률
2005 불변 가격	푸드시스템 계	162,636	162,941	162,621	172,670	176,820	181,039	2.2
	농수산물	40,879	40,573	41,571	42,716	43,771	44,827	1.9
	음식료제품제조업	62,069	62,453	64,528	66,512	68,182	69,887	2.4
	식품소재	17,646	17,978	18,613	19,253	19,766	20,269	2.8
	식품가공	44,423	44,475	45,914	47,259	48,415	49,618	2.2
외식	59,688	59,915	61,523	63,442	64,867	66,325	2.1	
경상 가격	푸드시스템 계	175,252	178,183	188,802	200,715	212,502	222,791	4.9
	농수산물	44,050	44,368	46,824	49,654	52,603	55,165	4.6
	음식료제품제조업	66,884	68,295	72,681	77,315	81,941	86,005	5.2
	식품소재	19,015	19,660	20,965	22,380	23,755	24,944	5.6
	식품가공	47,869	48,636	51,716	54,935	58,186	61,061	5.0
외식	64,318	65,519	69,297	73,747	77,958	81,621	4.9	

<그림 1-27> 푸드시스템의 총산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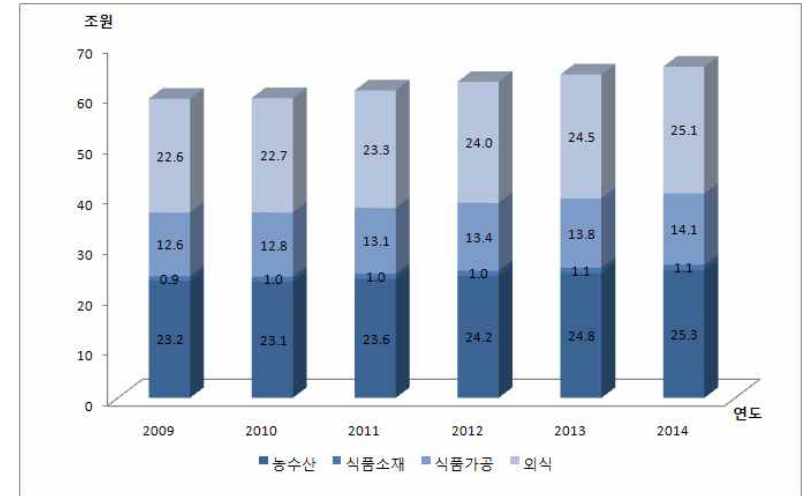
푸드시스템 전체의 국내생산 증가전망에 따라 부가가치 생산규모도 200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2009년 59조 3,361억원에서 2014년 65조 6,656억원 규모까지 성장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63조 9,388억원에서 80조 8,094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4> 푸드시스템 전체의 부가가치 전망

단위 : 십억원, %

구분	부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성장률
2005 불변 가격	푸드시스템 계	59,336	59,445	60,970	62,672	64,124	65,666	2.0
	농수산	23,209	23,051	23,597	24,206	24,757	25,338	1.8
	음식료품제조업	13,538	13,719	14,090	14,456	14,818	15,227	2.4
	식품소재	940	958	993	1,027	1,054	1,081	2.8
	식품가공	12,598	12,761	13,098	13,430	13,764	14,147	2.3
외식	22,589	22,675	23,283	24,010	24,549	25,101	2.1	
경상 가격	푸드시스템 계	63,939	65,005	68,674	72,851	77,064	80,809	4.8
	농수산	25,009	25,207	26,579	28,138	29,753	31,181	4.5
	음식료품제조업	14,588	15,002	15,870	16,804	17,808	18,739	5.1
	식품소재	1,013	1,048	1,118	1,193	1,267	1,330	5.6
	식품가공	13,575	13,955	14,753	15,611	16,542	17,409	5.1
외식	24,341	24,796	26,225	27,909	29,503	30,889	4.9	

<그림 1-28> 푸드시스템의 부가가치 전망



푸드시스템 내에서도 음식료품제조업에 원료를 제공하는 상류 산업인 농수산 부문과 중류 산업인 음식료품제조업 부문, 하류 산업인 외식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농수산 부문의 총산출은 불변가격 기준 2009년 40조 8,792억원에서 2014년 44조 8,271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1.9%에 이르지만 부가가치 생산은 같은 기간 23조 2,090억원에서 25조 3,379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1.8%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국내생산이 44조 502억원에서 55조 1,651억원으로, 부가가치 생산은 25조 93억원에서 2014년 31조 1,813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총산출 기준 4.6%, 부가가치 기준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료품제조업 부문에서는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산출은 2009년 62조 690억원에서 2014년 69조 8,875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13조 5,383억원에서 15

조 2,272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총산출 및 부가가치 모두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총산출이 같은 기간 66조 8,836억원에서 2014년 86조 49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14조 5,885억원에서 2014년 18조 7,389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5.2%,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식부문에서는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산출은 2009년 59조 6,881억원에서 2014년 66조 3,249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22조 5,889억원에서 25조 1,005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모두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총산출이 64조 3,181억원에서 81조 6,208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24조 3,411억원에서 30조 8,892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모두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나. 음식료품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2.4%로 전망되지만 세부 업종별로 성장률의 격차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중에서도 식품소재산업 부문은 200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산출은 2009년 17조 6,458억원에서 2014년 20조 2,692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9,402억원에서 1조 807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총산출이 19조 146억원에서 24조 9,437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1조 132억원에서 1조 3,299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5.6%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식품소재 부문 내에서는 도정 및 제분 부문은 200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산출은 2009년 8조 4,527억원에서 2014년 9조 7,747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

는 4,935억원에서 5,707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상가격으로는 총산출이 9조 1,084억원에서 12조 290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5,318억원에서 7,023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곡물가공업에는 도정 및 제분 이외에도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제분부문이 제외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004~2008년 곡물가공업의 출하액과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0.9%, 4.0%에 달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곡물가공업에서 차지하는 도정 및 제분의 비중이 높으므로 도정 및 제분부문의 부가가치 성장률이 향상될 것을 간접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도정 및 제분 부문의 성장률은 음식료품제조업내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이용되는 가공기술 수준이 낮은 단순가공 부문으로서, 부가가치가 주로 가공수수료로 이루어져 있어 같은 단순가공 부문인 도축 및 도계 부문과 함께 부가가치율이 가장 낮은 부문 중의 하나이다. 또한 도정 및 제분 부문의 성장률이 원료인 농산부문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곡물을 식품소재로 가공하는 도정이나 제분 부문의 총산출은 원료곡물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국내 소비 증가와 연계되어 있어 원료곡물의 수입 증가와 국내생산 감소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도정이나 제분의 소비증가에 따라 총산출도 비교적 높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식품소재를 생산하는 도축 및 도계 부문은 200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산출은 2009년 9조 1,931억원에서 2014년 10조 4,945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4,467억원에서 5,099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상가격으로는 총산출이 9조 9,062억원에서 12조 9,147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4,814억원에서 6,276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5.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같은 식품소재이지만 도축 및 도계 부문은 도정 및 제분 부문과 달리 원료인 가축 및 가금의 국내생산과 연계되어 있어, 총

산출 증가율은 국내소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증가율이 전망된다. 한편 2004~2008년 육가공업의 출하액과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7.2%, 6.3%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육가공업이 도축 및 도계 이외에도 포장육이나 햄, 소시지 등 육류통조림을 생산하는 부문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도축 및 도계가 육가공업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도축 및 도계부문의 성장률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음식료품제조업 중 식품가공 부문은 200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산출이 2009년 44조 4,232억원에서 2014년 49조 6,182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12조 5,981억원에서 14조 1,465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2%,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7조 8,691억원에서 61조 612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13조 5,753억원에서 17조 4,090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5.0%,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가공 부문 내에서 기타식품 부문은 불변가격 기준 총산출은 2009년 7조 4,214억원에서 2014년 9조 1,875억원까지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1조 9,087억원에서 2014년 2조 3,630억원으로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4%에 이를 정도로 음식료품제조업 내에서 식용유지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더욱이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총산출이 7조 9,971억원에서 11조 3,063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2조 568억원에서 2조 9,079억원까지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7.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4~2008년 기타식품 부문의 출하액과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가격 기준으로 각각 5.7%, 5.2%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기타식품 부문이 음식료품제조업 내에서 비교적 높은 성장산업이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표 1-75> 음식료품제조업의 총산출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부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성장률
2005 불변 가격	식품소재	17,646	17,978	18,613	19,253	19,766	20,269	2.8
	도정·제분	8,453	8,632	8,988	9,304	9,539	9,775	2.9
	도축·도계	9,193	9,346	9,625	9,949	10,227	10,495	2.7
	식품가공	44,423	44,475	45,914	47,259	48,415	49,618	2.2
	육가공	1,854	2,053	1,891	1,955	2,028	1,977	1.3
	유가공	5,918	5,137	5,154	5,336	5,807	6,136	0.7
	수산가공	5,970	5,910	6,064	6,226	6,311	6,364	1.3
	과채가공	2,225	2,514	2,419	2,408	2,450	2,527	2.6
	식용유지	1,593	2,081	1,888	1,889	1,902	2,035	5.0
	빵·과자·국수	7,646	7,930	8,371	8,461	8,463	8,571	2.3
	조미료	3,842	3,901	4,173	4,291	4,252	4,169	1.6
	기타식품	7,421	6,840	7,896	8,517	8,785	9,188	4.4
	알코올음료	3,994	4,522	4,330	4,321	4,452	4,675	3.2
비알콜음료	3,958	3,586	3,729	3,855	3,966	3,977	0.1	
음식료품제조업 계	62,069	62,453	64,528	66,512	68,182	69,888	2.4	
경상 가격	식품소재	19,015	19,660	20,965	22,380	23,755	24,944	5.6
	도정·제분	9,108	9,439	10,124	10,815	11,464	12,029	5.7
	도축·도계	9,906	10,220	10,842	11,565	12,291	12,915	5.4
	식품가공	47,869	48,636	51,716	54,935	58,186	61,061	5.0
	육가공	1,998	2,245	2,130	2,273	2,438	2,432	4.0
	유가공	6,377	5,618	5,805	6,203	6,979	7,551	3.4
	수산가공	6,433	6,463	6,831	7,237	7,584	7,832	4.0
	과채가공	2,398	2,749	2,725	2,799	2,945	3,110	5.3
	식용유지	1,717	2,276	2,126	2,195	2,285	2,504	7.8
	빵·과자·국수	8,239	8,672	9,429	9,835	10,171	10,548	5.1
	조미료	4,140	4,266	4,700	4,988	5,110	5,130	4.4
	기타식품	7,997	7,480	8,893	9,900	10,558	11,306	7.2
	알코올음료	4,304	4,945	4,877	5,023	5,351	5,754	6.0
비알콜음료	4,265	3,922	4,201	4,481	4,766	4,894	2.8	
음식료품제조업 계	66,884	68,295	72,681	77,315	81,941	86,005	5.2	

<표 1-76> 음식료품제조업의 부가가치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부 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성장률
2005 불변 가격	식품소재	940	958	993	1,027	1,054	1,081	2.8
	도정·제분	494	504	525	543	557	571	2.9
	도축·도계	447	454	468	483	497	510	2.7
	식품가공	12,598	12,761	13,098	13,430	13,764	14,147	2.3
	육가공	367	406	374	387	401	391	1.3
	유가공	1,479	1,284	1,288	1,334	1,452	1,534	0.7
	수산가공	939	930	954	980	993	1,001	1.3
	과채가공	599	677	651	648	660	680	2.6
	식용유지	290	378	343	343	346	370	5.0
	빵·과자·국수	2,352	2,440	2,575	2,603	2,604	2,637	2.3
	조미료	959	974	1,042	1,072	1,062	1,041	1.6
	기타식료품	1,909	1,759	2,031	2,190	2,259	2,363	4.4
	알코올음료	2,464	2,789	2,671	2,665	2,746	2,884	3.2
비알콜음료	1,240	1,123	1,168	1,207	1,242	1,245	0.1	
음식료품제조업 계	13,538	13,719	14,090	14,456	14,818	15,227	2.4	
경상 가격	식품소재	1,013	1,048	1,118	1,193	1,267	1,330	5.6
	도정·제분	532	551	591	631	669	702	5.7
	도축·도계	481	497	527	562	597	628	5.4
	식품가공	13,575	13,955	14,753	15,611	16,542	17,409	5.1
	육가공	395	444	421	450	482	481	4.0
	유가공	1,594	1,404	1,451	1,551	1,745	1,888	3.4
	수산가공	1,012	1,017	1,075	1,139	1,193	1,232	4.0
	과채가공	645	740	734	754	793	837	5.3
	식용유지	312	414	387	399	416	455	7.8
	빵·과자·국수	2,535	2,668	2,901	3,026	3,129	3,245	5.1
	조미료	1,034	1,065	1,174	1,246	1,276	1,281	4.4
	기타식료품	2,057	1,924	2,287	2,546	2,715	2,908	7.2
	알코올음료	2,655	3,050	3,008	3,098	3,300	3,549	6.0
비알콜음료	1,336	1,228	1,315	1,403	1,493	1,533	2.8	
음식료품제조업 계	14,589	15,002	15,870	16,804	17,808	18,739	5.1	

기타식료품은 비교적 유사한 품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음식료품제조업내의 여러 세부부문들과 달리 시장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규모가 작은 성장품목이어서 하나의 세부 부문으로 나누기 곤란하거나 성숙된 시장이어도 동질적인 품목들로 하나의 세부부문을 형성하기에 시장 규모가 작은 여러 품목들이 모여 있는 부문으로서 세부부문 전체로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상품들이 모여 있어 한가지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기타식료품의 비교적 높은 성장은 이 부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기타식료품 생산의 높은 성장전망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대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빵, 과자 및 국수 부문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산출은 2009년 7조 6,461억원에서 2014년 8조 5,712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2조 3,523억원에서 2조 6,369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총산출이 8조 2,393억원에서 10조 5,478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2조 5,348억원에서 3조 2,450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4~2008년 떡·빵·과자류 제조업의 출하액과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3.3%, 1.6%이고, 면류제조업의 증가율이 각각 0.2%, 2.1%인 것을 고려하면, 빵, 과자 및 국수 부문의 성장률이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산가공 부문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산출이 2009년 5조 9,702억원에서 2014년 6조 3,641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9,394억원에서 1조 14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1.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총산출이 6조 4,334억원에서 7조 8,318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1조 123억원에서 1조 2,323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4~2008년 수산가공 부문의 출하액과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3.3%, 1.6%인 것을 고려하면, 수산가공 부문의

성장률도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가공 부문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산출이 2009년 5조 9,181억원에서 2014년 6조 1,359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1조 4,795억원에서 1조 5,34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음식료품제조업 중 비교적 낮은 0.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도 총산출은 6조 3,771억원에서 7조 5,510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1조 5,943억원에서 1조 8,877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3.4%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4~2008년 유가공 부문의 출하액과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2.9%, 1.8%인 것을 고려하면, 유가공 부문의 현재의 성장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유가공 부문의 낮은 성장률은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양적인 성장이 제약된 결과로 판단된다.

알코올음료 부문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산출이 2009년 3조 9,944억원에서 2014년 4조 6,754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2조 4,637억원에서 2조 8,837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총산출이 4조 3,042억원으로 5조 7,536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2조 6,548억원에서 3조 5,487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알코올음료 부문의 비교적 높은 성장 전망은 소비자의 취향을 따라 알코올도수가 낮은 소주의 출시,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의 고급화 등으로 알코올음료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 한편 2004~2008년 알코올음료 부문의 출하액과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4%, -0.2%인 것을 고려하면, 알코올음료 부문의 성장률이 앞으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알콜음료 부문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2009년 3조 9,582억원에서 2014년 3조 9,768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1조 2,396억원에서 1조 2,454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식품가공 부문에서 가장 낮은 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도 총산출이 4조 2,652억원에서 4조 8,939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1조 3,357억원에서 1조 5,326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2.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2004~2008년 비알콜음료 부문의 출하액과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0.0%, -0.1%인 것을 고려하면, 비알콜음료 부문의 부진한 성장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미료 부문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산출이 2009년 3조 8,424억원에서 2014년 4조 1,685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9,595억원에서 1조 409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비교적 낮은 1.6%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총산출이 4조 1,405억원에서 5조 1,298억원으로, 부가가치가 1조 339억원에서 1조 2,810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4~2008년 조미료 부문의 출하액과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3.9%, 1.3%인 것을 고려하면, 조미료 부문의 성장률이 앞으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과채가공 부문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산출이 2009년 2조 2,252억원에서 2014년 2조 5,274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5,990억원에서 6,803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2.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총산출이 2조 3,978억원에서 2014년 3조 1,103억원으로, 부가가치가 6,455억원에서 8,372억원으로 증가하여 성장률은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4~2008년 과채가공업의 출하액과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8.0%, 6.3%인 것을 고려하면, 과채가공 부문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육가공 부문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2009년 1조 8,540억원에서 2014년에는 1조 9,766억원까지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3,668억원에서 3,911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1.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총산출이 1

조 9,978억원에서 2조 4,324억원으로, 부가가치가 3,952억원에서 4,812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4~2008년 육가공업의 출하액과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3.3%, 1.6%인 것을 고려하면, 육가공 부문의 성장률이 앞으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식용유지 부문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총산출이 2009년 1조 5,931억원에서 2014년 2조 348억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2,897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식품가공산업 부문내에서 가장 높은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총산출이 1조 7,167억원에서 2조 5,041억원으로, 부가가치가 3,121억원에서 4,553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4~2008년 식용유지 부문의 출하액과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2.2%, 5.9%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식용유지 부문의 높은 성장이 향후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식용유지 부문의 이 같은 높은 성장전망은 식용유지 소비가 종래에는 대두유, 옥수수유 위주의 튀김용 소비가 주를 이루었지만 웰빙열풍을 타고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등 트레싱유 소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대외교역

가. 수출

1) 정책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음식료품제조업의 수출은 미달러화 기준 2009년 3,297.0백만 달러에서 2014년 4,193.6백만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7>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 전망¹⁾

단위: 백만\$, %

부 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식품소재	57.6	56.7	59.1	55.1	50.8	50.7	-2.5
도정·제분	21.9	21.7	21.5	21.2	21.0	22.7	0.7
도축·도계	35.6	35.0	37.6	33.9	29.8	28.0	-4.7
식품가공	3,239.4	3,439.3	3,563.6	3,741.7	3,923.3	4,142.9	5.0
육가공	11.6	11.2	10.5	11.2	12.0	11.5	-0.1
유가공	46.4	48.5	47.5	46.2	44.9	44.6	-0.8
수산가공	1,365.3	1,471.5	1,582.5	1,706.3	1,846.6	1,996.4	7.9
과채가공	196.4	199.0	201.8	199.6	203.9	203.0	0.7
식용유지	17.2	46.6	18.2	35.1	26.7	26.1	8.6
빵,과자,국수	474.5	484.4	482.8	481.6	481.5	489.8	0.6
조미료	140.8	144.9	146.9	147.8	148.7	155.3	2.0
기타식료품	624.8	654.2	680.0	708.8	739.7	785.8	4.7
알코올음료	246.4	252.1	256.3	258.1	262.7	265.2	1.5
비알콜음료	116.2	127.0	137.1	147.0	156.5	165.2	7.3
음식료품제조업 계	3,297.0	3,496.1	3,622.7	3,796.7	3,974.2	4,193.6	4.9

주: 1) 가공하지 않은 원료상태의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은 미포함

음식료품제조업의 수출증가율은 부문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데, 음식료품제조업의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가공 부문의 7.9%를 비롯하여 식용유지, 비알콜음료 부문은 각각 8.6%, 7.3% 등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가공, 육가공 부문은 수출 감소가 전망되며, 빵, 과자 및 국수 부문과 과채가공 부문의 증가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정책효과를 고려한 경우

가) FTA 협상의 진전

우리나라는 미국 및 EU와 FTA협정을 체결하고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또한 캐나다와의 FTA협상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멕시코, 호주, 일본, 중국 등과도 FTA협상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인도와는 CEPA협정이 타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수출측면에서 FTA협정 체결의 요점은 체결 당사국간의 관세율 폐지 또는 점진적인 인하를 통하여 교역을 확대하는데 있다. 따라서 FTA협정이 발효되면 관세율 하락을 통해 수출이 대상국가의 관세율에 대한 탄성치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미, 한·EU FTA협정에 대한 비준이 2012년 이전에 이루어져 관세율 폐지 내지는 인하가 이루어지면 수출이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식품 수출에서의 관세율 탄성치는 -10.85%로 나타났다. 즉 현행 평균 관세율이 20%이고 FTA협정 체결로 관세율이 30%인 6%포인트 감축된다고 가정하면 수출은 54.25% 증가한다는 의미이다.⁷⁾ 다음에서는 FTA체결로 감축되는 관세율이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았지만 협정을 체결할 모든 국가에서 관세감축률이 30%로 같다고 가정하고 수출증대효과를 살펴보았다.

7) i 품목의 관세율을 $tarf_i$ 라고 하면 인용한 연구에서 관세율은 $(1+tarf_i)$ 로 표현되므로 현행 관세율이 15%(0.15)라면 인용한 연구에서의 관세율은 115%(1.15)로 표현됨

관세율의 탄성치가 이와 같을 때, EU의 평균 관세율은 14.26%이고 2008년 식품의 대EU 수출액은 1.38억달러이므로 한·EU FTA협정이 발효되어 평균관세율이 30%인 4.28%포인트 감축되면 순수하게 관세율 인하효과만으로 대EU수출액이 0.5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똑같은 논리로 대미수출액은 3.33억달러로, 한·미 FTA협정이 비준·발효되어 5.04%인 평균관세율이 30% 감축되어 3.53%로 낮아질 경우, 대미수출액은 0.52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2년 이전에 한·미, 한·EU FTA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여 발효되면 식품수출은 연간 1.08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8> 주요 수출대상국별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단위: %, 백만\$

	식품 관세율 ¹⁾	30%감축 관세율	관세율 변화 ²⁾ (A)	관세율 탄성치 (B)	수출 증가율 (C=A×B)	2008년 수출 (D)	수출 증가액 (E=C×D)
EU	14.26	9.98	-3.74	-10.85	40.6	138	56.1
미 국	5.04	3.53	-1.44	-10.85	15.6	333	52.0
일 본	9.63	6.74	-2.64	-10.85	28.6	1,069	305.7
중 국	17.88	12.52	-4.55	-10.85	49.4	437	215.7
캐나다	21.91	15.34	-5.39	-10.85	58.5	31	18.1
계							647.6

주: 1) 2006년 각 국별 식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임

2) 관세율의 변화는 $(100+30\% \text{ 감축관세율}) / (100+ \text{식품관세율})$ 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여기에 더하여 현재 캐나다와의 FTA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한·중, 한·일 협정이 추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인도간의 CEPA협정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남겨 놓은 상태라 이들 제협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발효되면 관세율 인하로 인한

수출증대효과의 추가 발생이 기대된다. 2008년 기준 대일 식품수출액은 10.69억달러로서, 한·일 FTA 협정이 이른 시기에 타결되어 비준 발효될 경우, 9.63%인 일본의 식품 평균관세율이 6.74%로 30% 정도 낮아질 경우 대일 식품수출이 3.0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중국 식품수출은 4.37억달러로서, 17.88%인 중국의 식품 평균관세율이 12.52%로 30% 정도 낮아질 경우 대중국 식품수출이 2.1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대캐나다 식품수출액은 0.31억달러로서, 21.91%인 식품의 평균관세율이 15.34%로 30% 정도 낮아지면 대캐나다 식품수출이 0.18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국가와의 FTA협정이 추가로 타결되어 2012년 이전에 발효되면 수출증대효과는 5.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인도와의 CEPA 협정도 타결되었지만 대인도의 식품수출액은 3백만불 정도로서 이 협정이 발효되어 식품의 관세율이 낮아진다고 하여도 수출증대효과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미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거나, 앞으로 체결될 FTA협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2년 이전에 발효되고 또한 식품의 관세율이 최소 30% 이상 감축된다면 FTA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는 6.48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수출 물류비의 보조

정부에서는 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물류비의 지원은 물류시스템 등과 같은 하부구조의 구축 및 개선에 대한 지원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유통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직접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효과가 지속적이고 크지만 간접효과로서 물류비 지원 효과의 계측에 어려움이 있고, 후자의 경우 직접효과로서 계측이 손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1회성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수출상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수출대상국가의 관세를 인하가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최종적으로 수입국가의 수입가격 인하의 효과로 나타난다. 환언하면 수출대상국가의 수출에 대한 관세율 탄성치를 알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 그 국가 소비자의 수입상품에 대한 가격탄성치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는 더 나아가 물류비 지원으로 인한 가격인하효과의 탄성치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물류비 지원으로 인한 수출상품의 가격인하효과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다면 주요 수출대상국가의 관세율 탄성치를 추정할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궁극적인 수출증대액의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효과가 큰 하부구조의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지원의 경우 계측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계측이 손쉬운 소요 물류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률적인 경우에는 지원기간 동안 적용받는 품목의 수출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효과가 있지만, 정액적인 지원의 경우 단위상품당 가격인하효과가 수출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감소)하기 때문에 관세율 탄성치를 이용하여 수출증대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수출 물류비 지원의 수출증대효과를 전망하기 위해서 물류비 지원액 전체가 정률적으로 지원된다고 가정하고 전망하였다.

정부에서는 농축산물판매촉진을 위해 수출인프라 사업과 수출물류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수출물류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광의의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광의의 수출물류비지원액은 2008년 327억원에서 2009년 413억원으로 26.2% 증가하였다. 그러나 향후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3가지 시나리오로 수출물류비 지원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수출물류지원비를 전년대비 10%씩 증가시킨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 S1과 그 비율이 12%라고 가정하는 시나리오 S2, 그 비율이 15%라고 가정하는 시나리오 S3 등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에 따른 수출증대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1-79> 수출물류비 지원에 의한 수출증대효과 분석

구분 ¹⁾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액(백만\$)	31,440	32,970	34,961	36,227	37,967	39,742	41,936	
환율(원/\$)	1,102	1,304	1,282	1,281	1,280	1,281	1,277	
수출액(십억원)	34,643	42,993	44,820	46,407	48,598	50,910	53,552	
관세상당액 ²⁾	3,833	4,757	4,959	5,134	5,377	5,633	5,925	
유지물류비 ³⁾ (억원)	327	405.8	423.1	438.0	458.7	480.5	505.5	
S1	계획물류비(억원)	327	413.0	454.3	499.7	549.7	604.7	665.1
	증액물류비(억원)		7.2	31.2	61.7	91.0	124.1	159.7
	관세상당비율 ⁴⁾ (%)		0.151	0.630	1.202	1.692	2.204	2.695
	수출증가액 ⁵⁾ (백만\$)		53.8	238.1	470.5	694.4	946.7	1,221.4
S2	계획물류비(억원)	327	413.0	462.6	518.1	580.2	649.9	727.8
	증액물류비(억원)		7.2	39.5	80.0	121.5	169.3	222.4
	관세상당비율 ⁴⁾ (%)		0.151	0.797	1.559	2.260	3.006	3.753
	수출증가액 ⁵⁾ (백만\$)		53.8	301.0	610.3	927.4	1,291.3	1,701.1
S3	계획물류비(억원)	327	413.0	475.0	546.2	628.1	722.3	830.7
	증액물류비(억원)		7.2	51.9	108.2	169.4	241.8	325.2
	관세상당비율 ⁴⁾ (%)		0.151	1.046	2.106	3.151	4.293	5.489
	수출증가액 ⁵⁾ (백만\$)		53.8	395.4	824.8	1,292.9	1,844.0	2,487.8

주: 1) 계획물류비는 2008년, 2009년은 집행실적이며, 2010년부터는 전년대비 10%, 12%, 15%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각각 순서대로 S1, S2, S3 시나리오로 구분
 2) 관세상당액은 총 수출액에 평균 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관세율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13개 수출국 평균 관세율인 11.06%를 적용
 3) 유지물류비는 2008년 물류비 지원 327억원으로 거둔 가격인하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수출물량의 변화에 따라 증액되어야 하는 물류비임
 4) 관세상당비율은 증액물류비가 관세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수출증가액은 '수출액×(1+관세율-관세상당비율)/(1+관세율)-1'×관세율단성치'로 산출

2008년 물류비 지원액 327억원은 수출액의 0.94%에 해당하여 수출단가를 0.94%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이 효과가 2008년 한 해만의 효과로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른 년도에도 수출액의 0.94%는 물류비로 지원되어야 한다. 여기에 추가적인 수출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0.94%를 넘는 물류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에서 나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수출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8년 농식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물류비 지원비율만큼 계속 지원되어야 하며, 만일 각 연도별로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물류비 지원비율이 2008년의 보다 낮아질 경우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수출전망치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물류비 지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년대비 일정비율씩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수출증가에 따라 단위당 가격의 인하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증액해야 하는 부문이 있으므로 순수한 수출증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부문만큼을 제하여야 한다.

이처럼 정책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류비 지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수출증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물류비 지원액은 시나리오 S1에서는 2012년 91억원, 2014년 159.7억원, 시나리오 S2에서는 2012년 121.5억원, 2014년 222.4억원, 시나리오 S3에서는 2012년 169.4억원, 2014년 325.2억원에 이르며, 이들 수출물류비 지원의 증액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출 증대효과는 S1에서 2012년 6.9억달러, 2014년 12.2억달러, S2에서는 2012년 9.27억달러, 2014년 17.01억달러, S3에서는 2012년 12.93억달러, 2014년 24.87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계량화가 가능한 상기 두 가지 정책효과를 고려할 경우 수출촉진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는 S1에서는 2012년 13.4억달러, 2014년 18.7억달러, S2에서는 2012년 15.8억달러, 2014년 23.5억달러, S3에서는 2012년 19.4억달러, 2014년 31.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80> 정책효과를 고려한 수출전망¹⁾

단위: 백만\$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전망 ²⁾	3,297.0	3,496.1	3,622.7	3,796.7	3,974.2	4,193.6
관세율인하 효과 ³⁾	-	-	0.0	647.6	647.6	647.6
S1						
물류비 지원효과	53.8	238.1	470.5	694.4	946.7	1,221.4
수출전망 ²⁾	3,350.8	3,734.2	4,093.2	5,138.7	5,568.5	6,062.6
S2						
물류비 지원효과	53.8	301.0	610.3	927.4	1,291.3	1,701.1
수출전망 ²⁾	3,350.8	3,797.1	4,233.0	5,371.7	5,913.1	6,542.3
S3						
물류비 지원효과	53.8	395.4	824.8	1,292.9	1,844.0	2,487.8
수출전망 ²⁾	3,350.8	3,891.5	4,447.5	5,737.2	6,465.8	7,329.0

- 주: 1) 가공하지 않은 원료상태의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은 미포함
 2) 수출전망1은 정책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전망치를 의미
 3) 관세율 인하효과는 FTA 협정의 발효로 인한 효과로서 2012년 1월 1일부로 현재 우리나라와 진행 중인 FTA가 모두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
 4) 수출전망2는 정책효과를 고려한 전망치를 의미하며 수출전망1에 관세율 인하 효과와 물류비지원효과를 합한 것임

그러므로 정책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전망치에 이들 수출증대효과를 더할 경우 식품수출액은 시나리오 S1에서는 2012년 51.4억달러, 2014년에는 60.6억달러, 시나리오 S2에서는 2012년 53.7억달러, 2014년 65.4억달러, 시나리오 S3에서는 2012년 57.4억달러, 2014년 73.3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수출식품에 대한 R&D 지원

식품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효과로는 위에서 언급한 관세율 인하효과와 물류비 지원효과 이외에도, 수출상품의 품질제고를 통한 수출상품의 가격인상효과를 들 수 있다.

R&D를 통하여 식품의 품질을 제고하면 식품수출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해외 소비자의 선호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하나는 품질제고로 인하여 수출대상국 소비자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통하여 수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 품질제고에 드는 비용이 수출가격에 전가되면 수출단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수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R&D를 통한 수출증대효과는 수출대상국 소비자의 품질개선에 따른 소비증가를 측정하지 않고서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R&D로 인하여 수출단가가 인상될 경우 수출량 감소폭이 단가인상폭보다 커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R&D가 적용되지 않은 이전의 상품을 이전의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수출상품에 대한 R&D를 지원할 경우 최소한 수출은 감소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수출촉진을 위한 R&D 지원은 그 수출증대효과의 크기를 분석하기 어렵지만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만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소비자의 선호가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뀔 경우, 고품질 제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품질 제고 이전의 상품을 이전의 가격으로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수출감소는 불가피하다. 즉 해외소비자의 선호가 바뀔 경우에는 수출상품에 대한 R&D 지원은 수출감소를 저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R&D에 대한 지원은 그 효과를 계량화하기 곤란하지만 수출촉진 내지는 현재의 수출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수출상품과 관련한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수출대상국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출 대상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하는 등의 수출촉진을 위한 R&D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효과를 고려한 수출전망치 이상의 수출증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수입

음식료품제조업의 수입은 미달러화 기준 2009년 10,019백만 달러에서 2014년 11,967백만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81>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 전망

단위: 백만\$, %

부 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식품소재	2,901	3,038	3,203	3,396	3,577	3,785	5.5
도정·제분	529	546	629	706	782	888	10.9
도축·도계	2,372	2,492	2,573	2,690	2,795	2,897	4.1
식품가공	7,118	7,467	7,598	7,789	7,959	8,182	2.8
육가공	128	156	152	171	193	203	9.7
유가공	440	396	404	423	463	495	2.4
수산가공	2,535	2,543	2,611	2,683	2,715	2,743	1.6
과채가공	911	1,076	1,014	1,000	1,018	1,059	3.1
식용유지	1,094	1,216	1,239	1,282	1,320	1,385	4.8
빵,과자,국수	343	382	433	471	508	558	10.2
조미료	305	317	344	349	332	309	0.3
기타식료품	813	777	848	886	898	922	2.5
알코올음료	512	576	527	503	493	491	-0.8
비알콜음료	37	28	25	22	19	16	-15.0
음식료품제조업 계	10,019	10,505	10,801	11,185	11,536	11,967	3.6

부문별로는 도정 및 제분 부문이 10.9%로 가장 높고, 빵, 과자 및 국수, 육가공, 식용유지 부문은 각각 10.2%, 9.7%, 4.8% 등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비알콜음료와 알코올음료 부문은 수입 감소가 전망되며, 음식료품제조업의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가공 부문의 증가율은 1.6%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민간소비지출

가. 푸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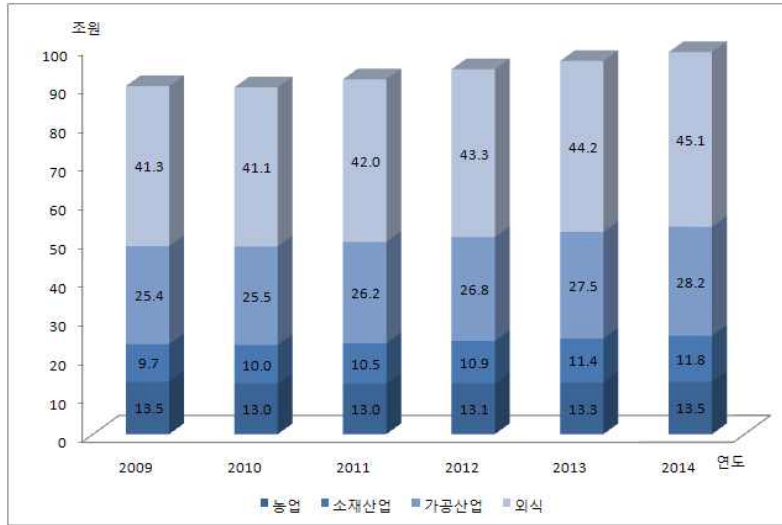
푸드시스템 전체로 민간소비지출규모는 200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2009년 89조 8,721억원에서 2014년 98조 6,502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1.9%로서 같은 기간 경제전체의 성장률 4.6%보다는 낮지만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푸드시스템내에서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5% 정도에 불과했던 것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를 경상가격으로 환산하면 2009년 96조 8,435억원에서 2014년 121조 4,009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경상가격 기준 연평균 증가율은 4.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82> 푸드시스템 전체의 민간소비지출 전망

단위: 십억원, %

구 분	부 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성장률
2005 불변 가격	푸드시스템 계	89,872	89,541	91,618	94,206	96,345	98,650	1.9
	농 수 산	13,531	13,019	13,020	13,141	13,317	13,531	0.0
	음식료품제조업	35,038	35,461	36,621	37,764	38,878	40,036	2.7
	식품소재	9,679	9,971	10,462	10,944	11,397	11,848	4.1
	식품가공	25,359	25,490	26,159	26,820	27,481	28,188	2.1
외 식	41,303	41,062	41,976	43,301	44,151	45,083	1.8	
경상 가격	푸드시스템 계	96,843	97,917	103,195	109,507	115,788	121,401	4.6
	농 수 산	14,581	14,236	14,666	15,275	16,004	16,652	2.7
	음식료품제조업	37,756	38,778	41,248	43,898	46,723	49,269	5.5
	식품소재	10,430	10,904	11,784	12,722	13,697	14,580	6.9
	식품가공	27,326	27,874	29,465	31,176	33,026	34,688	4.9
외 식	44,507	44,903	47,281	50,334	53,060	55,480	4.5	

<그림 1-29> 푸드시스템의 민간소비지출 전망



푸드시스템 내에서도 상류 산업인 농수산 부문과 중류 산업인 음식료품제조업 부문, 하류 산업인 외식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농수산 부문에 대한 민간소비지출은 불변가격 기준 2009년 13조 5,310억원에서 2014년 13조 5,314억원으로 거의 정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2009년 14조 5,806억원에서 2014년 16조 6,520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료품제조업 부문에 대한 민간소비지출은 불변가격 기준 2009년 35조 377억원에서 2014년 40조 356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37조 7,556억원에서 49조 2,686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류 산업인 외식 부문에 대한 민간소비지출은 불변가격 기준 2009년 41조 3,034억원에서 2014년 45조 832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4조 5,073억원에서 55조 4,803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음식료품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전체의 민간소비지출은 2005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연평균 2.7%, 경상가격으로는 5.5%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세부 부문별로 증가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전망되었다.

먼저, 음식료품제조업을 식품소재 부문과 식품가공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식품소재 부문에 대한 민간소비지출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2009년 9조 6,792억원에서 2014년 11조 8,480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0조 4,300억원에서 14조 5,804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6.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소재 부문의 세부부문별로는 도정 및 제분부문이 불변가격 기준 2009년 4조 3,795억원에서 2014년 5조 5,830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4조 7,912억원에서 6조 8,705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축 및 도제 부문도 불변가격 기준 2009년 5조 2,997억원에서 2014년 6조 2,651억원까지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5조 7,108억원에서 7조 7,099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6.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소재 부문의 높은 증가율은 식품소재의 소비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의미보다는 고품질 소재식품의 소비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97~

'07년까지 지난 10년간 1인당 곡류의 소비는 연평균 1.3%씩 감소하여왔고, 증가한 육류의 소비도 연평균 1.1%의 증가에 불과하여 식품소재 부문의 소비지출 증가가 양적으로는 포화상태에 가까워 오거나 포화점을 넘어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품소재 부문의 민간소비지출의 증가는 웰빙추세에 부응하여 친환경 고품질 소재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식품가공 부문에 대한 민간소비지출은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2009년 25조 3,585억원에서 2014년 28조 1,876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7조 3,256억원에서 34조 6,882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가공 부문 민간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빵, 과자 및 국수 부문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2009년 5조 4,587억원에서 2014년 6조 3,898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5조 8,882억원에서 7조 8,634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식료품 부문은 불변가격 기준 2009년 3조 7,111억원에서 2014년 4조 7,954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3조 9,990억원에서 5조 9,013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8.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식료품 부문 민간소비지출의 이와 같은 높은 증가율은 이 부문에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산가공 부문은 불변가격 기준 2009년 4조 3,493억원에서 2014년 4조 6,486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3%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으로는 같은 기간 4조 6,867억원에서 5조 7,207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공 부문은 불변가격 기준 2009년 4조 1,362억원에서 2014년 4조 1,286억원

으로 약간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조 4,570억원에서 5조 807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공 부문에 대한 민간소비지출의 감소는 유제품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유부문의 소비정체에 기인한다. 우유의 소비는 시유 및 유제품을 통한 직접적인 우유의 소비와 우유를 부재료로 이용하여 가공된 가공식품의 소비를 통한 간접적인 소비로 구분할 수 있다. 아직까지 1인당 우유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유가공부문에 대한 민간소비지출의 정체는 전체적인 우유소비의 정체라기보다는 우유 및 유제품을 통한 직접적인 우유소비의 정체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비알콜음료 부문은 불변가격 기준 2009년 2조 1,217억원에서 2014년에는 1조 7,698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2조 2,863억원에서 2조 1,779억원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알콜음료 부문에 대한 민간소비지출 감소는 건강지향적인 식품소비 추세에 따라 햄버거, 피자 등과 함께 청소년 비만의 원인이 되는 탄산음료 소비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알코올음료 부문은 불변가격 기준 2009년 1조 2,477억원에서 2014년 1조 4,836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조 3,445억원에서 1조 8,258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알코올음료 소비지출의 비교적 높은 증가 전망은 저도주 소주시장의 확대,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의 품질고급화 등에 힘입은 결과로 판단된다.

<표 1-83> 음식료품제조업의 민간소비지출 전망

단위 : 십억원, %

구분	부 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2005 불변 가격	식품소재	9,679	9,971	10,462	10,944	11,397	11,848	4.1
	도정·제분	4,380	4,570	4,833	5,097	5,338	5,583	5.0
	도축·도계	5,300	5,400	5,628	5,847	6,059	6,265	3.4
	식품가공	25,359	25,490	26,159	26,820	27,481	28,188	2.1
	육가공	1,172	1,409	1,207	1,271	1,359	1,297	2.0
	유가공	4,136	3,349	3,289	3,410	3,844	4,129	-0.0
	수산가공	4,349	4,242	4,392	4,551	4,617	4,649	1.3
	과채가공	1,019	1,532	1,265	1,169	1,181	1,271	4.5
	식용유지	307	779	536	452	422	515	10.9
	빵·과자·국수	5,459	5,768	6,210	6,279	6,271	6,390	3.2
	조미료	1,836	1,868	2,090	2,143	2,042	1,889	0.6
	기타식품	3,711	3,053	3,953	4,425	4,555	4,795	5.3
	알코올음료	1,248	1,811	1,467	1,324	1,354	1,484	3.5
	비알콜음료	2,122	1,678	1,750	1,795	1,836	1,770	-3.6
음식료품제조업 계	35,038	35,461	36,621	37,764	38,878	40,036	2.7	
경상 가격	식품소재	10,430	10,904	11,784	12,722	13,697	14,580	6.9
	도정·제분	4,719	4,998	5,444	5,925	6,415	6,871	7.8
	도축·도계	5,711	5,906	6,340	6,797	7,281	7,710	6.2
	식품가공	27,326	27,874	29,465	31,176	33,026	34,688	4.9
	육가공	1,263	1,541	1,359	1,477	1,633	1,596	4.8
	유가공	4,457	3,662	3,705	3,964	4,620	5,081	2.7
	수산가공	4,687	4,639	4,947	5,290	5,549	5,721	4.1
	과채가공	1,098	1,676	1,425	1,359	1,419	1,564	7.3
	식용유지	330	852	604	526	508	634	13.9
	빵·과자·국수	5,882	6,307	6,994	7,298	7,536	7,863	6.0
	조미료	1,979	2,043	2,354	2,491	2,454	2,325	3.3
	기타식품	3,999	3,339	4,452	5,144	5,474	5,901	8.1
	알코올음료	1,345	1,980	1,653	1,540	1,627	1,826	6.3
	비알콜음료	2,286	1,835	1,971	2,087	2,207	2,178	-1.0
음식료품제조업 계	37,756	38,778	41,248	43,898	46,723	49,269	5.5	

과채가공 부문은 불변가격 기준 2009년 1조 188억원에서 2014년 1조 2,705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조 979억원에서 1조 5,635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채가공 부문의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은 웰빙트렌드에 부응한 최소가공제품의 소비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육가공 부문은 불변가격 기준 2009년 1조 1,721억원에서 2014년에는 1조 2,971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조 2,630억원에서 1조 5,963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용유지 부문은 불변가격 기준 2009년 3,066억원에서 2014년에는 5,148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식품가공산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1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3,303억원에서 6,335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 취업 및 고용⁸⁾

가. 취업

푸드시스템 전체로 취업자수는 2009년 3,315천명에서 2014년 3,473백만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푸드시스템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농수산 부문에서 1,640천명에서 1,605천명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0.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점하는 외식부문은 1,401천명에서 1,557천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84> 푸드시스템의 취업자 수 전망

단위: 천명, %

부 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푸드시스템계	3,315	3,276	3,329	3,389	3,429	3,473	0.9
농 수 산	1,640	1,593	1,595	1,601	1,602	1,605	-0.4
음식료품제조업	275	277	290	299	304	311	2.5
식품소재	43	43	45	46	48	49	2.8
식품가공	232	233	245	253	257	263	2.5
외 식	1,401	1,406	1,444	1,489	1,522	1,557	2.1

음식료품제조업은 식품소재 부문이 43천명에서 49천명으로 연평균 2.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식품가공 부문이 232천명에서 263천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음식료품제조업 전체로는 275천명에서 311천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 산업연관표의 음식료품제조업 취업자수는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본 전망은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종사자수 또는 그 전망치와 단순 비교할 수 없음

나. 고용

푸드시스템 전체로 고용자수는 2009년 997천명에서 2014년 1,086천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푸드시스템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외식 부문은 650천명에서 722천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수산 부문은 149천명에서 142천명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료품제조업은 식품소재 부문이 34천명에서 39천명으로 연평균 2.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식품가공 부문이 163천명에서 183천명으로 연평균 2.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음식료품제조업 전체로는 197천명에서 221천명으로 연평균 2.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85> 푸드시스템의 고용자 수 전망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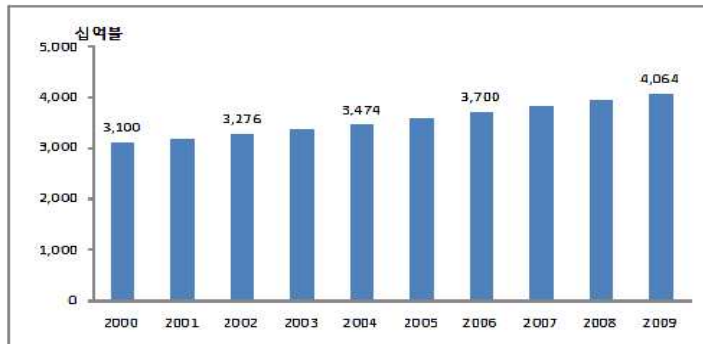
부 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푸드시스템계	997	995	1,020	1,047	1,066	1,086	1.7
농 수 산	149	144	144	143	142	142	-1.1
음식료품제조업	197	198	206	212	217	221	2.3
식품소재	34	34	35	37	38	39	2.7
식품가공	163	164	171	176	179	183	2.3
외 식	650	653	670	691	707	722	2.1

제 2 부 해외 식품산업 동향

I. 세계식품시장 규모

2009년도 세계식품시장규모⁹⁾는 리서치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영국의 리서치기관인 Datamonitor가 추정한 바에 위하면 약 4조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00년 3조 1천억 달러에서 '09년 4조 달러로 9년 동안 연평균 3.1%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에 힘입어 세계식품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3.1%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4.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2-1> 세계식품시장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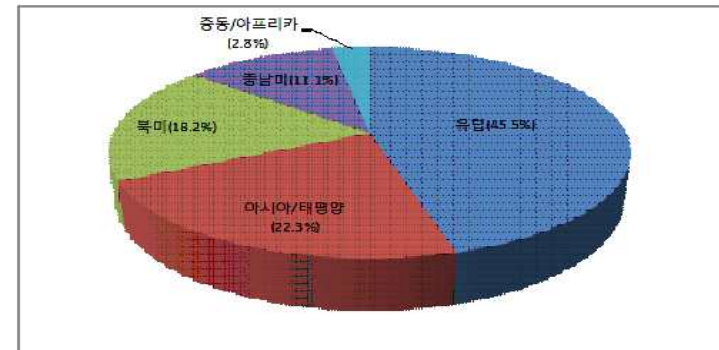
자료: Datamonitor

2009년도 식품시장의 규모를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이 약 1.9천억 달러로 전체 식품시장의 45.5%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

9) 농산물, 외식업 및 식품유통업을 제외한 음료제품제조업에 포함되는 식품시장 규모임.

지역이 22.3%인 9.1천억 달러, 북미지역이 7.4천억 달러로 18.2%, 중남미가 4.5천억 달러로 11.1%,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1.1천억 달러로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세계식품시장 대륙별 비중(2009)



자료: Datamonitor

II. 미국 식품산업 동향

1. 음식료품제조업¹⁰⁾ 동향

가. 출하동향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출하액은 '00년 11.3%에서 '06년 11.7%, 부가가치는 10.5%에서 11.5%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의 경우는 '00년 7.7%에서 '06년 8.2%로 조금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의 경우에도 '00년 9.5%에서 '06년 1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음식료품제조업이 고용측면에서도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출하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사업체수
2000	11.3	10.5	9.5	7.7
2006	11.7	11.5	11.3	8.2

자료: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2006년도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은 총 5,854억 달러로 이 중 식료품 출하액이 5,030억 달러로 85.9%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음료품 출하액으로 824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다. 음식료품제조업 전체 출하액은 '00년 4,742억 달러에서 '06년 5,854억 달러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6%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의 경우도 '00년 2,071억 달러에서 '06년 2,618억 달러로 연평균 4.0%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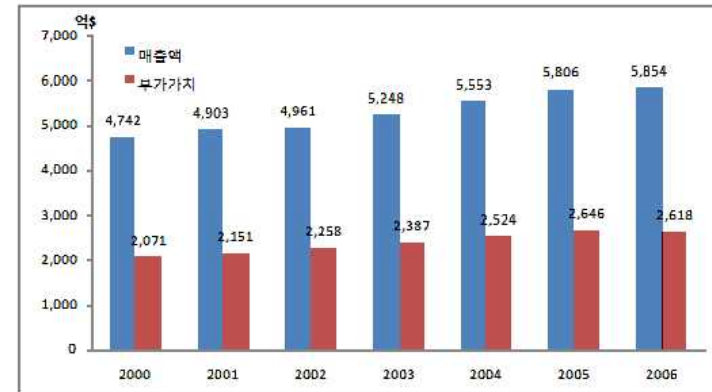
10) 본 분석에서는 사료제조업 미포함

가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약 4%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료품의 출하액은 '00~'06년 기간 동안 연평균 3.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료품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여 음료산업이 더 큰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즉 부가가치율을 보면 '00년 43.7%에서 '06년에는 44.7%로 조금 증가하였으며 이를 식료품과 음료품으로 구분하여 보면 식료품은 '00년 43.1%에서 '06년 43.5%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료품의 부가가치율은 '00년 47.5%에서 '06년 52.0%로 음료산업의 부가가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미국 음식료품제조업 출하액 및 부가가치 추이



자료: 상무성,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나. 산업구조

2006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를 보면 식료품제조업이 5,030

억 달러로 8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이 25.6%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낙농제조업이 12.9%, 기타음식료품제조업이 12.2%, 곡물 및 유지작물제조업이 9.7%, 빵류제조업이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도 음료품 출하액은 824억 달러로 음료품제조업의 1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청량음료 및 얼음제조업이 7.3%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맥주제조업 3.7%, 와인제조업 2.0%, 증류주제조업 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현황

단위: 억\$, %

	2000		2003		200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음식료품제조업	4,742	100.0	5,248	100.0	5,854	100.0
식료품 제조업(사료제조업 제외)	4,110	86.7	4,547	86.6	5,030	85.9
곡물 및 유지작물	448	9.5	538	10.3	570	9.7
설탕 및 과자제품 제조업	257	5.4	265	5.0	282	4.8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503	10.6	531	10.1	562	9.6
낙농제품 제조업	608	12.8	678	12.9	753	12.9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업	1,194	25.2	1,342	25.6	1,496	25.6
수산물 제품가공 및 저장처리업	85	1.8	88	1.7	108	1.9
빵류 제조업	480	10.1	489	9.3	542	9.3
기타 식품 제조업	535	11.3	616	11.7	717	12.2
음료제조업(담배제조업 제외)	632	13.3	701	13.4	824	14.1
청량 음료 및 얼음 제조	350	7.4	358	6.8	434	7.4
맥주 제조업	165	3.5	204	3.9	216	3.7
와인 제조업	75	1.6	92	1.7	117	2.0
증류주 제조업	42	0.9	47	0.9	58	1.0

자료: 상무성,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2000년도와 비교할 경우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 낙농제품제조업, 곡물 및 유지작물제조업이 증가하였지만 맥주제조업 등 주류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음료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식료품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2006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를 보면 식료품제조업이 2,189억 달러로 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이 528억 달러로 20.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음식료품제조업이 15.2%, 빵류제조업이 13.1%,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이 10.6%, 낙농제품제조업이 9.2%를 기록하고 있다.

<표 2-3>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현황

단위: 억\$, %

	2000		2003		200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음식료품제조업	2,071	100.0	2,387	100.0	2,618	100.0
식료품 제조업(사료제조업 제외)	1,771	85.5	2,011	84.3	2,189	83.6
곡물 및 유지작물	178	8.6	203	8.5	200	7.6
설탕 및 과자제품 제조업	137	6.6	138	5.8	157	6.0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259	12.5	286	12.0	277	10.6
낙농제품 제조업	201	9.7	227	9.5	241	9.2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업	356	17.2	439	18.4	528	20.2
수산물 제품가공 및 저장처리업	30	1.4	34	1.4	43	1.7
빵류 제조업	310	15.0	322	13.5	344	13.1
기타 식품 제조업	300	14.5	363	15.2	398	15.2
음료제조업(담배제조업 제외)	300	14.5	376	15.7	429	16.4
청량 음료 및 얼음 제조	138	6.7	157	6.6	184	7.0
맥주 제조업	99	4.8	136	5.7	138	5.3
와인 제조업	39	1.9	50	2.1	71	2.7
증류주 제조업	24	1.1	33	1.4	36	1.4

자료: 상무성,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2006년도 음료품제조업 부가가치는 429억 달러로 1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청량음료 및 얼음제조업이 7.0%로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맥주제조업이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00년 46.9%에서 '06년에는 45.6%, 음료품은 '00년 56.1%에서 '06년 55.5%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료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50%를 상회하여 부가가치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4>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2000	2002	2004	2006
음식료품제조업	46.9	48.3	47.4	45.6
식료품 제조업(사료제조업 제외)	43.7	45.5	45.5	44.7
곡물 및 유지작물	43.1	44.8	44.2	43.5
설탕 및 과자제품 제조업	39.6	37.4	37.1	35.1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53.3	53.1	53.3	55.8
낙농제품 제조업	51.4	55.2	52.1	49.4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업	33.0	33.7	33.5	32.1
수산물 제품가공 및 저장처리업	29.8	33.1	33.7	35.3
빵류 제조업	35.1	37.1	39.4	39.9
기타 식품 제조업	64.7	65.4	66.4	63.4
음료제조업(담배제조업 제외)	56.1	59.3	58.2	55.5
청량 음료 및 얼음 제조	47.5	49.9	53.6	52.0
맥주 제조업	39.4	40.6	45.1	42.4
와인 제조업	60.1	61.4	65.7	63.8
증류주 제조업	52.8	55.2	60.0	60.6

자료: 상무성,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2006년도 기준 식료품제조업 중에서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스낵 및 커피제조업을 포함하는 기타음식료품제조업으로서 6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55.8%, 낙농제품 제조업 49.4%, 곡물 및 유지작물 43.5%, 수산물 제품가공 및 저장처리업 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32.1%에 불과하여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음료품의 경우 와인제조업이 63.8%, 증류주제조업이 60.6%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청량음료 및 얼음제조업은 52.0%를 나타냈다.

2000년과 비교할 경우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빵류제조업, 수산물 제품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부가가치율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음료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음식료품제조업 사업체수는 27,939개이고 식료품제조업 사업체수는 23,979개로 사업체수 전체의 8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빵류제조업이 10,269개로 36.8%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업체수 비중이 높은 산업은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으로서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0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음료품제조업의 사업체수는 3,960개로 비중은 14.2%를 차지하고 있고 '00년에 비해 사업체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와인제조업의 사업체수 비중이 3.1%에서 7.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음식료품제조업 종사자수는 1,528,262명이며 그 중에서 식료품제조업 종사자수는 1,392,283명으로 9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제조업 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 종사자수 비중이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빵류제조업 18.6%, 기타음식료품제조업 10.7%,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0.6% 등의 순으로 종사자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0년과 비교할 때 도축 및 육류가공처리업의 종사자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낙농제품 제조업을 포함한 축산부문의 종사자수 비중이 40.4%로 고용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5>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

	2000		2003		2007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음식료품제조업	27,439	100.0	28,551	100.0	27,939	100.0
식료품 제조업(사료제조업 제외)	24,691	90.0	25,469	89.2	23,979	85.8
곡물 및 유지작물	913	3.3	827	2.9	830	3.0
설탕 및 과자제품 제조업	1,689	6.2	1,868	6.5	1,788	6.4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796	6.5	1,781	6.2	1,668	6.0
낙농제품 제조업	1,769	6.4	1,681	5.9	1,612	5.8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업	4,032	14.7	4,004	14.0	3,817	13.7
수산물제품 가공 및 저장처리업	854	3.1	764	2.7	685	2.5
빵류 제조업	10,644	38.8	11,514	40.3	10,269	36.8
기타 식품 제조업	2,994	10.9	3,030	10.6	3,310	11.8
음료제조업(담배제조업 제외)	2,748	10.0	3,082	10.8	3,960	14.2
청량 음료 및 얼음 제조	1,289	4.7	1,289	4.5	1,346	4.8
맥주 제조업	538	2.0	389	1.4	399	1.4
와인 제조업	856	3.1	1,323	4.6	2,117	7.6
증류주 제조업	65	0.2	81	0.3	98	0.4

자료: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음료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135,979명으로 음식료품제조업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량음료 및 얼음제조업 종사자수 비중이 3.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고용측면에서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다.

<표 2-6>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 현황

단위: 명, %

	2000		2003		2007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음식료품제조업	1,557,390	100.0	1,579,991	100.0	1,528,262	100.0
식료품 제조업(사료제조업 제외)	1,417,453	91.0	1,448,660	91.7	1,392,283	91.1
곡물 및 유지작물	59,853	3.8	54,918	3.5	58,049	3.8
설탕 및 과자제품 제조업	84,106	5.4	79,630	5.0	73,457	4.8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66,650	10.7	163,763	10.4	162,253	10.6
낙농제품 제조업	132,017	8.5	134,287	8.5	129,692	8.5
도축 및 육류 가공처리업	491,111	31.5	499,898	31.6	487,813	31.9
수산물 제품가공 및 저장처리업	41,770	2.7	39,580	2.5	33,169	2.2
빵류 제조업	293,331	18.8	317,040	20.1	284,998	18.6
기타 식품 제조업	148,615	9.5	159,544	10.1	162,852	10.7
음료제조업(담배제조업 제외)	139,937	9.0	131,331	8.3	135,979	8.9
청량 음료 및 얼음 제조	69,874	4.5	62,024	3.9	55,884	3.7
맥주 제조업	5,396	0.3	6,499	0.4	9,507	0.6
와인 제조업	5,032	0.3	5,198	0.3	5,240	0.3
증류주 제조업	32,122	2.1	26,673	1.7	27,398	1.8

자료: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2. 외식산업

가. 산업동향

미국의 외식산업 시장규모는 '07년 4,330억 달러로 '00년 이후 연평균 5.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는 '00년 482,560개소에서 '07년 568,586개로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종사자수의 경우도 '00년 이후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나타내 '07년에는 약 970만명에 달하였다.

<표 2-7> 미국의 외식산업 성장 추이

단위: 백만\$, 개, 명, %

	2000	2003	2005	2007	연평균 증가율 ('00-'07)
매출액	305,461	349,693	393,314	433,401	5.1
사업체수	482,560	514,085	540,933	568,586	2.4
종사자수	8,113,141	8,635,903	9,171,410	9,657,310	2.5

자료: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Annual Retail Trade Survey」, 「2007 Economic Census」

미국의 경우도 외식업계를 둘러싼 금융위기, 최저 가치분소득 증가율, 실업률 증가 등의 환경변화가 외식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산업은 미국 노동시장의 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의 주요 취업집단중의 하나로서 일자리 제공에 커다란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레스토랑협회에 의하면 2009년도 전체 외식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566십억 달러, 사업체수는 945,000개, 고용자수는 12백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외식업계의 향후 트렌드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건강식, 소량, 유기식품이나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 메뉴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와 물 사용을 줄이는 것과 같은 녹색사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산업구조

미국의 외식산업 업체별 사업체수 비중을 서비스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완전서비스음식점 비중이 '03년 39.0%에서 '07년 38.6%로 조금 감소하였으며 제한서비스음식점의 비중은 '03년 45.6%에서 '07년 46.9%로 증가하였다.

<표 2-8> 미국의 외식산업 업체별 사업체수 비중

단위: 개, %

구 분	2003		2005		2007	
음식점 및 주점업	514,085	100.0	540,933	100.0	568,586	100.0
완전서비스 음식점	200,371	39.0	210,223	38.9	219,472	38.6
제한서비스 음식점	234,374	45.6	250,305	46.3	266,844	46.9
제한서비스 음식점	190,674	37.1	200,829	37.1	211,054	37.1
카페테리아, 뷔페	6,377	1.2	6,567	1.2	6,938	1.2
스낵 및 음료 전문점	37,323	7.3	42,909	7.9	48,852	8.6
기타음식점	31,290	6.1	33,214	6.1	35,322	6.2
위탁급식업	19,881	3.9	20,775	3.8	22,200	3.9
출장음식업	9,007	1.8	10,111	1.9	10,831	1.9
이동음식업	2,402	0.5	2,328	0.4	2,291	0.4
주점업	48,050	9.3	47,191	8.7	46,948	8.3

자료: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제한서비스음식점 중에서는 스낵 및 음료전문점의 비중이 '03년 7.3%에서 '07년 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음식점의 경우에는 업태간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이동음식점의 경우만 조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점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03년 9.3%에서 '07년 8.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종사자수 비중을 서비스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수의 47.4%가 완전서비스음식점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서비스음식점에는 42.8%, 기타음식점에는 6.0%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9> 미국의 외식산업 업태별 종사자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3		2005		2007	
	명	%	명	%	명	%
음식점 및 주점업	8,635,903	100.0	9,171,410	100.0	9,657,310	100.0
완전서비스 음식점	4,091,133	47.4	4,340,155	47.3	4,579,941	47.4
제한서비스 음식점	3,640,644	42.2	3,927,204	42.8	4,136,741	42.8
제한서비스 음식점	3,168,503	36.7	3,392,145	37.0	3,512,497	36.4
카페테리아, 뷔페	128,755	1.5	122,486	1.3	128,020	1.3
스낵 및 음료전문점	343,386	4.0	412,573	4.5	496,224	5.1
기타음식점	552,810	6.4	552,139	6.0	575,579	6.0
위탁급식업	428,324	5.0	420,734	4.6	433,077	4.5
출장음식업	114,713	1.3	121,951	1.3	133,380	1.4
이동음식업	9,773	0.1	9,454	0.1	9,122	0.1
주점업	351,316	4.1	351,912	3.8	365,049	3.8

자료: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제한서비스음식점에서는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제한서비스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스낵 및 음료전문점,

카페테리아 및 뷔페 순으로 종사자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음식점의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전체 음식점의 5.0%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출장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03년 이후 업태별 종사자수 비중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외식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성비를 보면 종사자수 4인 이하의 사업체수 비중은 '00년 33.1%에서 '06년에는 31.9%로 영세사업체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인 규모의 사업체수와 10-19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수는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20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수 비중은 감소하였다.

반면 500인 이상 사업체수의 비중은 '00년 17.2%에서 '06년 17.7%로 연평균 2.6%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0> 미국의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규모별	2000		2003		2006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0-4	33.1	3.2	32.7	3.1	31.9	5.1
5-9	14.7	5.8	15.1	6.0	15.0	5.0
10-19	12.9	10.2	12.8	10.3	13.6	9.1
20인 미만	60.7	19.3	60.6	19.4	60.5	19.2
20-99	15.9	30.6	15.6	30.4	15.6	28.8
100-499	6.1	14.5	6.4	15.0	6.1	13.7
500인 미만	82.8	64.4	82.6	64.8	82.3	61.7
500인 이상	17.2	35.6	17.4	35.2	17.7	38.3

자료: 상무성, 「Statistics of U.S. Businesses」

3. 식품유통업

가. 산업동향

미국의 식품유통도매업 현황을 보면 사업체수의 경우 '07년 기준 33,620개소로 '02년에 비해 연평균 2.7% 감소하였으며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년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유통도매업에 종사하는 인력현황을 보면 '07년도 기준 768,342명으로 나타났다으며 '02년에 비하면 연평균 2.3% 감소하였고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년 14.7%에서 '07년에는 1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유통도매업 판매액은 '07년도의 경우 약 6,730억 달러이며 '02년도와 비교하여 5.6% 증가하였으며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미국 식품유통도매업 현황

단위: 개, 명, 백만\$, %

	2002		2005		2007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사업체수	38,550	8.8	33,867	7.9	33,620	7.7
종사자수	861,427	14.7	764,404	12.8	768,342	12.9
판매액	511,438	11.0	574,098	11.1	672,975	11.1

자료: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Annual Wholesale Trade」, 「2007 Economic Census」

식품유통소매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07년 151,031개소로 '02년도에 비하여 0.6% 감소하였으며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년 13.9%에서 '07년 13.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유통소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07년 2,881,783명으로 '02년에 비해 0.8%씩 감소하고 있고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년 20.2%에서 '07년 18.3%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유통소매업 매출액은 '07년에 약 5,395억 달러로 '02년에 비해 연평균 3.8%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년 14.9%에서 '07년 13.7%로 감소하였다.

<표 2-12> 미국 식품유통소매업 현황

단위: 개, 명, 백만\$, %

	2002		2004		2007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사업체수	155,677	13.9	152,521	13.6	151,031	13.4
종사자수	3,004,410	20.2	2,957,236	19.3	2,881,783	18.3
판매액	445,666	14.9	494,966	14.2	539,524	13.7

자료: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Annual Wholesale Trade」, 「2007 Economic Census」

나. 산업구조

미국의 식품유통소매업은 크게 식료품 소매업, 가공식품 소매업 및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으로 구분되는데 '07년도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를 보면 식품유통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료품 소매업 사업체수가 61.1%인 92,315개

으로 가장 많고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이 20.2%인 30,435개소, 가공식품 소매업이 18.7%인 28,173개소로 나타났는데 '02년과 비교할 때 식료품 소매업과 가공식품 소매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세부업종별로 보면 2007년도의 경우 슈퍼마켓 및 기타식료품 소매업이 4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 20.2%, 편의점이 18.7%,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이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02년과 비교할 때 슈퍼마켓 및 기타식료품 소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3>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단위: 개, %

	2002		2004		2007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155,677	100.0	152,521	100.0	151,031	100.0
식료품 소매업	97,166	62.4	96,130	63.0	92,315	61.1
슈퍼마켓 및 기타식료품 소매업	62,934	40.4	67,219	44.1	64,142	42.5
편의점	34,232	22.0	28,911	19.0	28,173	18.7
가공식품 소매업	29,345	18.8	27,032	17.7	28,281	18.7
육류 소매업	6,467	4.2	5,989	3.9	6,055	4.0
수산식품소매업	2,238	1.4	2,151	1.4	2,094	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3,569	2.3	3,210	2.1	3,314	2.2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17,071	11.0	15,682	10.3	16,818	11.1
맥주, 와인 및 주류 소매업	29,166	18.7	29,359	19.2	30,435	20.2

자료: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2007년도 음식료품소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2,881,783명으로서 이를 업종별로 보면 식료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89.0%, 가공식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6.1%,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5.0%로 식료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02년과 비교할 때 가공식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줄어들었다.

이를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슈퍼마켓 및 기타식료품 소매업, 수산식품 소매업, 과실 및 채소 소매업,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점, 육류 소매업 및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종사자는 감소하였는데 특히 편의점 종사자수가 연평균 5.1%의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표 2-14>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단위: 명, %

	2002		2004		2007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2,883,997	100.0	2,957,236	100.0	2,881,783	100.0
식료품 소매업	2,569,351	89.1	2,660,804	90.0	2,564,533	89.0
슈퍼마켓 및 기타식료품 소매업	2,387,828	82.8	2,511,498	84.9	2,424,912	84.1
편의점	181,523	6.3	149,306	5.0	139,621	4.8
가공식품 소매업	176,845	6.1	154,138	5.2	174,558	6.1
육류 소매업	41,765	1.4	39,747	1.3	41,559	1.4
수산식품소매업	9,771	0.3	10,714	0.4	10,380	0.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21,580	0.7	20,211	0.7	23,498	0.8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103,729	3.6	83,466	2.8	99,121	3.4
맥주, 와인 및 주류 소매업	137,801	4.8	142,294	4.8	142,692	5.0

자료: 상무성, 「County Business Patterns」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07년도 매출액은 약 5,395억 달러이며 그 중에서 식료품 소매업이 약 4,870억 달러로 90.3%,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이 약 362억 달러로 6.7%, 가공식품 소매업이 약 164억 달러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02년도에 비해 식료품 소매업의 매출액 비중은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 비중을 보면 슈퍼마켓 및 기타 식료품 소매업의 비중이 8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맥주·와인 및 주류 소매업이 6.7%, 편의점이 3.8%,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이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편의점의 매출액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5> 미국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추이

단위: 천\$, %

	2002		2007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456,942,288	100.0	539,523,919	100.0
식료품 소매업	415,613,872	91.0	486,975,874	90.3
슈퍼마켓 및 기타 식료품 소매업	395,233,897	86.5	466,364,689	86.4
편의점	20,379,975	4.5	20,611,185	3.8
가공식품 소매업	13,081,990	2.9	16,376,764	3.0
육류 소매업	4,423,938	1.0	5,627,331	1.0
수산식품소매업	1,501,257	0.3	1,846,990	0.3
과실 및 채소 소매업	2,770,917	0.6	3,413,486	0.6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4,385,878	1.0	5,488,957	1.0
맥주, 와인 및 주류 소매업	28,246,426	6.2	36,171,281	6.7

자료: 상무성, 「Annual Wholesale Trade」, 「2007 Economic Census」

4. 식품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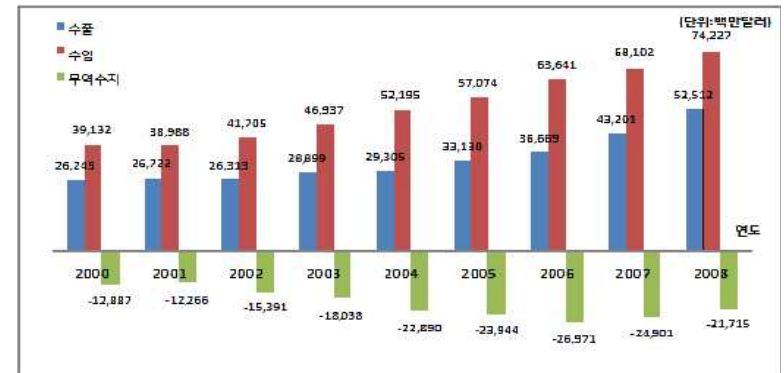
가. 수출입 동향

2008년도 미국의 가공식품 수출은 52,512백만 달러, 수입은 74,227백만 달러로 수입초과가 21,715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수입은 '00년 39,132백만 달러에서 '08년에는 70,670백만 달러로 연평균 8.3%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의 수출은 '00년 26,245백만 달러에서 '08년 52,512백만 달러로 연평균 9.1%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2006년 26,971백만 달러로 최대 적자를 보인 후 감소하여 '08년에는 21,715백만 달러로 '06년 대비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무역수지가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수입의 증가세보다는 수출의 증가세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 미국의 연도별 가공식품 무역수지 변동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나. 수출입 구조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구조를 보면 식료품이 48,472백만 달러, 음료품이 4,040백만 달러로 식료품이 92.3%이다.

식료품 중에서는 육가공품이 12,637백만 달러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채가공품이 10,405백만 달러로 19.8%, 기타식료품이 5,894백만 달러로 11.2%, 식용유지가 4,471백만 달러로 8.5%, 곡물가공품이 4,260백만 달러로 8.1%, 수산가공품이 3,922백만 달러로 7.5%, 유가공이 3,240백만 달러로 6.2%, 빵·떡·과자가 2,313백만 달러로 4.4%, 식품첨가물이 1,039백만 달러로 2.0%, 면류가 291백만 달러로 0.6%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미국의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음료품 수출은 알코올음료가 3,211백만 달러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이고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5%이며 비알콜음료는 829

백만 달러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음식료품제조업 수출구조를 보면 2000~2008년 동안 식료품에서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육가공품으로서 연평균 20.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식용유지가 15.7%, 곡물가공품이 10.8%, 과채가공품이 8.7%, 육가공품도 6.7%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료품의 경우 비알콜음료가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2.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미국의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가금육이 약 32억 달러로 수출 1위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고기(냉동)이 약 19억 달러로 3위, 4위가 쇠고기(신선, 냉장), 7위가 돼지고기(신선, 냉장),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14위 등으로 육가공품의 수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고상 밀크와 크림이 약 14억 달러를 수출하여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몬드가 약 15억 달러 수출하여 5위에 랭크되었다. 그 밖에 정미가 약 12억 달러로 8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대두유 조유가 약 12억 달러로 9위, 위스키가 약 9억 달러로 11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56,988백만 달러, 음료품이 17,239백만 달러로 식료품이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중에서는 수산가공품이 전체 음식료품제조업 수입의 17.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과채가공품이 12,604백만 달러로 17.0%, 기타식료품이 8,696백만 달러로 11.7%, 빵·떡·과자가 6,539백만 달러로 8.8%, 식용유지가 5,210백만 달러로 7.0%, 육가공품이 5,035백만 달러로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료품 수입은 알코올음료가 15,363백만 달러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음식료품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1%로 높으며 비알콜음료는 1,876백만 달러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 음료품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10.9%를 기록하고 있다.

<표 2-16> 미국의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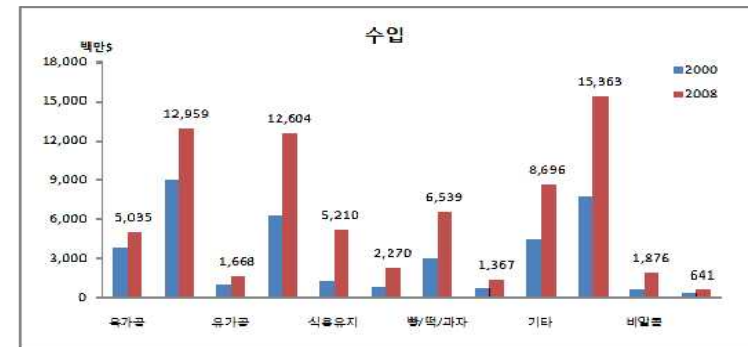
단위: 천\$

순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1	020714	가금류(냉동: 절단, 식용설육)	3,182,885
2	210690	기타 조제식품	3,019,606
3	020329	돼지고기(냉동: 기타)	1,884,603
4	02013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것)	1,597,688
5	080212	아몬드(신선,건조;탈각)	1,478,124
6	040210	밀크와 크림(지방분1.5% 이하)	1,380,355
7	020319	돼지고기(신선,냉장: 기타)	1,227,912
8	100630	정미(연마 여부 불분)	1,212,421
9	150710	대두유 조유	1,118,493
10	190590	기타 유사베이커리 제품(실링페이퍼,성찬용 웨이퍼, 제약용 빈캡슐)	968,815
11	220830	위스키	893,030
12	150200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비가공, 정제유)	780,791
13	220421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 발효억제한 것, 2이하)	744,953
14	020230	쇠고기(냉동:뼈없는것, 기타)	706,877
15	20041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감자(냉동: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	695,075
16	120810	대두 분과 조분	598,662
17	210390	기타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588,330
18	090121	커피(볶은 것:카페인비제거)	484,696
19	080250	피스타치오(신선,건조)	482,217
20	180690	기타 초콜릿 및 코코아 함유식품	473,34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0년 이후의 식품제조업 수입구조를 보면 2000~2008년 동안 식품에서 수입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식용유로서 연평균 18.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곡물가공 부문 13.9%, 빵·떡·과자 부문 10.3%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음료품의 경우 비알콜음료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3.4%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알코올음료의 경우 연평균 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6> 미국의 식품제조업 부문별 수입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8년 기준 미국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포도주가 약 38억 달러로 수입 1위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2위 품목은 약 37억 달러를 수입하는 맥주가 차지하였으며 7위 보드카, 9위 위스키 등 알코올음료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커피(안 볶은 것; 카페인 비제거)가 약 34억 달러로 3위, 새우와 보리새우(냉동)가 약 31억 달러로 4위, 물이 약 13억 달러로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미국 식품제조업의 수출구조는 가금육, 돼지고기 및 쇠고기 등

축산물과 대두유 조유 위주의 수출이 주를 이루면서 육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출 품목의 평균단가가 2003년 kg당 1.0달러에서 2008년은 kg당 1.6달러로 평균단가가 올라가고 있다.

<표 2-17> 미국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2008)

단위: 천\$

순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1	220421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 발효억제한 것, 2이하)	3,842,240
2	220300	맥주	3,674,521
3	090111	커피(안볶은것:카페인비제거)	3,436,860
4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3,149,819
5	030429	기타 어류의 피레트(냉동)	2,236,418
6	020230	쇠고기(냉동:뼈없는것, 기타)	1,486,201
7	220860	보드카	1,462,055
8	080300	바나나(신선,건조: 플렌틴 포함)	1,368,691
9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1,343,768
10	220830	위스키	1,337,556
11	190590	기타 유사베이커리 제품(실링웨이퍼,성찬용 웨이퍼, 제약용 빈캡슐)	1,309,766
12	220210	물(감미, 가향)	1,256,276
13	220710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80도이상)	1,200,215
14	030419	기타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어육(신선,냉장)	1,120,902
15	170490	기타 설탕 과자류(코코아 첨가하지 않은 것)	1,083,439
16	040690	기타 치즈	1,076,226
17	02013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것)	1,001,772
18	151190	팜유와 분획물(조유 제외)	988,916
19	160520	새우와 보리새우(조제,저장처리한 것)	937,947
20	220870	리큐르류 및 코디얼	927,075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18> 미국의 식품 수출단가 현황

단위: \$/kg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단가	1.0	1.0	1.1	1.2	1.3	1.6

자료: WITS

5. 식품소비지출

2008년도 미국가계의 연간소비지출은 50,486달러로 이 중에서 보험이나 연금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전체 지출액의 85.5%인 43,144달러가 소비지출로 사용되었으며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보면 주거에 지출하는 비중이 3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교통통신비 17.0%, 음식료품비 13.6%, 보험 및 연금 1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9> 미국 전가구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3		2005		200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연간지출액	40,238		42,742		46,409		50,486	
식료품	5,435	13.5	5,593	13.1	5,931	12.8	6,443	12.8
주류	423	1.1	442	1.0	426	0.9	444	0.9
주거	12,527	31.1	13,653	31.9	15,167	32.7	17,109	33.9
의류 및 신발	2,004	5.0	1,744	4.1	1,886	4.1	1,801	3.6
교통	7,568	18.8	8,041	18.8	8,344	18.0	8,604	17.0
보건의료	2,120	5.3	2,495	5.8	2,664	5.7	2,976	5.9
오락/문화서비스	1,958	4.9	2,155	5.0	2,388	5.1	2,835	5.6
개인이용서비스	595	1.5	559	1.3	541	1.2	616	1.2
도서/기타인쇄물	156	0.4	133	0.3	126	0.3	116	0.2
교육	636	1.6	792	1.9	940	2.0	1,046	2.1
담배	333	0.8	307	0.7	319	0.7	317	0.6
기타	832	2.1	658	1.5	808	1.7	840	1.7
기부	1,344	3.3	1,458	3.4	1,663	3.6	1,737	3.4
보험 및 연금	4,308	10.7	4,710	11.0	5,204	11.2	5,605	11.1
엔겔계수	14.6		14.1		13.7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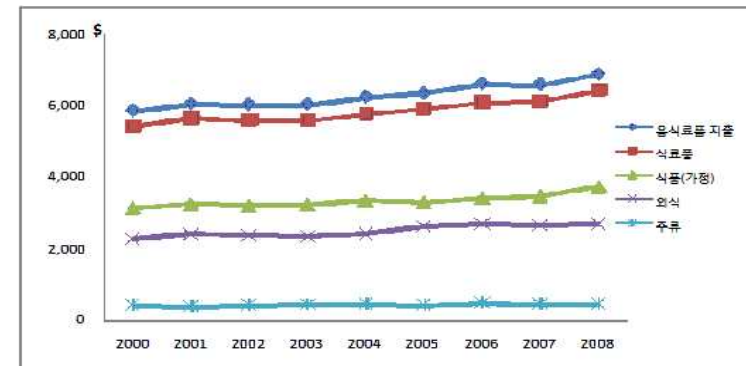
자료: 노동성, 「Consumer expending survey」

'00~'08년 기간 동안 가계지출의 변화를 보면 연간지출액은 연평균 2.9%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교육비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6.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오락 및 문화서비스 4.7%, 보건의료 4.3%, 주거 4.0% 등의 순으로 지출 증가율이 높으며 음식료품비 지출 증가율은 2.7%로 나타났다.

가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계수를 보면 '00년 14.6%에서 '08년에는 13.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비 부문별 지출 추이를 보면 가정에서 소비하는 식품은 '00년 3,154달러에서 '08년에는 3,744달러로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음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0%에서 54.3%로 감소하고 있다. 외식은 '00년 2,280달러에서 '08년 2,698달러로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비중은 38.9%에서 39.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미국의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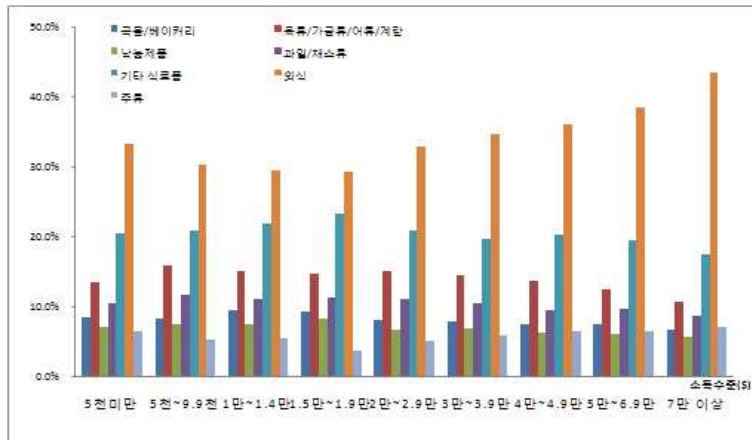
자료: 노동성, 「Consumer expending survey」

2008년도 미국의 소득수준에 따른 음식료품비 지출현황을 보면 전 계층에 걸쳐 외식에 지출하는 비중이 29.3~4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 설탕, 식용유지 및 음료가 포함된 기타식품 17.5~23.3%, 육류/가금류/어류/계란 10.7~16.0%, 과일/채소류 8.7~11.6%, 곡물/베이커리 6.8~9.4%의 지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 및 베이커리 제품에 대한 지출비중을 보면 1만 5천 달러 미만 가구는 비중이 증가하고 그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비중이 작아지고 있다. 육류/가금류/어류/계란에 대한 지출은 2만 달러 이상 가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출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농제품에 대한 지출비중도 2만 달러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지출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과일/채소류에 대한 지출비중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식에 대한 지출 비중은 2만 달러까지 가구는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2만 달러 이상부터는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지출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7만 달러 이상가구의 경우 음식료품비 지출의 43.6%를 외식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미국의 소득수준별 음식료품비 지출 비중(2008)



자료: 노동성, 「Consumer expending survey」

Ⅲ. 일본 식품산업 동향

1. 음식료품제조업¹¹⁾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종사자수의 경우 '00년 13.3%에서 '07년에는 14.3%로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측면에서 식품산업이 중요한 산업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사업체수 비중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하액의 비중은 '00년 10.3%에서 '07년 9.0%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의 경우에도 '00년 10.6%에서 '07년 10.1%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연도	출하액	부가가치	종사자수	사업체수
2000	10.3	10.6	13.3	12.8
2007	9.0	10.1	14.3	14.0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가. 출하동향

2007년도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은 총 30조 5천억 엔으로 이 중 식품 생산이 24.2조 엔으로 79.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음료품 생산으로 약 6.3조 엔에 달하는 규모이다.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은 '00년 30조 9천억 엔에서 '07년 30조 5천억 엔으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0.2%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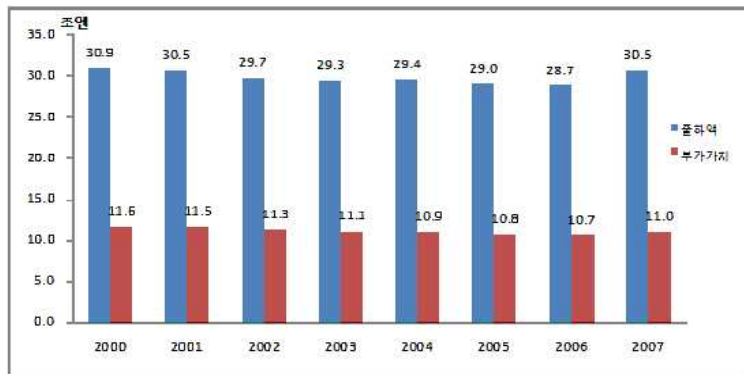
11) 본 분석에서는 사료제조업 미포함

났으며 부가가치는 '00년 11조 6백억 엔에서 '07년 11조 엔으로 연평균 0.9%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일본의 음료식품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정체내지는 감소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료품의 출하액은 '0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0.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료품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6%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음료산업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음료산업이 경기불황 등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음료식품제조업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즉 부가가치율을 보면 '00년 37.7%에서 '07년에는 36.0%로 조금 감소하였으며 이를 식료품과 음료품으로 구분하여 보면 식료품은 '00년 38.2%에서 '07년 36.0%로 2.2% 하락하였으며 음료품의 부가가치율은 '03년 35.9%에서 '07년 35.7%로 0.3% 하락하여 식료품의 부가가치율 하락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9> 일본 음료식품제조업 출하액 및 부가가치 추이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2008년도 일본식품산업에서 제품소비의 트렌드 중 하나는 첫째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제품 특히 제로 타입 제품에 대한 소비가 큰 인기를 얻었다는 점이다. 제로 타입 제품에는 칼로리 제로, 탄수화물 제로, 지방 제로 제품 등이 포함된다. '07년도에 코카콜라와 펄시회사는 칼로리 제로의 음료를 출시해서 커다란 매출신장을 기록했는데 '08년도에는 알코올음료 그 중에서도 맥주, 저알코올 칵테일음료에 대한 붐이 일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음료에서 다른 카테고리의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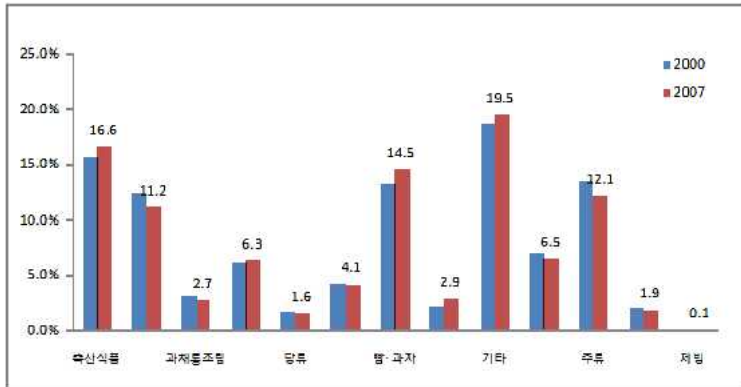
두 번째 경향은 퓨전이다. '08년도 가장 성공적인 퓨전제품으로는 환타에서 출발한 Furufuru Shaker 시리즈로서 젤리 디저트와 탄산음료와의 혼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캔을 열기 전에 내용물의 조직감을 바꾸기 위하여 캔을 흔들어서 먹는 제품이다. 또 다른 퓨전제품은 인스턴트 스프제품으로 색다른 조직감을 위하여 국수대신에 오코계를 함유한 제품이다. 이와 같이 기존 제품에 새로운 것을 첨가한 퓨전제품 출시 경향이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산업구조

2007년도 음료식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를 보면 면류 및 반찬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 식료품 부문이 5조 9천억 엔으로 19.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축산식품이 5조 천억 엔으로 16.6%, 떡·빵·과자류가 4조 4천억 엔으로 14.5%, 주류가 3조 7천억 엔으로 12.1%, 수산식품이 3조 4천억 엔으로 11.2%, 청량음료가 2조 엔으로 6.5%, 조미료가 1조 9천억 엔으로 6.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와 비교할 경우 수산식품, 과채통조림, 청량음료, 차·커피 및 주류 부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량음료 및 주류 등 음료부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일본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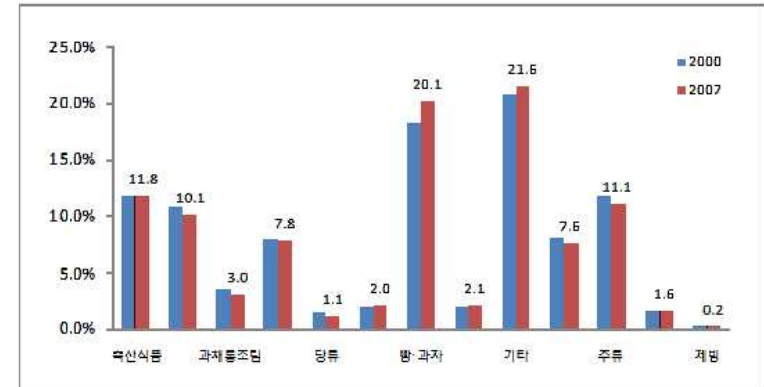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2007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를 보면 출하액과 마찬가지로 기타 식료품 부문이 2조 4천억 엔으로 21.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떡·빵·과자류가 2조 2천억 엔으로 20.1%, 축산식품이 1조 3천억 엔으로 11.8%, 주류가 1조 2천억 엔으로 11.1%, 수산식품이 1조 천억 엔으로 10.1%, 조미료가 8천 6백억 엔으로 7.8%, 청량음료가 8천 3백억 엔으로 7.6%를 차지하여 비중이 높는데 특히 떡·빵·과자류 부문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00년 38.2%에서 '07년에는 36.0%, 음료품은 '00년 35.9%에서 '07년 35.7%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주류제조업과 제빙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1> 일본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한편 '07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음식료품산업 부문은 제빙업으로서 67.6%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빵·과자제조업 49.8%, 조미료제조업 44.5%, 청량음료제조업 41.6%로 부가가치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기타식료품제조업이 39.8%, 야채·과실통조림·농산보존식료품제조업도 39.5%로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 32.3%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곡·제분업이 17.5%로 부가가치율이 가장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당류제조업 24.8%, 축산식료품제조업 25.6%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4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음식료품제조업 사업체수는 '00년도 비교하여 17.4% 감소한 36,194개소로 이 중 식료품 제조업체가 전체의 89.8%인 32,508개소이고 음료품 업체가 전체의 10.2%인 3,686개소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면류 및 반찬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식료품이 31.3%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수산가공업이 20.3%, 빵·과자류제조업 17.5%, 축산식품제조업 7.3%, 야채·과실통조림·농산보존식품제조업 5.8%, 주류제조업 4.7%, 조미료제조업 4.6%, 차·커피제조업 3.4%, 정곡·제분업 2.1% 순으로 비중이 높다.

<표 2-21> 일본의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0	2003	2005	2007
제조업	36.7	36.0	35.2	32.3
음식료품제조업	37.7	37.8	37.1	36.0
식품제조업	38.2	38.3	37.6	36.0
축산식품제조업	28.4	27.8	26.7	25.6
수산식품제조업	32.8	34.3	33.9	32.5
야채·과실통조림·농산보존식품제조업	41.0	41.2	41.8	39.5
조미료제조업	49.2	51.8	49.7	44.5
당류제조업	31.7	28.5	27.8	24.8
정곡·제분업	17.1	17.2	16.7	17.5
빵·과자 제조업	52.4	52.4	51.9	49.8
동식물성유지제조업	33.3	25.7	26.6	25.5
기타식품제조업	41.9	41.5	40.8	39.8
음료제조업	35.9	36.0	35.4	35.7
청량음료제조업	43.1	43.6	41.7	41.6
주류제조업	32.7	32.1	32.7	33.0
차·커피제조업	30.0	32.3	30.2	30.1
제빙업	62.5	69.0	66.7	67.6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음식료품제조업의 사업체수는 식품품 부문이 39,395개소에서 32,508개소로 17.5%, 음료품이 4,440개소에서 3,686개소로 17.0%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43,835개소에서 36,194개소로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청량음료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 사업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일본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단위: %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0	2007	2000	2007
축산식품	6.4	7.3	11.4	11.6
수산식품	20.7	20.3	16.2	14.4
농산보존식품	5.8	5.8	5.2	4.6
조미료	4.3	4.6	4.5	4.5
당류	0.4	0.4	0.7	0.5
정곡·제분	2.0	2.1	1.3	1.2
빵·과자류	17.2	17.5	20.9	22.1
동식물성유지	0.5	0.6	0.6	0.8
기타식품	32.7	31.3	31.8	33.2
청량음료	1.3	1.6	1.9	2.4
주류	4.6	4.7	3.8	3.2
차·커피	3.7	3.4	1.5	1.4
제빙	0.6	0.5	0.2	0.2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음식료품제조업의 규모별 구조를 살펴보면 종업원 4인 이상 9인 이하의 업체가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체의 40.9%에 달하는데 이들 업체가 음식료품제조업의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불과하고 또 종업원 10~50인 이하의 사업체수는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체의 44.1%, 즉 종업원 규모에서 하위 85%의 음식료품업체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23.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식료품제조업체의 7.2%에 불과한 종업원 100인 이상인 업체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61.3%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산업집중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음식료품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07년 현재 1,221,801명으로 '00년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7년 기준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식료품 산업이 전체 고용의 9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중에서는 기타식품 부문이 33.2%, 빵·과자류 부문이 22.1%, 수산식품 부문이 14.4% 순으로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식품 부문도 11.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3> 음식료품제조업 규모별 구성비(2007)

단위: %

구 분	사업체수	출하액	종사자수
4 ~ 9	40.9	2.9	7.5
10 ~ 19	23.7	5.7	9.6
20 ~ 29	13.5	7.4	9.9
30 ~ 49	6.9	7.7	8.0
50 ~ 99	7.8	19.0	16.2
100 ~ 199	4.3	26.2	17.9
200 ~ 299	1.4	15.2	10.4
300 ~ 499	1.0	11.4	11.2
500 ~ 999	0.4	7.0	7.1
1,000명 이상	0.1	1.5	2.2

자료: 일본경제산업성, 「공업통계」

2. 외식산업

가. 산업동향

일본의 외식시장 규모는 2007년도 기준 24조 7천억 엔으로 '01년도 이후 연평균 0.8%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소비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업체수의 경우에도 '01년 794,890개에서 '06년 724,559개로 연평균 1.8% 감소하고 있으며 더불어 종사자수도 '01년 약 429만명에서 '06년 412만명으로 연평균 0.8%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본의 외식시장은 감소 내지는 정체상태에 있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4> 외식산업 성장 추이

단위: 조¥, 개, 명, %

	2001	2003	2006	2007	연평균증가율 ('01-'07)
매출액	25.9	24.6	24.6	24.7	-0.8
사업체수	794,890	-	724,559	-	-1.8
종사자수	4,292,529	-	4,120,914	-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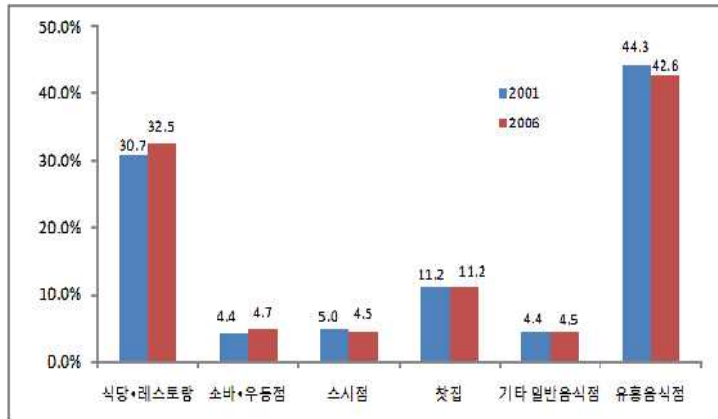
자료: 외식산업종합연구센터, 「외식산업통계자료집 2009」

나. 산업구조

2006년도 기준 외식산업의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유흥음식점이 전체 외식업체의 42.6%인 308,84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식당·레스토랑이 32.5%, 찻집이 11.2%, 소바·우동점이 4.7%, 스시점과 기타 일반음식점이 각각 4.5%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도와 비교할 경우 식당·레스토랑과 소바·우동점이 전체 외식업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일반식당과 서양요리점을 제외한 일본요리점과 그 밖의 식당·레스토랑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유흥음식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외식산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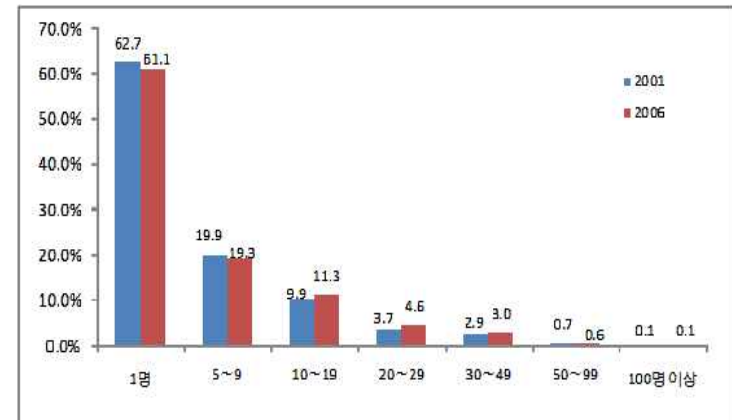


자료: 총무성, 「사업소, 기업통계조사」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를 보면 2006년도의 경우 종사자수가 1명인 외식업체의 비율이 전체 외식업체의 6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5~9인 종사자의 외식업체가 19.3%로 10인 미만인 외식업체의 비율이 전체 외식업체의 80.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외식업체수의 비중은 0.1%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경우도 외식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외식업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1년도와 비교할 경우 10인 미만인 외식업체수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10~49인 외식업체수의 비중은 증가하여 외식업체의 규모가 조금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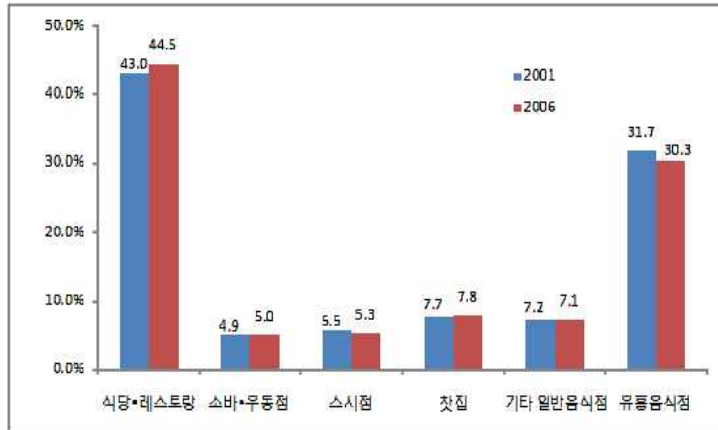


자료: 총무성, 「사업소, 기업통계조사」

2006년도 외식업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당·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이 4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흥음식점이 30.3%, 찻집이 7.8%, 기타 일반음식점이 7.1%, 스시점이 5.3%, 소바·우동점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와 비교할 경우 식당·레스토랑, 소바·우동점, 스시점 및 찻집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기타 일반음식점과 유흥음식점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그림 2-14> 외식산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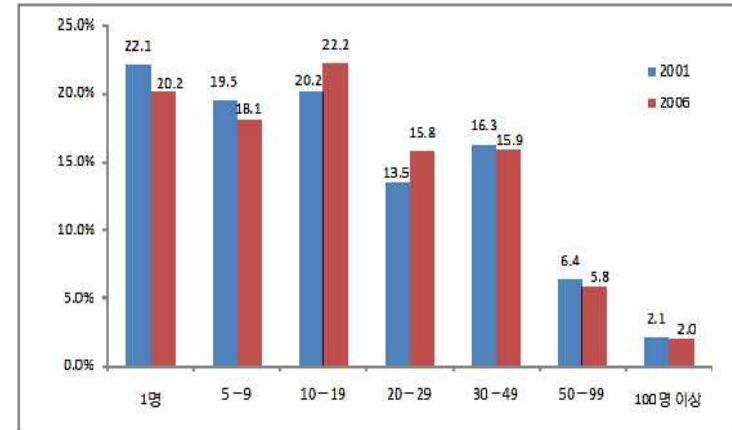


자료: 총무성, 「사업소, 기업통계조사」

2006년도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구성비를 보면 10~19인 규모의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이 2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명 규모의 업체 20.2%, 5~9인 규모 18.1%, 30~49인 규모 15.9%, 20~29인 규모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와 비교할 때 10~29인 규모의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9인 이하 규모의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5>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자료: 총무성, 「사업소, 기업통계조사」

3. 식품유통업

가. 산업동향

일본의 음식료품도매업 현황을 보면 사업체수의 경우 '07년 기준 76,058개로 '02년과 비교할 때 사업체수는 9.0% 감소하였으나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0%에서 22.7%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음식료품도매업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수는 820,011명으로 '02년도 918,242명에 비해 10.7% 감소하였지만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9%에서 23.3%로 조금 증가하였다.

음식료품도매업의 매출액은 '07년의 경우 7조 5,649억 엔이며 '02년도와 비교 하더라도 10.2% 감소하였으며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일본 음식료품도매업 현황

단위: 개, 명, 억¥, %

	2002		2004		2007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도매업
사업체수	83,595	22.0	84,539	22.5	76,058	22.7
종사자수	918,242	22.9	887,159	23.3	820,011	23.3
매출액	84,274	20.4	86,390	21.3	75,649	18.3

자료: 경제산업성, 「상업통계표(산업편)」

음식료품소매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07년에 389,832개로 '02년도에 비해 16.5% 감소하였으며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9%에서 34.3%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음식료품소매업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은 '07년도 3,082,562명으로서 '02년도에 비해 2.5% 감소하였지만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6%에서 40.7%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은 4조 813억 엔으로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였다.

<표 2-26> 일본 음식료품소매업 현황

단위: 개, 명, 억¥, %

	2002		2004		2007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사업체수	466,598	35.9	444,596	35.9	389,832	34.3
종사자수	3,160,832	39.6	3,151,037	40.6	3,082,562	40.7
매출액	41,226	30.5	41,334	31.0	40,813	30.3

자료: 경제산업성, 「상업통계표(산업편)」

나. 산업구조

일본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를 보면 '07년의 경우 편의점 및 우유소매점 등을 포함하는 기타음식료품소매업이 4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과자·빵소매업이 17.0%, 주류소매업이 12.2%, 각종 식료품 소매업이 8.8%, 야채·과실소매업이 6.1%, 생선소매업이 5.1% 등의 순이었다.

2002년과 비교할 때 음식료품소매업 전체적으로 사업체수가 16.5%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주류소매업, 미곡류소매업, 생선소매업, 식육소매업이 20% 이상의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기타음식료품소매업에 속한 편의점은 '02년에 비해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음식료품소매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구성비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타음식료품소매업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수의 비중이 47.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각종 식료품소매업 종사자수가 28.3%, 과자·빵 소매업이 11.1%, 주류소매업이 4.4%, 야채·과실소매업이 2.8%, 생선소매업이 2.2%를 기록하였다.

2002년과 비교할 경우 주류소매업, 미곡류소매업, 생선소매업 종사자수가 20% 이상의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각종 식료품소매업 종사자수는 14.0%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편의점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도 5.9%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일본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단위: 개, %

	2002		2004		2007		증감율 (07/02)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466,598	100.0	444,596	100.0	389,832	100.0	-16.5
각종 식료품소매업	36,615	7.8	38,531	8.7	34,486	8.8	-5.8
주류소매업	65,097	14.0	60,191	13.5	47,696	12.2	-26.7
식육소매업	17,215	3.7	14,824	3.3	13,682	3.5	-20.5
생선소매업	25,485	5.5	23,021	5.2	19,713	5.1	-22.6
야채·과실소매업	29,820	6.4	27,709	6.2	23,950	6.1	-19.7
과자·빵소매업	76,914	16.5	77,653	17.5	66,205	17.0	-13.9
미곡류소매업	22,620	4.8	20,956	4.7	16,769	4.3	-25.9
기타	192,832	41.3	181,711	40.9	167,331	42.9	-13.2
편의점	40,843	8.8	42,372	9.5	42,644	10.9	4.4

자료: 경제산업성, 「상업통계표」

<표 2-28> 일본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단위: 명, %

	2002		2004		2007		증감율 (07/02)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3,160,832	100.0	3,151,037	100.0	3,082,562	100.0	-2.5
각종 식료품소매업	764,841	24.2	855,820	27.2	871,959	28.3	14.0
주류소매업	193,771	6.1	177,264	5.6	137,143	4.4	-29.2
식육소매업	67,269	2.1	58,962	1.9	56,055	1.8	-16.7
생선소매업	87,046	2.8	79,147	2.5	68,774	2.2	-21.0
야채·과실소매업	106,334	3.4	103,774	3.3	87,721	2.8	-17.5
과자·빵소매업	362,259	11.5	367,005	11.6	342,196	11.1	-5.5
미곡류소매업	58,303	1.8	53,216	1.7	41,766	1.4	-28.4
기타	1,521,009	48.1	1,455,849	46.2	1,476,948	47.9	-2.9
편의점	587,567	18.6	600,851	19.1	622,377	20.2	5.9

자료: 경제산업성, 「상업통계표」

4. 식품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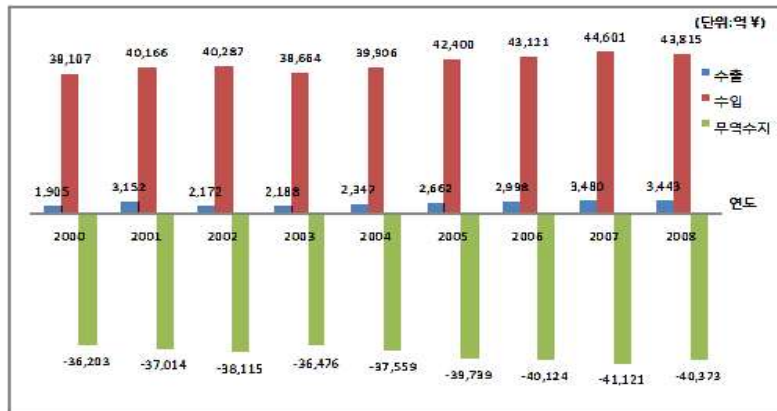
가. 수출입 동향

2008년도 일본의 가공식품의 수출은 3,443억엔, 수입은 4조 3,815억 엔으로 수입초과가 4조 373억 엔에 달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수출은 '00년 1,905억 엔에서 '08년에는 3,443억 엔으로 연평균 7.7%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의 수입은 '00년 3조 8,107억 엔에서 '08년 4조 3,815억 엔으로 연평균 1.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2000년 3조 6,203억 엔에서 2008년 4조 373억 엔으로 연평균 1.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식품 수출입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6> 일본의 연도별 가공식품 무역수지 변동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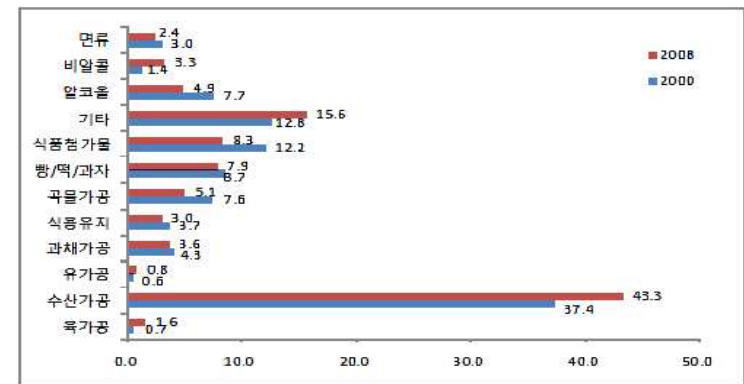
나. 수출입 구조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구조를 보면 식료품이 3,161억 엔, 음료품이 282억 엔으로 식료품이 91.8%를 차지하고 있다.

식료품 중에서는 수산가공이 1,492억 엔으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식료품이 538억 엔으로 15.6%, 식품첨가물이 287억 엔으로 8.3%, 빵·떡·과자가 271억 엔으로 7.9%, 곡물가공이 175억 엔으로 5.1%, 과채가공이 125억 엔으로 3.6%, 식용유지가 105억 엔으로 3.0%, 면류가 81억 엔으로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 수출은 알코올음료가 170억 엔으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이고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1%이며 비알콜음료는 112억 엔으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9%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17> 일본의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0년 이후의 음식료품제조업 수출구조를 보면 2000~2008년 동안 식료품에서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육가공으로서 연평균 20.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유가공이 11.5%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식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그 밖에 수산가공이 9.7%, 빵·떡·과자가 6.4%, 과채가공이 5.6%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음료품의 경우 비알콜음료가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9.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일본의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고등어, 다랑어 등 냉동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식품이 9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첨가물인 소스와 간장, 빵·떡·과자류인 케이크 및 비스킷, 알코올음료인 사과술과 배술, 비알콜음료인 과일주스 등이 상위 20개 품목에 속하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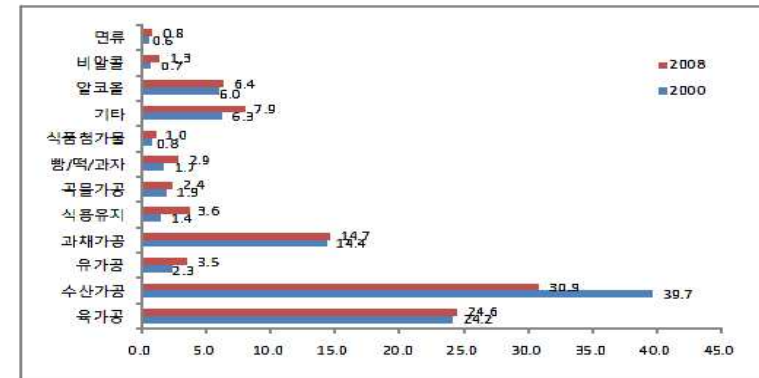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구조를 보면 식료품이 4조 438억엔, 음료품이 3,377억 엔으로 식료품이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중에서는 수산가공품이 전체 음식료품제조업 수입의 30.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육가공품이 1조 760억 엔으로 24.2%, 과채가공품이 6,440억 엔으로 14.4%, 기타식료품이 3,481억 엔으로 6.3%, 유가공은 1,533억 엔으로 2.3%, 곡물가공품은 1,051억 엔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의 경우 알코올음료가 2,798억 엔으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알콜음료는 579억 엔으로 0.7%를 기록하고 있다.

음료품 수입은 알코올음료가 2,798억 엔으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나타났으며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8%로 높으며 비알콜음료는 579억 엔으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음식료품제조업 수입구조를 보면 2000~2008년 동안 식료품에서 수입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식용유지로서 연평균 14.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빵·떡·과자류 부문이 8.3%, 유가공 부문은 7.1%, 면류가 7.0%, 식품첨가물은 5.2%의 연평균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산가공 부문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4%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음료품의 경우 비알콜음료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0.5%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알코올음료의 경우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8> 일본의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8년 기준 일본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돼지고기(냉동)가 약 2,891억엔으로 수입 1위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2위 품목은 약 1,818억엔의 수입을 기록한 새우와 보리새우가 차지하였으며 3위 피레트(냉동), 4위 돼지고기(신선, 냉장), 5위 가금류(냉동), 7위 쇠고기(신선, 냉장), 9위 어육(냉동), 14위 물고기(냉동), 18위 눈다랑어 등 육가공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일본 음식료품제조업의 수출구조는 고등어, 다랑어, 조개 등 수산가

공품 위주의 수출이 주를 이루면서 수산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의 경우 돼지고기(냉동, 냉장), 쇠고기(냉장), 새우(보리새우) 및 낫다랑어 등 육가공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일본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2008)

단위: 천 ¥

순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1	020329	돼지고기(냉동: 기타)	289,065,952
2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81,763,133
3	030429	기타 어류의 피레트(냉동)	157,239,578
4	020319	돼지고기(신선,냉장: 기타)	140,918,080
5	160232	조제,저장처리한 닭고기와 설육	135,807,083
6	020714	가금류(냉동: 절단, 식용설육)	133,507,241
7	02013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것)	129,163,961
8	090111	커피(안볶은것:카페인비제거)	121,850,551
9	030499	기타 어류의 어육(냉동)	108,212,393
10	210690	기타 조제식품	92,426,938
11	020230	쇠고기(냉동:뼈없는것, 기타)	91,974,319
12	220421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 발효억제한 것, 2이하)	91,638,683
13	080300	바나나(신선,건조: 플랜틴 포함)	82,939,880
14	030380	어류의 간장과 어란(냉동)	66,550,501
15	030379	기타어류(냉동)	63,794,841
16	160419	기타 어류(조제,저장처리한 것)	61,092,375
17	151190	팜유와 분획물(조유 제외)	60,685,202
18	040690	기타 치즈	58,211,908
19	030344	낫다랑어(냉동: 터너스 오베시스)	57,850,328
20	160520	새우와 보리새우(조제,저장처리한 것)	54,689,276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5. 식품소비지출

2008년도 일본 전가구의 연평균 월별소비지출은 296,932엔으로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보면 교제비, 이·미용비 등 제잡비에 지출하는 기타부문 비중이 2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료품비 23.2%, 교통·통신비 13.2%, 교양 및 오락비 1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30> 일본 전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분	2000		2003		2005		200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소비지출	317,328		301,841		300,531		296,932	
식료	73,954	23.3	69,910	23.2	68,699	22.9	69,001	23.2
주거	20,522	6.5	20,027	6.6	19,254	6.4	16,897	5.7
광열·수도	21,628	6.8	20,922	6.9	21,492	7.2	22,762	7.7
가구·가사용품	11,024	3.5	10,329	3.4	10,047	3.3	9,984	3.4
피복 및 신발	16,140	5.1	13,868	4.6	13,339	4.4	12,523	4.2
보건의료	11,354	3.6	12,441	4.1	13,020	4.3	12,649	4.3
교통·통신	36,386	11.5	37,417	12.4	38,717	12.9	39,147	13.2
교육	13,921	4.4	13,009	4.3	12,475	4.2	12,727	4.3
교양·오락	32,036	10.1	29,915	9.9	30,729	10.2	31,372	10.6
기타	80,364	25.3	74,002	24.5	72,759	24.2	69,869	23.5
엔겔계수	23.3		23.2		22.9		23.2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00~'08년 기간 동안 가계지출의 변화를 보면 연간지출액은 연평균 0.8% 감소

하였으며 그 중에서 피복 및 신발구입에 지출한 비용이 연평균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비 지출액이 2.4%, 기타 1.7%, 교육 1.1%, 음식료품비 0.9% 등의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연평균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통신비와 광열수도비도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계수를 보면 '00년 23.3%에서 '08년에는 23.2%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전가구의 음식료품비 식품류별 지출 추이를 보면 어개류가 '00년 8,659엔에서 '08년 6,891엔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2.8%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일본 전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연평균 증가율 (00-08)
	곡류	7,280	6,874	6,927	6,279	
어개류	8,659	8,126	7,385	7,163	6,891	-2.8
육류	6,525	6,039	5,967	6,061	6,511	0.0
유제품	3,753	3,619	3,399	3,297	3,244	-1.8
야채·해조류	9,013	8,721	8,642	8,353	8,264	-1.1
과일	3,067	2,947	2,786	2,610	2,624	-1.9
유지류 및 조미료	3,213	3,120	3,104	3,033	3,232	0.1
과자류	4,885	4,862	4,769	4,813	5,027	0.4
조리식품	8,000	8,059	8,013	8,202	7,926	-0.1
음료	3,530	3,525	3,629	3,638	3,615	0.3
주류	3,660	3,434	3,375	3,228	3,367	-1.0
외식	12,370	11,882	11,644	11,434	11,716	-0.7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그 다음으로 과일 1.9%, 유제품 1.8%, 곡류 1.3%, 야채·해조류 1.1%, 주류 1.0%, 외식 0.7%씩 감소하였으며 과자류, 음료, 유지류 및 조미료 지출비가 조금 증가하였을 뿐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음식료품비 지출이 감소 또는 정체되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2008년도 일본 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월별소비지출은 324,929엔으로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보면 교체비, 이·미용비 등 제잡비에 지출하는 기타 부문 비중이 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료품비 21.9%, 교통·통신비 14.9%, 교양 및 오락비 1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전가구에 비하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32> 일본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추이

단위: ¥, %

	2000		2003		2005		200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소비지출	341,896		326,566		329,499		324,929	
식료	75,174	22.0	71,394	21.9	70,947	21.5	71,051	21.9
주거	21,716	6.4	22,222	6.8	21,839	6.6	19,156	5.9
광열·수도	21,282	6.2	20,718	6.3	21,328	6.5	22,666	7.0
가구·가사용품	11,268	3.3	10,427	3.2	10,313	3.1	10,501	3.2
피복 및 신발	17,195	5.0	15,444	4.7	14,971	4.5	14,263	4.4
보건의료	10,901	3.2	11,603	3.6	12,035	3.7	11,593	3.6
교통·통신	43,632	12.8	44,730	13.7	46,986	14.3	48,259	14.9
교육	18,261	5.3	17,857	5.5	18,561	5.6	18,789	5.8
교양·오락	33,796	9.9	32,181	9.9	32,847	10.0	33,390	10.3
기타	88,670	25.9	79,991	24.5	79,671	24.2	75,260	23.2
엔겔계수(%)	22		21.9		21.5		21.9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00~'08년 기간 동안 가계지출의 변화를 보면 연간지출액은 연평균 0.6%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 피복 및 신발구입에 지출한 비용이 연평균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부문 지출이 2.0%, 주거비가 1.6%, 가사·가사용품비 0.9%, 음식료품비 0.7% 등의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통·통신비는 연평균 1.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비와 광열·수도비가 0.8%, 교육비가 0.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국가구와 비교할 경우 교통·통신비의 지출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계수를 보면 '00년 22%에서 '08년에는 21.9%로 거의 변동이 없으나 전국 전가구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근로자가구의 음식료품비 식품류별 지출 추이를 보면 어개류가 '00년 7,854엔에서 '08년 5,995엔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3.3%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야채·해조류가 1.2%, 곡류가 1.1% 감소하였으며 외식은 변동이 거의 없으며 육류만이 0.2% 증가하여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국가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구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료품비 지출이 감소 또는 정체되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일본가계의 소득수준별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를 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육류 및 유제품, 과자류, 조리식품, 음료 및 외식비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식비 지출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351만엔 미만 가구에 비하여 862만엔 이상 가구의 외식비 지출이 23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3> 일본 근로자가구 월평균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단위: ¥, %

	2000	2002	2004	2006	2008	연평균 증가율 (00-08)
곡류	7,328	6,976	7,044	6,341	6,683	-1.1
어개류	7,854	7,376	6,575	6,262	5,995	-3.3
육류	6,727	6,437	6,321	6,333	6,832	0.2
유제품	3,846	3,716	3,480	3,332	3,336	-1.8
야채·해조류	8,520	8,263	8,111	7,715	7,745	-1.2
과일	2,702	2,612	2,381	2,183	2,214	-2.5
유지류 및 조미료	3,212	3,126	3,089	2,960	3,207	0.0
과자류	5,246	5,298	5,238	5,210	5,500	0.6
조리식품	8,266	8,347	8,383	8,472	8,208	-0.1
음료	3,706	3,747	3,866	3,746	3,812	0.4
주류	3,625	3,396	3,398	3,161	3,341	-1.0
외식	14,142	14,141	14,049	13,688	14,178	0.0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표 2-34> 일본 전가구 소득수준별 음식료품비 지출 추이

단위: ¥

	351만엔 미만	351~473	473~627	627~862	862만엔 이상
곡류	5,652	6,064	6,565	7,023	7,607
어개류	6,325	6,552	6,509	6,841	8,227
육류	4,835	5,546	6,389	7,348	8,438
유제품	2,549	2,922	3,223	3,511	4,015
야채·해조류	7,256	7,768	7,887	8,533	9,878
과일	2,468	2,589	2,396	2,527	3,141
유지류 및 조미료	2,767	2,945	3,167	3,398	3,882
과자류	3,690	4,324	5,007	5,598	6,518
조리식품	6,370	6,889	7,873	8,537	9,962
음료	2,761	3,151	3,628	3,985	4,553
주류	2,672	3,028	3,421	3,727	3,989
외식	5,615	8,229	11,412	14,426	18,897

자료: 총무성, 「가계조사연보」

IV. 유럽연합(EU27) 식품산업 동향

1. 음식료품제조업¹²⁾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체수의 경우 '00년 13.5%에서 '07년에는 13.0%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출하액 비중도 '00년 11.8%에서 '07년에는 11.7%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에서 음식료품제조업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00 12.0%에서 '07년 12.8%로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부가가치 비중도 '00년 10.0%에서 '07년 10.2%로 증가하는 등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음식료품제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5> 유럽연합 음식료품제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연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2000	13.5	12.0	11.8	10.0
2007	13.0	12.8	11.7	10.2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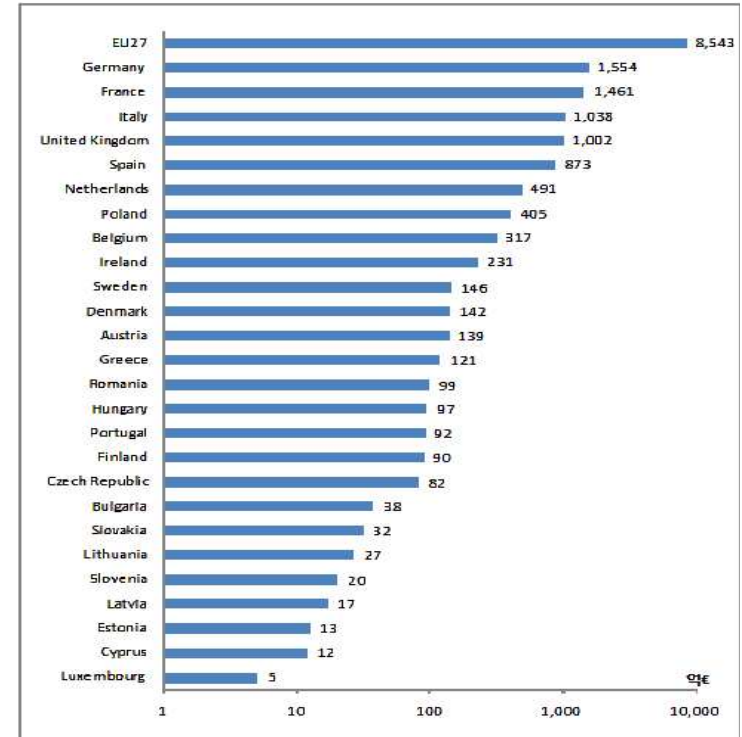
가. 출하동향

유럽연합국가의 2007년도 음식료품제조업 출하액은 총 8,543억 유로로 이 음식료품 생산이 7,179억 유로로 8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음료품 생산으로 약 1,364억 유로에 달하는 규모이다.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은 '00년 6,735억 유로에서 '07년 8,543억 유로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는 '00년 1,548억 유로에서 '07년 1,879억 유로로 연평균

12) 본 분석에서는 사료 및 담배제조업 미포함

2.8%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제조업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9> 음식료품제조업 국가별 출하액 현황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국가별 식품제조업 출하액을 보면 독일이 1,554억유로로 유럽연합 전체 식품제조업의 18.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프랑스로서 17.1%인 1,461억 유로, 이탈리아 1,038억 유로로 12.2%, 영국 1,002억 유로로 11.7%, 스페인 873억 유로로 10.2%를 차지하는 등 이들 5개 국가의 출하액 비중이 69.4%로 유럽연합 국가사이에 편중이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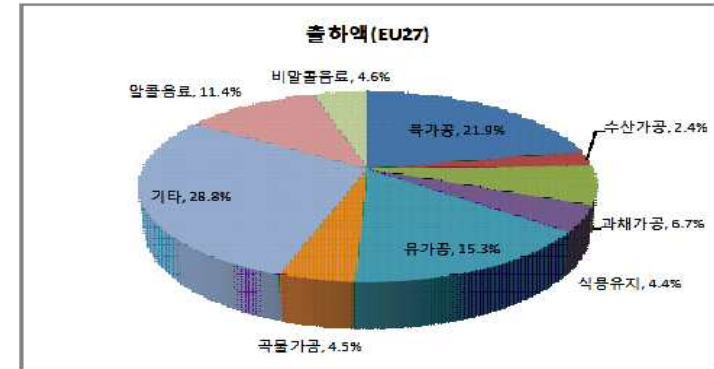
식품의 출하액은 '0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3.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음료품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산업구조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2007년도 식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구성비를 보면 빵류 및 설탕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 식품 부문이 2,463억 유로로 28.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이 1,871억 유로로 21.9%, 유가공 부문이 1,304억 유로로 15.3%, 알코올음료가 972억 유로로 11.4%, 과채가공 부문이 약 577억 유로로 6.7%, 비알콜음료와 식용유지가 각각 4.6%, 4.4%, 수산가공 부문이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은 육가공 및 유가공 부문이 각각 23.4%, 17.9%로 높고, 프랑스의 경우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육가공 및 유가공 부문이 각각 24.5%, 18.2%로 여러 산업부문이 합쳐진 기타식품제조업을 제외하고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육가공 및 유가공 부문이 각각 19.6%, 16.0%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은 음료부문이 2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스키를 위시한 알코올음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육가공 부문도 2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은 육가공 부문이 21.9%로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료부문이 20.0%를 기록하였다.

<그림 2-20> 유럽연합의 식품제조업 부문별 출하액 비중(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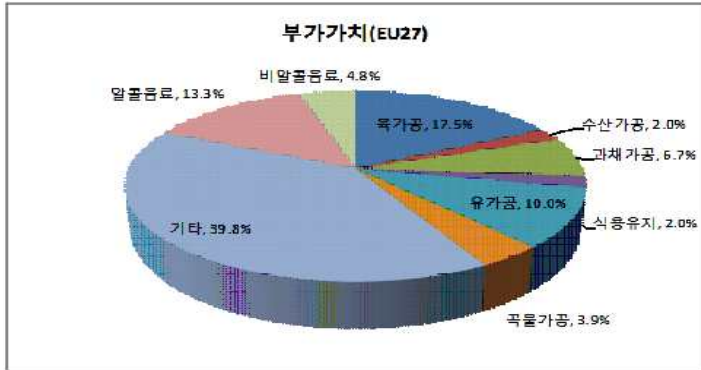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2007년도 식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구성비를 보면 출하액과 마찬가지로 빵류, 면류 등을 포함한 기타 식품제조업 부문이 747억 유로로 39.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이 328억 유로로 17.5%, 알코올음료 부문이 250억 유로로 13.3%, 유가공 부문이 187억 유로로 10.0%, 과채가공 부문이 126억 유로로 6.7%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은 빵류, 면류 등을 포함한 기타 식품제조업 부문이 4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이 20.5%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기타식품 부문, 육가공 부문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영국은 기타식품제조업, 주류를 포함한 음료제조업 부문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페인은 음료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 식품제조업, 육가공 부문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1> 유럽연합의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2007)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한편 음식료품제조업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즉 부가가치율을 보면 '00년 23.0%에서 '07년에는 22.0%로 감소하였으며 이를 식료품과 음료품으로 구분하여 보면 식료품은 '00년 21.9%에서 '07년 21.4%로 조금 하락하였으며 음료품의 부가가치율은 '00년 28.5%에서 '07년 24.9%로 음료품의 부가가치율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7년 동안의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율 추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모든 부문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7년도 기준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기타음식료품제조업으로서 30.3%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빵류, 과자류, 면류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음료산업으로 24.9%, 과채가공 부문은 21.9%였으며 식용유지가 10.0%로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었다.

<표 2-36> 유럽연합의 음식료품제조업 부가가치율 추이

단위: %

	2000	2003	2005	2007
음식료품제조업	23.0	23.5	23.1	22.0
식료품제조업	21.9	22.7	22.3	21.4
육류 및 육제품 생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7.7	19.1	17.8	17.5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8.7	19.5	19.3	18.8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2.4	22.1	22.3	21.9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	12.3	11.6	10.0
낙농제품 제조업	14.8	15.2	14.7	14.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9.0	19.5	20.8	18.8
기타 식품 제조업	30.9	32.0	31.7	30.3
음료제조업	28.5	27.4	26.9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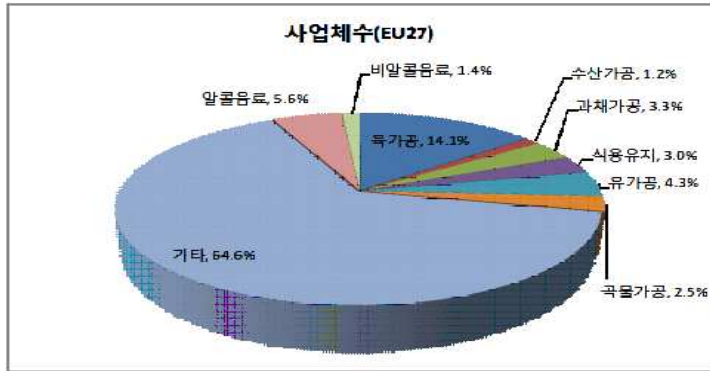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2007년도 음식료품제조업 사업체수는 303,109개로 '00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 중 식료품 제조업체가 전체의 93%인 281,877개소이고 음료품 업체가 전체의 7%인 21,232개소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기타식료품이 6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이 14.1%, 알콜음료 부문이 5.6%, 유가공 부문이 4.3%, 과채가공 3.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다.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육가공, 수산가공 및 곡물가공 부문은 각각 20.6%, 11.1%, 15.9%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과채가공 및 식용유지 부문은 각각 16.9%, 18.7%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07년 기준 빵류, 과자류 및 면류를 포함한 기타음식료품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50%를 넘는 국가가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17개 국가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이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부문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육가공 부문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2> 유럽연합의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사업체수 비중(2007)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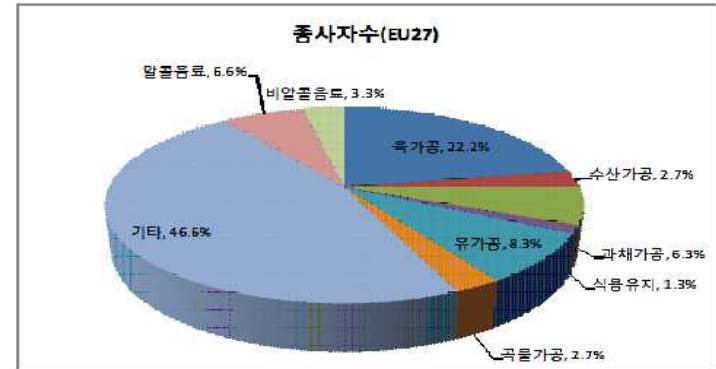
유럽연합의 2007년도 음식료품제조업 종사자수는 4,452,587명으로 '00년도와 비교할 때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식료품 제조업체가 전체의 90.1%인 4,009,815명이고 음료품 업체가 전체의 9.9%인 442,772명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기타식료품이 4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 22.2%, 유가공 부문 8.3%, 알코올음료 부문 6.6%, 과채가공 부문 6.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0년과 비교할 경우 수산가공 및 식용유지 부문은 각각 0.9%, 0.4%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과채가공 및 알코올음료 부문은 각각 21.2%, 11.0%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07년 기준 빵류, 과자류 및 면류를 포함한 기타음식료품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50%를 넘는 국가가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8개 국가에 불과해 사업체수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육가공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의 비중이 20% 이상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체코를 포함하여 16개 국가이며 그 중에서 30%를 넘는 국가는 덴마크, 아일랜드, 폴란드이다. 또한 음료제조업이 10% 이상

인 국가도 불가리아를 포함하여 17개 국가이며 그 중에서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1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3> 유럽연합의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종사자수 비중(2007)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음식료품제조업의 규모별 구조를 살펴보면 종업원 1인 이상 9인 이하의 업체가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체의 79.2%에 달하는데 이들 업체가 음식료품제조업의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하다. 또 종업원 10~19인 이하의 사업체수는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체의 10.7%이고 매출액 비중은 5.5%로 나타났는데 즉 종업원 규모 19인 이하 사업체수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업원 50~249인 이하의 사업체수 비중은 3.6%인데 이들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26.9%, 종업원 250인 이상의 사업체수는 0.9%인데 매출액 비중은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산업집중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1인 이상 9인 이하의 업체 비율이 유럽연합 비율 79%보다 높은 국가는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등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50인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네델란드, 덴마크, 체코를 포함한 8개 국가로 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37> 음식료품제조업¹³⁾ 규모별 구성비(2006)

단위: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1~9	79.2	16.5	6.5
10~19	10.7	9.8	5.5
20~49	5.6	11.6	9.7
50~249	3.6	25.2	26.9
250명이상	0.9	37.0	51.3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13) 사료제조업이 포함된 수치임

2. 외식산업

가. 산업동향

유럽연합 국가의 외식시장 규모는 2007년도 기준 3,170억유로로 '00년도 이후 연평균 4.6%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의 경우에도 '00년 1,259천개에서 '07년 1,457천개로 연평균 2.1%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종사자수도 '00년 약 5,589천명에서 '07년 7,210천명으로 연평균 3.7%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국가의 외식시장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38> 외식산업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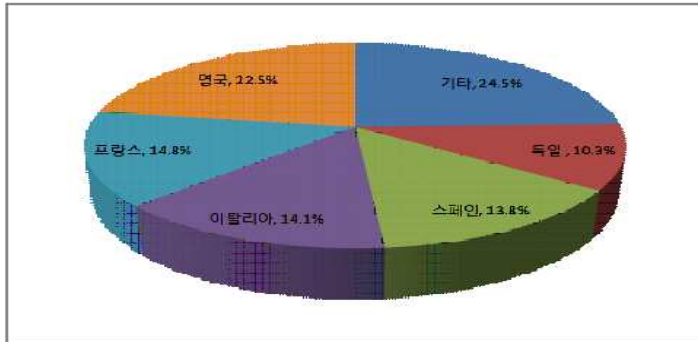
단위: 십억€, 천개, 천명, %

	2000	2003	2005	2007	연평균 증가율 ('00-'07)
매출액	231	254	279	317	4.6
사업체수	1,259	1,264	1,392	1,457	2.1
종사자수	5,589	6,128	6,663	7,210	3.7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유럽연합 국가별 외식시장 규모를 보면 영국이 유럽연합 국가 시장의 22.5%인 약 713억 유로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가 14.8%인 약 469억 유로, 이탈리아가 14.1%인 약 448억 유로, 스페인이 13.8%인 약 436억 유로, 독일이 10.3%인 약 326억 유로로 나타나 이 들 5개 국가의 시장규모가 전체 유럽연합 국가시장의 약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연합 선·후진국가간에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4>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매출액 비중(2007)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나. 산업구조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구성비를 보면 2007년도의 경우 종사자수가 2~9인 이하의 외식업체의 비율이 전체 외식업체의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1인 종사자의 외식업체 비율이 36%로 높게 나타나는 등 10인 미만인 외식업체의 비율이 전체 외식업체의 9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럽연합 국가도 외식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외식업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인 외식업체의 비율이 높은데 이 들 국가를 보면 체코 64.6%, 포르투갈 62.2%, 스웨덴 57.8%, 핀란드 53.6%, 프랑스 51.8%, 벨기에 48.2%, 덴마크 47.9%로 나타났다.

한편 2003년도와 비교할 경우 1인 종사자 업체의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2~9인 이하 업체의 비중이 늘어 전체적으로 10인 미만인 외식업체수의 비중은 변동이 없으나 종사자수 10인 이상 외식업체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9>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

	2003		2005		2007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합 계	1,339,526	100.0	1,389,751	100.0	1,454,852	100.0
1명	488,143	36.4	513,595	37.0	524,209	36.0
2~9	744,362	55.6	773,005	55.6	815,311	56.0
10~19	67,351	5.0	74,394	5.4	83,492	5.7
20~49	20,196	1.5	22,674	1.6	24,915	1.7
50~249	4,388	0.3	4,943	0.4	5,889	0.4
250명 이상	662	0.05	708	0.05	810	0.06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업원수 구성비를 보면 2007년도의 경우 2~9인 이하의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 외식업체의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50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이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19인 이하 업체 종사자수의 비중은 15.4%, 20~49인 이하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7.4%이다.

한편 2003년도와 비교할 경우 10인 미만 업체와 250명 이상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10인 이상 249명 이하 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구성비를 보면 2007년도의 경우 2~9인 이하의 외식업체의 매출액 비중이 전체 외식업체의 4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50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로서 매출액 비중은 20.5%이다. 10~19인 이하 업체는 14.4%, 20~49인 이하 업체는 10.3%이고 1인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7.1%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2-40>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단위: 명, %

	2003		2005		2007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합 계	6,325,373	100.0	6,654,942	100.0	7,200,797	100.0
1명	496,268	7.8	518,342	7.8	530,501	7.4
2~9	2,739,768	43.3	2,875,952	43.2	3,073,165	42.7
10~19	868,883	13.7	979,708	14.7	1,108,014	15.4
20~49	588,405	9.3	666,688	10.0	728,847	10.1
50~249	389,435	6.2	441,735	6.6	508,433	7.1
250명 이상	1,110,017	17.5	1,152,812	17.3	1,215,375	16.9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한편 2003년도와 비교할 경우 1인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10인 이상 249명 이하 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 유럽연합 외식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

	2003년		2005년		2007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합 계	259,085	100.0	278,348	100.0	316,675	100.0
1명	20,633	8.0	21,825	7.8	22,636	7.1
2~9	103,415	39.9	110,973	39.9	126,595	40.0
10~19	33,447	12.9	36,667	13.2	45,473	14.4
20~49	24,114	9.3	27,913	10.0	32,502	10.3
50~249	15,916	6.1	20,332	7.3	23,612	7.5
250명 이상	53,757	20.7	60,151	21.6	64,975	20.5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3. 식품유통업

가. 산업동향

유럽연합의 음식료품도매업 현황을 보면 사업체수의 경우 '07년 기준 208,479 개소로 '00년과 비교할 때 10.7% 증가하였으며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서 11.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음식료품도매업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수는 1,822,491명으로 '00년도 1,509,971명에 비해 20.7% 증가하였지만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에서 17.8%로 조금 감소하였다.

음식료품도매업의 매출액은 '07년의 경우 7,936억 유로이며 '00년도와 비교할 때 30.7% 증가하였으며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와 마찬가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도매업의 부가가치를 보면 '07년도의 경우 779억 유로로 '00년엔 비해 4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변동이 없다.

<표 2-42> 유럽연합 음식료품도매업 현황

단위: 개, 백만€, 명, %

	2000		2003		2007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음식료품 /도매업
사업체수	188,268	12.3	209,085	12.6	208,479	11.9
매출액	607,308	17.8	668,361	18.2	793,639	16.0
부가가치	53,378	13.7	62,913	14.5	77,861	13.7
종사자수	1,509,971	18.5	1,741,576	18.6	1,822,491	17.8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음식료품소매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07년에 429,845개로 '00년도에 비해 1.4% 감소하였으며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7%에서 11.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소매업에 종사하는 고용 인력은 '07년도 1,295,375명으로서 '00년도에 비해 15.5% 증가하였지만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에서 7.2%로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130억 유로로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였으며 부가가치는 232억 유로로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년에 비해 0.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국가별 음식료품소매업 매출액 비중을 보면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전체의 1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스페인 15.1%, 영국 14.2%, 프랑스 12.7%, 독일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3> 유럽연합 음식료품소매업 현황

단위: 개, 백만€, 명, %

	2000		2003		2007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음식료품	음식료품 /소매업
사업체수	436,052	12.7	459,280	12.3	429,845	11.4
매출액	84,245	4.9	99,434	5.0	113,042	4.8
부가가치	16,634	5.2	20,818	5.6	23,257	5.3
종사자수	1,122,005	7.8	1,303,029	7.8	1,295,375	7.2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나. 산업구조

2007년도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를 보면 육류 및 육제품 소매업이 전체 음식료품소매업의 28.3%인 121,680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기타식료품 소매업이 21.8%, 과일 및 채소 소매업 16.9%, 빵/과자류 소매업 15.5%, 주류 및 음료소매업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할 때 음식료품소매업 전체적으로 사업체수가 1.4%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빵류 및 과자류 소매업이 17.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육류 및 육제품 소매업 9.4%, 주류 및 음료 소매업 9.2%의 증가율로 사업체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표 2-44>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사업체수 구성비 추이

단위: 개, %

	2000		2003		2007		증감율 (07/00)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436,052	100.0	459,280	100.0	429,845	100.0	-1.4
과일/채소 소매업	71,079	16.3	75,976	16.5	72,553	16.9	2.1
육류/육제품 소매업	134,231	30.8	131,144	28.6	121,680	28.3	-9.4
수산물 소매업	35,736	8.2	36,758	8.0	34,594	8.1	-3.2
빵/과자류 소매업	56,503	13.0	65,448	14.3	66,493	15.5	17.7
주류/음료 소매업	35,529	8.2	36,829	8.0	38,796	9.0	9.2
기타 식료품 소매업	97,487	22.4	102,567	22.3	93,787	21.8	-3.8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2007년도 음식료품소매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구성비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면 육류 및 육제품 소매업에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수의 비중이 2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빵 및 과자류 소매업이 20.8%, 기타 식료품 소매업이 20.6%, 과일 및 채소 소매업이 1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음식료품소매업 전체적으로 종사자수가 15.5%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기타식료품 소매업 종사자수가 48.2%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빵 및 과자류 소매업 종사자수가 28.5%, 과일 및 채소 소매업 12.9%, 수산물 소매업 11.9%의 순으로 종사자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5>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종사자수 구성비 추이

단위: 명, %

	2000		2003		2007		증 감 율 (07/00)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1,122,005	100.0	1,303,029	100.0	1,295,375	100.0	15.5
과실/채소 소매업	144,524	12.9	167,732	12.9	163,206	12.6	12.9
육류/육제품 소매업	361,135	32.2	365,260	28.0	366,812	28.3	1.6
수산물 소매업	68,525	6.1	77,724	6.0	76,652	5.9	11.9
빵/과자류 소매업	209,412	18.7	246,433	18.9	269,065	20.8	28.5
주류/음료 소매업	130,793	11.7	135,765	10.4	135,014	10.4	3.2
기타 식료품 소매업	180,168	16.1	269,071	20.7	266,933	20.6	48.2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2007년도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를 보면 육류 및 육제품 소매업이 29.0%인 328억 유로로 가장 매출액이 많고 그 다음으로 기타 식료품 소매업으로 21.6%인 244억 유로, 주류 및 음료 소매업이 180억 유로로 15.9%, 빵 및 과자류 소매업이 11.9%인 134억 유로, 과일 및 채소 소매업이 11.5%인 130억 유

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음식료품소매업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34.2%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기타식료품 소매업 매출액이 60.2%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빵 및 과자류 소매업 매출액이 48.9%, 주류 및 음료 소매업이 22.9%, 수산물 소매업이 21.9%의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표 2-46> 유럽연합 국가의 음식료품소매업 업종별 매출액 구성비 추이

단위: 백만€, %

	2000		2003		2007		증 감 율 (07/00)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음식료품소매업	84,245	100.0	99,434	100.0	113,042	100.0	34.2
과실/채소 소매업	11,006	13.1	11,919	12.0	12,965	11.5	17.8
육류/육제품 소매업	28,678	34.0	29,830	30.0	32,807	29.0	14.4
수산물 소매업	5,576	6.6	6,180	6.2	6,795	6.0	21.9
빵/과자류 소매업	9,019	10.7	11,232	11.3	13,425	11.9	48.9
주류/음료 소매업	14,646	17.4	15,206	15.3	17,996	15.9	22.9
기타 식료품 소매업	15,243	18.1	19,576	19.7	24,413	21.6	60.2

자료: Eurostat,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

4. 식품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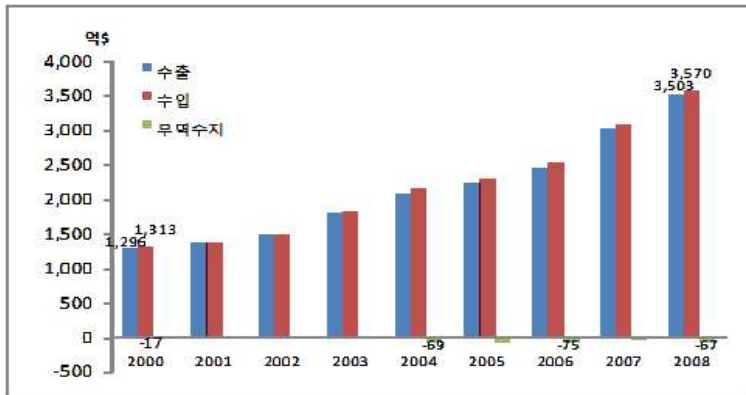
가. 수출입 동향

2008년도 유럽연합의 가공식품 수출은 3,503억 달러, 수입은 3,570억 달러로 수입초과가 6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수출은 '00년 1,296억 달러에서 '08년에는 3,503억 달러로 연평균 13.2%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의 수입은 '00년 1,313억 달러에서 '08년 3,570억 달러로 연평균 13.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2000년 17억 달러에서 2008년 67억 달러로 연평균 18.4%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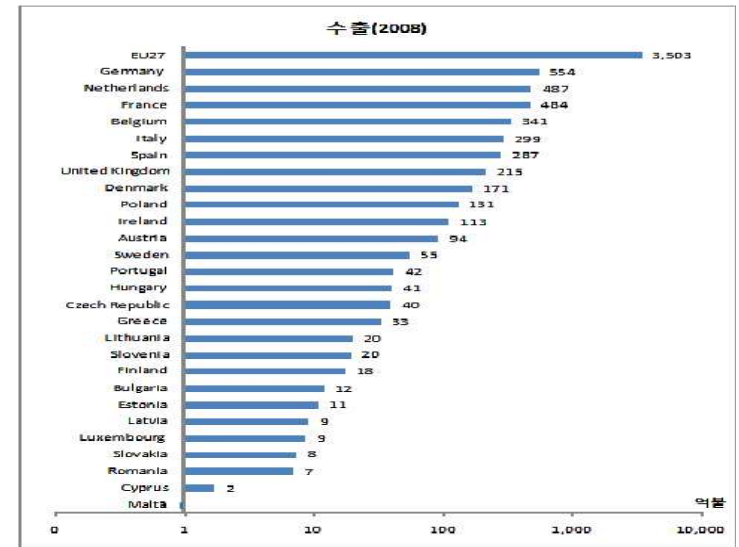
<그림 2-25> 유럽연합의 연도별 가공식품 무역수지 변동 추이



자료: WITS

2008년 국가별 수출현황을 보면 독일이 유럽연합 전체 수출의 15.8%인 544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네델란드가 13.9%인 487억 달러, 프랑스가 13.8%인 484억 달러, 벨기에가 341억 달러, 이탈리아가 299억 달러, 스페인이 287억 달러, 영국이 215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들 상위 7개국의 수출 비중이 약 7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6> 유럽연합 국가별 수출현황(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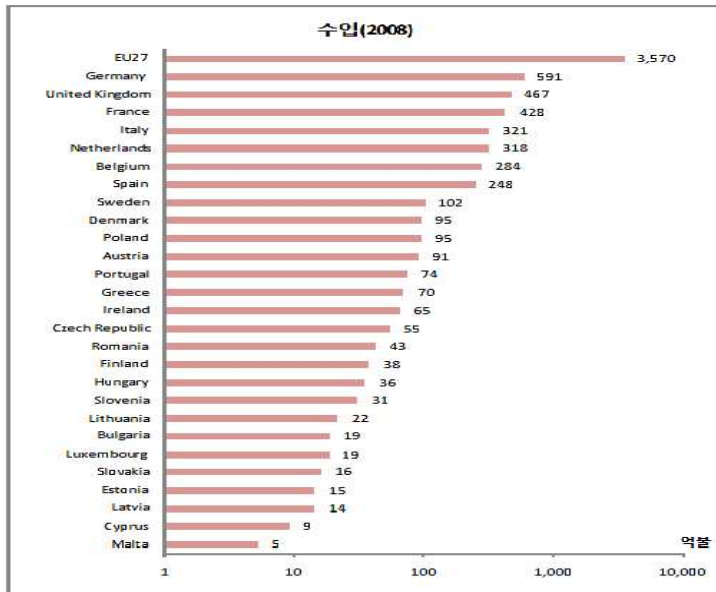


자료: WITS

2008년 국가별 수입현황을 보면 독일이 유럽연합 전체 수입의 16.6%인 591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영국이 13.1%인 467억 달러, 프랑스가 12.0%인 428억 달러, 이탈리아가 9.0%인 321억 달러, 네델란드가 9.0%인 321억 달러, 벨기에가

284억 달러, 스페인 348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들 상위 7개국의 수입 비중이 7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연합 국가로의 수출시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7> 유럽연합 국가별 수입현황(2008)



자료: WITS

나. 수출입 구조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구조를 보면 식료품이 2,872억 달러, 음료품이 631억 달러로 식료품이 82.0%를 차지하고 있다.

식료품 중에서는 육가공이 577억 달러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5%이고 그 다음으로 육가공이 474달러로 13.5%, 기타식료품이 421억 달러로 12.0%, 과채가공이 444억 달러로 12.7%, 빵·떡·과자가 304억 달러로 8.7%, 식용유지가 233달러로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 수출은 알코올음료가 522억 달러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로 가장 높고 음료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7%이며 비알콜음료는 109억 달러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이다.

<표 2-47> 유럽연합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출 현황

단위: 억\$, %

	2000		2004		2008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음식료품제조업	1,296	100.0	2,076	100.0	3,503	100.0
육가공	205	15.8	318	15.3	577	16.5
수산가공	85	6.6	131	6.3	178	5.1
육가공	186	14.4	288	13.9	474	13.5
과채가공	174	13.4	275	13.3	444	12.7
식용유지	62	4.8	113	5.4	233	6.7
곡물가공	49	3.8	77	3.7	137	3.9
빵·떡·과자	109	8.4	196	9.5	304	8.7
식품첨가물	18	1.4	36	1.7	60	1.7
기타 식품가공	142	10.9	224	10.8	421	12.0
알코올음료	218	16.9	327	15.7	522	14.9
비알콜음료	33	2.5	67	3.2	109	3.1
면류	14	1.1	24	1.1	44	1.2

자료: WITS

2000년 이후 음식료품제조업 수출구조를 보면 2000~2008년 동안 식료품에서 수출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식용유지 부문으로 연평균 18.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식품첨가물이 16.0%, 면류가 15.1%, 기타식품가공이 14.6%, 육가공 및 곡물가공이 13.8%, 빵·떡·과자류가 13.7%, 유가공 및 과채가공이 12.2%로 수산가공을 제외하고 1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음료품의 경우 비알콜음료가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6.1%, 알코올음료도 11.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수출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포도주가 약 149억 달러로 수출 1위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2위 품목은 약 144억 달러를 수출하는 유장치즈를 포함하는 기타치즈가 차지하였으며 5위 맥주, 7위 위스키, 8위 돼지고기, 11위 돼지고기 등 주류, 육가공 및 유가공 품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구조를 보면 식료품이 3,143억 달러, 음료품이 427억 달러로 식료품이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중에서는 과채가공품이 전체 음식료품제조업 수입의 16.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육가공품이 534억 달러로 14.9%, 기타식품가공품이 458억 달러로 12.8%, 유가공이 382억 달러로 1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의 경우 알코올음료가 347억 달러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알콜음료는 80억 달러로 2.3%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음식료품제조업 수입구조를 보면 2000~2008년 동안 식료품에서 수입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식용유지로서 연평균 2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면류 부문이 17.0%, 곡물가공 부문이 15.1%, 빵·떡·과자류 부문이 14.7%, 식품첨가물 부문이 14.5%, 육가공 부문이 13.6%, 기타식품가공이 13.4%, 유가공 부문이 12.0%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품의 경우 비알콜음료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7.1%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알코올음료의 경우도 연평균 12.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2-48>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 수출 상위 20개 품목(2008)

단위: 천\$

순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1	220421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 발효 억제한 것, 2이하)	14,881,033
2	040690	기타 치즈	14,426,031
3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12,563,831
4	190590	기타 유사베이커리 제품(실링웨이퍼, 제약용 빈 캡슐)	9,075,627
5	220300	맥주	7,129,059
6	180690	기타 초콜릿 및 코코아 함유식품	6,692,42
7	220830	위스키	6,655,654
8	020319	돼지고기(신선,냉장: 기타)	6,065,678
9	220410	발포성 포도주	5,406,266
10	02013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것))	5,131,166
11	020329	돼지고기(냉동: 기타)	5,079,224
12	220210	물(감미, 가향)	4,953,537
13	170199	사탕수수, 사탕무(화학적으로 순수한 당:기타)	4,451,750
14	040120	밀크와 크림(지방분1%~6%,비농축,무가당)	4,303,381
15	020120	쇠고기(신선,냉장(뼈채절단: 도체와 이분도체 제외))	4,020,580
16	170490	기타 설탕 과자류(코코아 첨가하지 않은 것)	3,871,575
17	150910	올리브 버진 오일	3,800,316
18	190531	스위트 비스킷	3,712,312
19	220290	비알콜음성 음료(물 과일 야채 주스 제외)	3,705,588
20	220820	포도주나 포도 찌꺼기를 증류하여 얻은 증류수	3,698,924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08년 기준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수입 상위 20개 품목을 보면 유장치즈를 포함한 기타치즈가 약 120억 달러로 수입 1위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2위 품목은 약 108억 달러를 수입하는 기타 조제식료품이 차지하였으며 3위 포도주, 4위 커피, 7위 피레트(냉동), 8위 쇠고기, 9위 돼지고기, 12위 맥주, 13위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등 주류, 육가공 및 유가공 품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새우와 보리새우, 피레트(냉동) 등 단순수산물가공품 수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9> 유럽연합 음식료품제조업 부문별 수입 현황

단위: 억\$, %

	2000		2004		2008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음식료품제조업	1,313	100.0	2,146	100.0	3,570	100.0
육가공	193	14.7	335	15.6	534	14.9
수산가공	151	11.5	214	10.0	336	9.4
유가공	155	11.8	245	11.4	382	10.7
과채가공	243	18.5	379	17.7	597	16.7
식용유지	65	4.9	126	5.9	297	8.3
곡물가공	44	3.3	77	3.6	135	3.8
빵, 떡 및 과자	104	7.9	203	9.5	311	8.7
식품첨가물	19	1.5	34	1.6	57	1.6
기타 식품가공	168	12.8	255	11.9	458	12.8
알코올음료	139	10.6	213	9.9	347	9.7
비알콜음료	23	1.7	46	2.1	80	2.3
면류	10	0.8	19	0.9	36	1.0

자료: WITS

<표 2-50>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 수입 상위 20개 품목(2008)

단위: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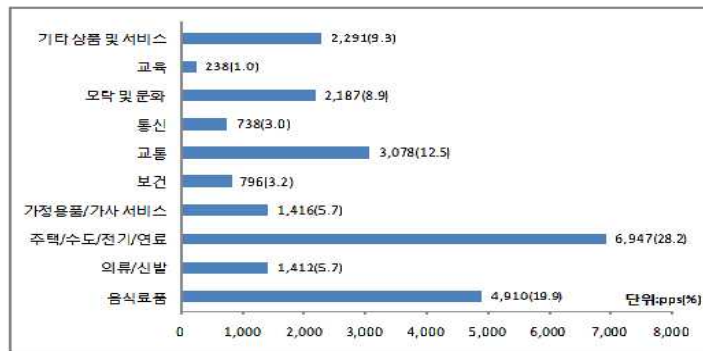
순위	HS 코드	품목명	금액
1	040690	기타 치즈	11,997,579
2	210690	기타 조제식료품	10,828,426
3	220421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 발효 억제한 것, 2이하)	10,793,855
4	090111	커피(안볶은것:카페인비제거)	8,412,435
5	190590	기타 유사베이커리 제품(실링웨이퍼, 제약용 빈 캡슐)	7,931,083
6	080300	바나나(신선,건조: 플렌틴 포함)	6,838,711
7	030429	기타 어류의 피레트(냉동)	6,226,157
8	02013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것))	5,704,635
9	020319	돼지고기(신선,냉장: 기타)	5,477,969
10	180690	기타 초콜릿 및 코코아 함유식품	5,049,315
11	170199	사탕수수, 사탕무(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기타)	4,028,430
12	220300	맥주	4,025,812
13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4,024,469
14	040120	밀크와 크림(지방분1%~6%,비농축,무가당)	3,938,287
15	1801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	3,933,301
16	220210	물(감미, 가향)	3,588,127
17	020120	쇠고기(신선,냉장(뼈채절단: 도체와 이분도체 제외))	3,487,056
18	151110	팜유 조유	3,479,946
19	020312	돼지고기(신선,냉장: 넓적다리와 어깨 및 절단육)	3,385,234
20	220830	위스키	3,377,804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5. 식품소비지출

2005년도 유럽연합 국가의 연간소비지출은 24,667pps(purchasing power standard : 구매력평가단위)로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보면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비가 6,947pps로 전체 지출의 28.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료품비 19.9%, 교통비 12.5%, 기타상품 및 서비스가 9.3%, 오락 및 문화비가 8.9%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8> 유럽연합 가계지출 현황(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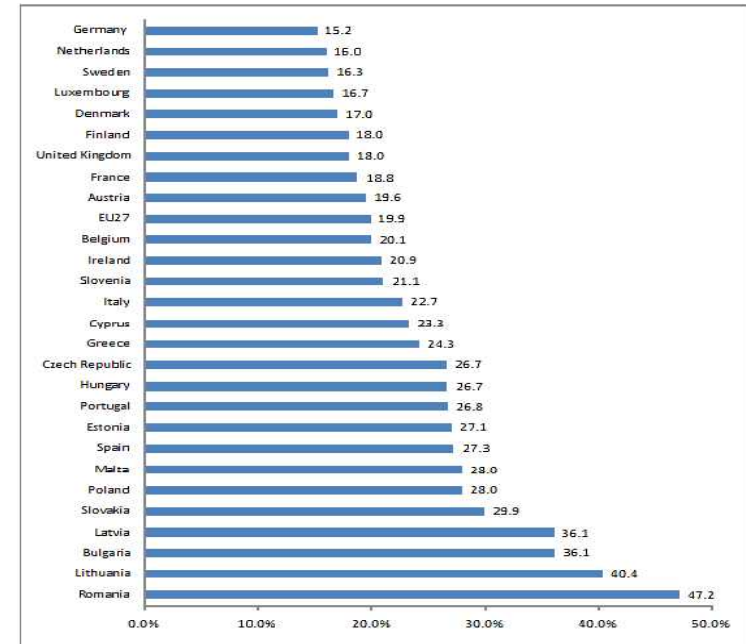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2005년도 유럽연합 국가의 가계지출에서 음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앵겔계수는 19.9%로 나타났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독일이 15.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평균치보다 낮은 국가들을 보면 네델란드 16.0%, 스웨덴 16.3%, 룩셈부르크 16.7%, 덴마크 17.0%, 핀란드 18.0%, 영국 18.0%, 프랑스 18.8%, 오스트리아 19.6%로 나타났다.

반면 앵겔계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루마니아로서 전체 지출의 절반인 47.2%를

음식료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투아니아 40.4%, 불가리아와 라트비아가 3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9> 유럽연합 국가별 음식료품비 지출 비중(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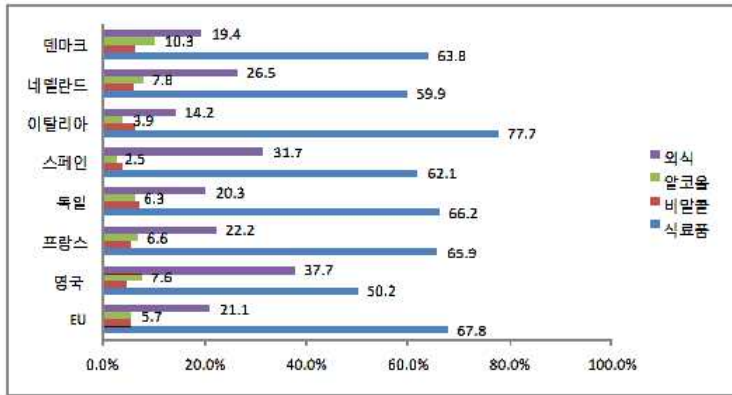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2005년도 유럽연합 국가의 식품류별 지출 비중을 보면 식료품 부문에 지출하는 비중이 67.8%로 가장 높고 외식부문 지출 비중은 21.1%, 알코올 부문과 비알코올부문의 지출 비중은 각각 5.7%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주요 국가의 식품류별 지출 비중을 보면 영국은 식료품 부문 지출

비중이 50.2%, 외식부문 37.7%로 다른 국가에 비해 외식비 지출 비중이 높다. 프랑스는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65.9%로 높고 외식비 지출 비중은 22.2%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66.2%, 외식비 지출 비중은 20.3%로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유럽연합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62.1%, 외식비 지출 비중이 31.7%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고 이탈리아는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77.7%로 유럽연합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델란드는 외식비 비중이 26.5%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높고 덴마크의 경우는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63.8%로 높고 알코올 부문의 지출 비중이 10.3%로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0>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식품류별 지출 비중(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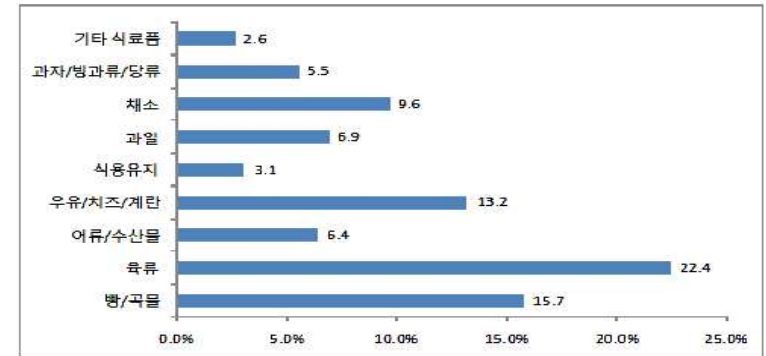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2005년도 유럽연합 국가의 식료품 품목별 지출 비중을 보면 육류에 지출하는 비중이 2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빵 및 곡물에 지출하

는 비중이 15.7%, 우유, 치즈 및 계란에 지출하는 비중은 13.2%로 유럽의 식생활 문화와 관련된 품목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1> 유럽연합 국가의 식료품 품목별 지출 비중(2005)



자료: Eurostat,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식료품 품목별 지출 비중을 보면 영국의 경우 육류 지출 비중이 2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빵 및 곡물이 1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채소에 지출하는 비중이 15.2%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도 육류 지출 비중이 2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빵 및 곡물 21.2%, 우유, 치즈 및 계란 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채소의 비중도 10.2%에 달하였다. 스페인의 경우도 육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어류 및 수산물 비중이 14.7%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과일의 지출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도 육류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과자, 빙과류 및 당류의 지출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앵겔계수가 가장 높은 루마니아의 경우도 육류의 지출 비중이 2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빵 및 곡물 20.6%, 우유, 치즈 및 계란 18.1%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높고 채소 지출 비중도 14.9%로 영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1> 유럽연합 주요 국가별 식료품 품목별 지출 비중(2005)

단위: %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델란드	덴마크	루마니아
빵/곡물	19.0	21.2	15.1	18.8	18.7	17.7	20.6
육류	24.3	27.1	27.5	25.1	23.1	24.4	28.2
어류/수산물	4.9	6.7	14.7	9.6	3.2	4.6	2.6
우유/치즈/계란	14.0	15.3	13.9	15.2	16.4	15.2	18.1
식용유지	2.2	2.4	3.4	4.1	2.6	2.7	4.4
과일	8.9	6.8	9.3	9.5	8.1	7.9	5.4
채소	15.2	10.2	10.0	9.9	12.7	11.9	14.9
과자/빙과류/당류	6.8	6.7	3.5	6.8	7.5	12.3	4.6
기타 식료품	4.7	3.5	2.5	1.0	7.7	3.3	1.3

자료: Eurostat,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2009 식품산업동향

2010년 2월 26일 인쇄
2010년 2월 26일 발행

편 지 **한국식품연구원**

발 행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TEL: 02)6300-1283 FAX: 02)6300-1623

본 책자의 통계자료 및 분석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정책연구단(T. 031-780-92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행한 「국내외 식품관련 통계수집 및 식품산업 동향분석·전망」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행한 「국내외 식품관련 통계수집 및 식품산업 동향분석·전망」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